



2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2호

(루게 544)



## ◆◆◆◆◆◆◆◆◆◆ 차 례 ◆◆◆◆◆◆◆◆◆◆

작가들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위대한 당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자 .....	4
옛교정의 정향나무여 .....	7
붉은 태양 .....	8
영원불멸의 김정일동지께 .....	8
위대한 명장 .....	9
그날은 12 월 24 일이었다 .....	10
품에 대한 이야기 .....	11
그날처럼 살고싶어 .....	21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 (외 1 편) .....	22
오늘도 그날에 사네 .....	22
통이 큰 구상 .....	23
빛나라 향도의 자욱이여 .....	2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에 대하여 .....	25
너와 속삭이노라 .....	31
명제해설 .....	34
주체의 혁명관, 민족관 확립에 이바지하는 빛나는 화폭 .....	35
비료로 우리를 지켜간다 ! .....	40
축복의 흰눈송이 .....	41
해발 .....	44
따르는 마음 .....	51

기쁨만을 드리리 (외 1 편).....	53
충성과 효성에 대한 생각 (외 1 편).....	55
사회주의신념.....	56
첫 소조원의 모습앞에서 .....	57
만풍년을 안고 사는 사람들.....	59
홍남의 숨결 .....	61
풍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외 1 편).....	61
당신은 압니까? (외 1 편) .....	61
순간을 (외 1 편).....	62
비료와 쌀 .....	62
잊지 말자 .....	63
홍남아 일어나라 (외 1 편) .....	63
우리 청년들 .....	64
좋다! 이 기발이 좋다.....	65
달밝은 강언덕 .....	66
첫 생활.....	72
청춘과 세월.....	80

## 작가들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위대한 당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계시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 세련된 령도자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기여한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

고전적로작은 사회주의집권당으로서의 확고한 령도적권위를 지니고 오래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귀중한 투쟁경험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교과서이며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작가들은 지금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으며 창작하며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신심도 드높이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한 위대한 당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의 화폭에 깊이 있게 수놓아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강위력한 사회주의집권당을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데서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에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하는 당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불멸의 기여를 하였다. 더우기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사태가 벌어져 사회주의위업이 일시적인 시련을 겪고있는 현정세하에서 사회주의집권당건설에서 우리 당이 창조한 귀중한 경험은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기 위한 역사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어떻게 전진시켜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령도하는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피흘리며 투쟁하여온 전로정은 승리의 열쇠도 당 건설과 활동에 있고 실패의 원인도 당 건설과 활동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당의 령도가 곧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선진적인 사회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은 력사발전의 흐름이다.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인류력사의 흐름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사회주의의 전진은 로동계급의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되고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며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왔다.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귀중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당의 위대성을 만대에 길이 전하여야 할 무거운 창작적임무를 제기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위업에 문학창작으로 이바지해야 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있는 혁명가이며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고전적로작을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에 넘쳐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주체문학의 생명선이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우리 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도 우리 작가들의 빛나는 삶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작가들과 주체문학의 운명도 미래도 오직 당의 품에서만 빛날수 있고 찬란히 꽃피날수 있다.

당의 령도는 우리 작가들이 창작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아무런 편향없이 주체문학창작의 길을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며 우리 작가들에게 끝없는 창작적환상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활력을 안겨주고있다.

은혜로운 당의 품에서만 우리 작가들은 창작생활에 대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온갖 조건을 보장받으며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으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누려가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작가들을 금싸래기처럼 여기시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라는 최상의 높이에 세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다.

당의 품은 참으로 우리 작가들의 영원한 삶의 품, 위대한 어머니의 품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령도를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하며 이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른 오늘에 와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문제가 현실주체의 문학작품창작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로 나서고있는 때에 창작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우리 작가들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작가들 자신이 결백한 당적량심을 가진 사람으로 철저히 준비하는것이다.

당적량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 나타난다. 작가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인간의 도리로, 의리로 여길줄 알아야 한다.

고전적으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받아안고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도 그 성과여부는 우리 작가들이 당적량심을 가지고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작가들의 당적량심은 문학작품창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작가는 바로 다름아닌 문학으로 혁명에 이바지한다. 문학으로 혁명에 이바지하자면 당이 바라는 작품, 우리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칭송하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고전적으로작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의 심장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창작하는 궁지와 함께 창작적충동과 의욕에 불타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작가의 심장의 충격은 자체의 흥분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것이 인민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메아리로 되어야 하며 그들의 정신속에 생동한 생활적표상으로 아로새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공감하고 생활적으로 납득이 가게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예술적공감이 없고 설득력이 없으면 문학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가질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형상의 초점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라는 사상이 어떤 형태의 작품에서든지 세차게 울려나오도록 하는것이다.

작가들은 모든 작품들에 국가주권을 자기 수중에 튼튼히 장악하고 온 사회에 대한 통일적이며 정치적인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집권당의 령도가 없이

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할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 불멸의 진리를 형상 전반에 깊이 깔고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위력이자 곧 그것을 진두에서 이끄는 집권당의 위력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 소리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지난날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를 향도하여온 당들이 붕괴되어 심각한 력사적교훈을 가르쳐주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시기에 이처럼 강위력한 혁명적당을 가지고 사회주의기치를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고있는것은 바로 우리 인민만이 누리고있는 더없는 자랑이며 영광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쌓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력점을 찍어야 할것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 우리 당의 업적을 깊이 형상하는것이다.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은 우리 당에 의하여 처음으로 확립되고 그 진리성이 확증된 원칙이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단호히 인연을 끊은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력사적뿌리가 마련되었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강화발전된 우리 당에 있어서는 주체를 세우는것이 모든 투쟁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생명선으로 되었다. 우리 당은 강위력한 당을 건설하고 사회주의를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갔으며 다른 나라 당의 경험이라고 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 당의 이러한 견결한 주체적립장은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있다. 우리 당은 이 구호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혁명무력 등 모든 분야를 우리 식대로 발전시켰고 우리 인민들에게 주체의 낯을 깊이 심어주었으며 우리 조국을 주체의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집권당과 사회주의체도가 련이어 무너지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를 목격하면서 비록 힘이 들고 간고하였지만 자신들이 걸어온 주체적인 길이 얼마나 천만번 정당한 길이며 나라와 민족, 혁명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것을 신념으로 느끼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진 주체의 낯,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드물지 않는 신념으로 뿌리내린 이 의지를 소설로, 시로, 극으로,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 구현하는것이 우리 시대 작가, 우리 당의 작가들이 력사앞에 지니고있는 성스러운 사명이다.

고전적으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받아안고 우리 작가들이 당의 작가로서의 끝없는 영예와 특전을 누리게 된것은 당의 령도의 계승성문제를 형상으로 더욱 소리높이 구가할수 있는 사상리론적지침을 간직하게 된것이다.

우리 당이 강위력한 사회주의집권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사회주의를 즐기치게 발전시키는 투쟁행로에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 끝없이 귀중한 경험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령도의 계승성문제를 옳게 해결한데 근본비결이 있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령도는 그 중심에 탁월한 지도자를 내세울 때에만 훌륭히 보장될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처럼 령도의 계승성문제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적은 일찌기 없었다. 혁명은 멀리 전진하고 혁명의 주체는 새로운 세대들로 교체되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확증되고 그 견인력이 커감에 따라 그것을 말살하려는 계급적원썹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나라, 어떤 민족도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령도를 계승할수 있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않고서는 강위력한 사회주의집권당을 건설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위업을 한결음도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령도의 계승성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향도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사회주의집권당을 건설하는 중대한 위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현시기 근본문제로 되고있는 령도의 계승성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우리의 성스러운 현실을 시대의 송가로 높이 칭송하며 자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며 사회주의위업의 불멸의 향도성,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모든 자질과 대범한 천품을 다 지니시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재건하는 휘황한 등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심으로써 령도의 계승성문제는 더욱 굳건하고 즐기치게 해결되고 이어지고있다.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어느 민족도 누릴수 없는 이 행운이 우리 인민에게 차례졌으며 이것은 또한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그 무진장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지금 일시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바로 우리의 당,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며 재생의 힘을 얻고 사회주의재건운동에 힘있

게 펼쳐나가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사회주의의 전진을 위하여 일떠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모든 창작적 열정과 심혈을 다 바치자.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만이 누린 이 영예와 특전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에 바쳐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것으로서 빛내어나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존엄있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력사는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전면적으로 구현해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력사이다. 이 위대한 력사를 그대로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집권당건설력사는 우리 인민과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크나큰 긍지를 안겨주고있다.

이 위대한 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이 우리 작가들의 필생의 과업이며 또한 우리모두의 지향이고 의지이고 다짐이다.

고전적으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사상리론을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가들은 우리 문학의 전반적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모든 지혜와 재능, 탐구와 사색, 열정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예술의 선행관인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이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는 문제이다.

작가들은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고전적으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문학부문에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하며 주체문학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고전적으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 제시된 심원한 사상리론을 깊이있게 학습하며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로작의 불패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해야만이 작품에 형상할수 있는 창작실천적방도도 생기고 로작의 사상에 기초하여 작품의 종자도 바로잡을수 있다.

작가들은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밝혀준 주체적 문예 사상과 리론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문학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가장 정의로운 위업인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60 년전에 헤어졌던 스승의 모습을 그 두 딸의 얼굴에서 찾았을 때 나는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민족이 다르다고 정까지도 달라지겠는가. 사람의 정은 피부와 언어와 신앙의 장벽을 모른다. 만일 육문중학교 교정이 가까이에 있다면 나는 그 교정에 만발하는 정향나무꽃잎들을 한줌 가득 뜯어주며 〈이것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꽃이다. 상월선생과 나는 이 꽃나무밑에서 자주 만났다.〉 하고 말해주었을수도 있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중에서-

## 옛교정의 정향나무여

전계승

본시 꽃향기 좋은  
정향나무여서  
그리도 짙은 향기 풍기는것인가

잊을수 없으시여  
상월선생이 그리워지실 때마다  
육문중학교의 옛교정  
마음속으로 거니시며  
선생이 좋아하던 정향나무꽃  
그 향기에 젖어보신다는  
우리 수령님

그러시면 그러시면  
연보라꽃이 핀 정향나무아래에서  
조설근의 《홍루몽》,  
고리끼의 《어머니》를 읽으신 소감  
열렬히 나누시던 어깨들우에  
꽃가지 흔들던 정향나무  
그윽한 그 향기가 풍겨오고-

일제에게 짓밟힌 조선의 정세며  
풍진등화의 만주정세...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을 론하할 때  
불덩이를 안던 가슴들우에  
앞길을 축복하듯  
해빛도 아롱진 꽃무늬 새겨주던  
그 정향나무 그늘이 어려와서-

60 년 세월  
다시는 한번도 못만났으니  
회억하실수록 못견디게 그리워...  
못다 베푸신 크나큰 사랑을 담아  
옛교정의 정향나무꽃잎 한줌가득 뜯어  
선생의 자녀들에게라도 안겨주고픈 마음  
금할수 없다시는  
아 우리 수령님

세상에 꽃향기 좋은 정향나무 많고  
그에 깃든 이야기 동서고금에 하 많아도  
위도와 경도, 피부와 언어의 장벽을 모르는  
가장 뜨거운 인정

가장 깊으신 의리를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  
가장 위대한 인간의 그 향기  
일찌기 간직해본 정향나무 또 있으랴

그토록 뿌리깊어 무성하게 자라나며  
그 인정, 그 의리를 꽃피운 정향나무여  
넘치는 그 향기를 한껏 뿜으랴  
만민이 뜨겁게 따라거니는  
오오 길림육문중학교- 그 마음의 옛교정에  
향기 한껏 뿜으랴  
온 누리에

# 붉은 태양

니싸르 나씨크

김일성 그이는 령도의 해발

김일성 그이는 절망속에 신음하던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태양

김일성 그이는 자본의 철쇄에 억압받던  
근로인민의 심장속에  
꺼지지 않는 주체의 불씨를 지펴주신 화불

김일성 그이는 태양이시여라  
암흑을 밀어내고 인민들의 앞길 밝히는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이시여라

김일성 그이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철퇴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에게는 구세주  
평화와 화목의 상징

김일성

그이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기치  
그이는 영원한 태양이시여라

(필자는 파키스탄시인임)

## 영원불멸의 김정일동지께

호로헤 리베라 차베리

천지의 맑은 물도 기쁨에 설레이고  
백두성산도 감격에 소리높이 축복하였다네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첫걸음 떼시였음을

일찌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되시여  
인류에게 주체사상의 빛발을 안겨주신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손길아래  
통일의 려명은 밝아오고  
그이의 자애론 사랑속에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행복누리네

천리마의 속도로 세인을 놀래우며

승리와 영광의 50 여성상을 빛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탁월한 령도로  
세기적 략후와 빈궁은 옛말로 되고  
락원거리,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현대적인 새 거리들 수폴처럼 일떠섰나니  
세계는 그이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노라

그이께서 추켜드신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전세계의 로동계급  
그이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노라

김정일 그이는

자주성의 화신으로 영원불멸하리라

(필자는 니까라과사람임)



# 위대한 명장

원현호

그이만 생각하면  
불구름이 밀려온대도  
병사는 두렵지 않노라  
그이만 우러르면  
가야 할 천만리길도  
지척에 보이노라

걸출한 명장의 천품지니시고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그날부터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고  
준엄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싸우는 전선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슬기를 키우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그이의 은혜로운 사랑  
해빛이 되어 초소에 비치면  
병사들의 가슴엔 충성의 꽃이 피고  
거룩한 손길 한번 드시면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솟아올라  
주체조국의 위력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엄  
만천하에 떨치여라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 열백번도 더  
엄혹한 전쟁이 터질수 있었더라  
《푸에블로》호, 《관문점사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소동…  
오만무례한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었던가

허나 그때마다  
철의 의지와 신념을 지니신  
우리의 령장  
천리혜안의 지략을 펼치시어  
천만대군을 불러일으키시고  
단 한수로  
적의 백수, 천수를  
앞질러 짓눌러버리셨나니

그 예지와 담력 앞에  
옴쉴거리던 수십만대적이 전몰했고  
빼들었던 침략의 검은 칼이  
써보지도 못한채 꺾어져나뒹굴었어라

지나온 인류전쟁사에는  
가렬치절한 공방전속에  
강토를 적신 피와  
참혹한 폐허속에서  
승리의 축배를 든 장군들은 많았어도  
총포성 한방 울리지 않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명장은 없었나니

그이는 오직 한분  
력사가 처음으로 내세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위대하여라  
그이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그이는 회세의 군사전략가  
명장중의 위대한 명장!  
이 땅에 밀려오는 불구름을  
진두에서 한몸으로 막으신  
그 낮과 밤들을 못잊어  
온 나라 인민들 감격에 목메여라

그래서  
맑은 하늘을 떠인  
조국의 산발들은 설레이며 솟아오르고  
층층 높은 기념비적건축물들  
해빛넘치는 락원의 창문들이  
축복의 밝은 웃음 실어보내여라

몰아치는 광풍속에서도  
사회주의전초선을 지켜  
혁명의 붉은기치 더 높이 추켜드신  
그이를 우러러  
인류는 신심에 넘쳐 희망에 넘쳐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노라

하늘이 들리도록  
이 땅에 높이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  
우주의 한끝에 닿았나니

오, 그 이름 위대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오직 그이의 령도를 생명으로 삼고  
그이의 명령을 받드는 한길에서

살아도  
죽어도  
그이의 전사로  
내 한목숨 다 바쳐 싸워가리라 !

## 그날은 12 월 24 일이었다

김영철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못잊어  
내 가슴 뜨겁게 새겨안은 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받들어모신  
그날은 12 월 24 일이었다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에 목메여  
감격에 목메여  
만세를 부르고부르며  
어이하여 그날에  
우리 생각은 그리도 깊었던가

12 월 24 일 !  
아, 그날은  
못잊을 그날은  
이 나라에 태양을 받들어올리신  
김정숙어머님 탄생하신 날

푸른 달빛 비껴드는  
백두밀영고향집 창가에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시며  
어머님 바라신 념원은 무엇이던가

포연서린 탄띠를 조여매시고  
친애하는 그이를 가슴에 안으실 때  
하늘처럼 창창한  
조선의 미래를 그려보시던

어머님 간직하신 생각은 무엇이었던가

아, 그날의  
어머님 높이신 뜻 받들어  
빛나는 예지  
령장의 슬기로  
조선을 펼쳐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래서 우리 인민은 하많은 날  
날은 많고많아도  
어머님 탄생하신 그날을 폴라  
친애하는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나니

그날에 바라신 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이  
끝없는 인민의 기쁨으로  
끝없는 인민의 영광으로  
하늘땅에 차고넘친 12 월 24 일!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날은  
세월이 기다리던 날이었다  
천만년 영원히 그이를 받들어갈  
조선의 신념, 조선의 의지가 새겨진  
뜻깊은 력사의 날이었다

(1992. 12. 2)

# 품에 대한 이야기

한웅빈

...건축은 예술이라고 한다. 보다 《형상적으로 고체화된 음악》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그 어느 건축물을 막론하고 인간의 감정과 정서, 의지를 담고있기때문일것이다.

건축설계가 림의건은 창문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있었다. 크고작은 불빛들이 명멸하는 거리, 그 불빛들은 하도 찬란하여 행렬을 지는 건물들의 벽이며 도로의 거무스름한 아스팔트까지도 발광체로 되어 빛을 뿜는듯했다. 이밤 수도의 거리는 더 크고 화려해보이는듯했다.

오래동안 건축설계를 해온 림의건이었고 어느 거리에 가나 그의 설계로 일어난 건축물들을 찾아볼수 있었으나 이밤에는 자기와 관계없이 형성되고 완성되어온 거리인들이 낮설게까지 느껴졌다.

《건축... 건축...》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이제까지 그것을 위하여 일해온 그였으나 이때에는 그 말이 낮설은 말로 뜻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말처럼 느껴졌다.

먼 옛날로 소급해보면 아마도 건축은 필요라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요구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해왔을것이며 뒤이어 생겨난 또하나의 욕망, 상상속에 나타난 신비를 현실적인것으로 만들어보려는 정신적인 욕구에 의하여 발전되어왔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어찌보면 인간은 물질적인 필요보다 정신적인 욕구의 만족에 더 많은 정력을 기울이지 않았던가싶다. 인간이 대자연의 《건축물》인 천연동굴에서 나와 첫 건축물인 초막을 세우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건축력사를 전해주는것은 살림집이나 도로가 아니라 피라미트나 스프링크스, 거대한 사원들인것이다. 그것은 생활상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상징적인것을 위하여 세워진것들이었다. 그 모든 건축물들에서는 인간의 편의에 둘러진 관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들은 뜨거운 피와 땀으로 쌓아졌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준것은 석재의 싸늘함뿐이었고 인간에게 자기의 왜소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데 복무하였다. 일견으로 보면 인간의 상상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인간을 굴복시키고 위압한 《하느님》과 비슷한것이였다. 그것이 지난 시기 건축의 사명이였는지도 모른다....

뎡-뎡- 밤대기속으로 울려퍼지는 웅글은 시계종소리에 림의건은 눈길을 쳐들었다. 커다란 산처럼 느껴지는 인민대학습당의 거대한 지붕이 시야를 온통으로 충만시킨다.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거

대한가. 집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하나의 세계처럼 안겨온다. 그 푸른 지붕은 이 세상 어디에 가나 보일것 같고 그 웅글은 시계종소리는 우주의 무변광대한 공간속으로 울려퍼져 다른 천체에까지도 날아갈듯싶다.

그런데 저 거대한 건축물은 어디서 보아도 압박감이나 위축감을 추호도 느끼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앞에 서면 자기자신을 그만큼 크고 위대한 존재로 느끼게 되며 인간의 힘의 무궁무진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여기에 우리의 건축, 주체적건축 예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탁상등이 고독하게 동그란 빛을 던지는 탁상을 한동안 노려보았다. 그 불빛속에서는 알록달록하게 채색한 (아이들의 유치한 크레용화처럼 !) 삐죽삐죽한 집이(피이하게 보일지경으로 !) 설계도면을 가득 채우고있다. 《학생소년궁전》...

아, 저 집이 도면에 한번 그려지는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마쳤다는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림의건의 귀전에서는 천천히 옮겨지던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다시 울리는듯했다.

그는 부지중 눈을 감았다.

오늘날 많은 설계가들이 만든 학생소년궁전의 설계형성도안들을 보아주려 나오셨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우시였다. 아니, 그분은 처음에는 무척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시였다. 그러나 설계형성안들을 보아가심에 따라 그이의 걸음은 점차로 떠지시였다.

한장 또 한장... 그이께서는 아무 말쑈도 없으시였다. 천천히 점점 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실뿐이였다.

한걸음... 또 한걸음... 림의건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들었다. 그이께서 형성안앞으로 가까이 가고계셨던것이다. 천천히 울리는 발걸음소리, 림의건의 심장은 발자국소리가 울릴 때마다 금방 멈춰설듯이 조여들었다. 어떤 평가를 주실가.

한걸음, 또 한걸음, 드디어 그이께서 형성안앞에 이르시였다.

그러자 림의건의 심장은 툭 소리를 내며 가슴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고동을 멈춘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떨구었다. 왜서인지 알수 없었다. 그때까지는 괜찮게 되었다고 믿어왔던 형성안이 일순간에 모든 매력을 깡그리 잃고말았다. 그이의 시선이 형성안으로 향하는 순간 《실패다 !》하는 웨침이 귀전을 때렸다.

어찌하여 이제껏 몇달동안을 두고 고심하면서 도 깨닫지 못했던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지의 시선이 향해진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것일까. 그이의 시선은 마치 형성안이 아니라 림의건의 머리속을 섬광처럼 번쩍 비치고 지나간듯했다. 실패... 실패...

《설계가동무들이 수고했습니다. 많은 힘을 들인 것이 알립니다.》

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형성안들을 다시 한번 쪽- 훑어보시었다.

림의건의 가슴속에서는 어떤 미련과도 같은것이 머리를 들었다. 결함이 부분적이라면, 설혹 그것이 아무리 큰 수정을 요하는것이라 하여도 희망은 있었다.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그러나 형성안에서 눈길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림의건의 마지막 기대마저도 산산이 허물어버렸다.

《그런데 형성안들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동무들이 아직 당의 의도를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

그제야 림의건은 그이께서 형성안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신것이 어린 자식의 서투른 그림에서 잘된것을 찾아주고싶어 이리보고 저리보며 안타까와하는 부모들과 같은 심정에서였음을 깨달았다.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에서 림의건자신의 얼굴이 얼른거리며 울려다보고있었다. 그 얼굴은 눈도 귀도 알아볼수 없는 룻판만으로 이루어진 얼굴이었다. 그것이 바로 림의건이었다.

《우리가 왜 이 집을 궁전이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 형성안을 가리키실듯 손을 쳐드시였으나 아직 그 형태조차 없는 가상적인 집을 가리키듯 손가락으로 자그마한 원을 그려보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소년궁전은 바로 나라의 왕들이 살 집입니다. 그런데 이 형성도안들은...》

그이께서는 형성안들을 가리키시었다.

《궁전맛이 나지 않습니다. 학생소년궁전은 경쾌한 맛이 아니라 궁전맛이 나게 하여야 합니다.》

궁전맛, 그것이 어떤것인지를 림의건은 잘 안다. 웅장함과 화려함, 지구와 같은 무게... 그런데 어찌하여 림의건은 저런 형성안을 만들게 되었을까. 림의건은 형성안을 만들 때의 자신이 원래의 자기가 아니었던듯한 의혹을 느꼈다.

《내 보건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설계가들의 얼굴을 둘러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동무들은 광복거리에 앉히는 학생소년궁전이라는것으로 하여 거리형성만 생각하다보니 궁전을 특색있는 건물로 만들지 못한것 같습니다.》

《!》

바로 그것때문이었다. 림의건은 물론 다른 설계가들도 학생소년궁전을 특색있게 할 생각보다 광복거리 형성에 어울리게 할 생각만 했었다. 그것은 달리 할수 없는것인듯했다.

어떤 거리던 건물마다 특징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는것은 건축형성상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기때문이다. 학생소년궁전이 지내 두드리지면 그 통일성이 깨뜨려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모순과도 같았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원래 모순이라는 말자체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어울리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였지만 이것이야말로 해결할수 없는 모순 같았다.

《이 학생소년궁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 설계가들의 얼굴로 시선을 옮기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광복거리에서 가장 특색있는 건물로 되어야 합니다. 학생소년궁전을 광복거리에 어울리게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학생소년궁전이 광복거리를 더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로 되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림의건의 머리속으로는 또 한차례의 눈부신 번개섬광이 비치며 지나가는듯했다.

학생소년궁전으로 광복거리가 더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로 되도록 하라.

이제까지 림의건은 학생소년궁전이 광복거리에 어울리도록 하는데만 머리를 써왔다. 어울리면서 웅장하게 할 생각에만 집착해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학생소년궁전을 광복거리에 묻힌 건물로부터 광복거리우에 솟아오를 건물로 쪽 뿔아올려주시는것이였다.

《산맥이 웅장해보이는것은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굴곡이 심한 산맥을 손세로 그려보이시었다.

《학생소년궁전은 바로 그런 높은 봉우리로 되어야 합니다.》

《!》

림의건의 눈앞에는 상상적인 건축물이 우뚝 솟아나는것 같았다. 광복거리를 더 웅장하고 화려해보이게 하는 건축물... 그것이 어떻게 생긴 건물일지는 아직 알수 없었으나 그 거대한 규모만은 그리안기 어려울정도로 벽차게 안겨왔다.

《학생소년궁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봉우리우에 앉으시듯 손을 쳐드시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동무들이 아는것입니다. 이 학생소년궁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1990 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어린이들의 궁전입니다. 그런만큼 학생소년궁전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상이 응당 반영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을 위하여 장대재에 학생소년공전을 지어주시었습니다. 그때 학생소년공전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집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눈빛은 깊은 사색에 잠겨 그윽해지시었다.

《7 천세대를 지을 자재로 2 만세대를 짓던 긴장한 시기였으나 수령님께서서는 학생소년공전에만은 자재를 아낌없이 돌려주시었습니다. 그 장대재학생소년공전의 지붕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오늘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습니다. 힘있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가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못해줄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없습니다.》 하듯이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었다.

《이번의 학생소년공전에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신 수령님의 그 모든 사랑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학생소년공전은 새로 일어서는 광복거리에서 우리 인민의 행복상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높은 봉우리로 될수 있습니다.》

《!》

림의건의 가슴은 세찬 충격으로 뛴뛰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상을 보여주는 형상적봉우리, 그는 방금전까지도 학생소년공전을 건축형성상 광복거리의 봉우리로만 생각했었다. 허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림의건은 다시한번 높이 비약하는 자신을 깊은 감동속에 깨달았다.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림의건의 앞에서 멈춰서시었다.

《할수 있겠습니까? 림선생.》

림의건은 자기가 이 물음만을 기다렸던듯했다.

《할수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꼭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형성안을 잘 만들어봅시다.》

그이께서는 자신도 한 설계원으로 여기시는듯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발걸음소리가 사라진후에도 림의건은 오래도록 진정할수 없었다. 온몸을 사로잡고있는것이 뜨거운 걱정이었는지 칼날같은 가책이었는지 감격이었는지 흥분이었는지 그로서도 알수 없었다. 다만 가슴속에서 점점 높아가는 목소리만은 똑똑히 들었다.

(해야 한다! 기어이! 기어이!)

힘이 솟구쳤다. 흥분으로 몸이 떨렸다. 이제 설계략에 마주앉으면 새로운것이 활화산처럼 솟구쳐 오르며 놀라운것이 이루어질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그는 단 하나의 선도 긋지 못했다.

방바닥에는 수십수백번 오간 발자국이 보이지 않게 찍혀있었지만 펼쳐놓은 종이는 흰종이대로 남아있었다. 그 흰종이가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나 그는 집어올리지 않았다. 머리속에는 수십가지의 형태들이 얼른얼른 떠올랐으나 종이장에 옮기려고 하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미건조한것으로 되어버리곤했다. 그러는 사이 흥분은 식어버렸고 그와 함께 신심도 침침하게 가라앉아버렸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대기와 함께 스며들어 몸을 으스스하게 했다.

그때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전실문이 열리고 방문이 방긋 열렸다.

《아버지!》

열아홉살난 딸이었다.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이 아파트에서 불을 켜건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 몇시냐?》

《두시가 넘었어요, 새벽 두시반.》

림의건은 방금전에 들었던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가 생각났다. 방금전같은데 벌써 반시간이지났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고있다.

《그런데 넌 어데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느냐?》

림의건은 가까스로 아버지의 립장으로 돌아왔다. 얼굴에는 저절로 얇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나 딸은 그 표정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광복거리 건설장에 갔었어요.》

《광복거리예?》

딸의 얼굴은 지친듯 핏색했다. 그러나 두눈에서는 장해하는 빛과 처음으로 자기 위치에 대한 긍지를 느낀 사람의 기쁨이 맑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딸은 광복거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야간돌격대에 어제부터 들어갔다면 신이 나서 조잘거렸다.

《굉장해요.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거리는 또 얼마나 큰지, 아유, 건설장을 다 돌아보려면 며칠 걸려도 안될것 같아요. 아버지 나가보셨어요?》

《그래,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름테지.》

《야- 나가보라요, 말만 들어가지곤 절대로 알수 없어요. 우린 오늘 자동차 상하차를 하느라구 광복거리 끝까지 가보았어요. 얼마나 먼지, 아마 건설자들중에도 끝까지 가본 사람이 얼마 없을거예요. 참... 거기엔 학생소년공전을 짓는대요. 그런데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있대요. 정말 이나요?》

《...》

《건설자들은 설계를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구 책임자들을 막 못살게 굴어요. ...어마나, 이게 학생소년공전이나요?》

딸애는 어느사이 형성안우에 씌여있는 글자를 읽어보고는 책상앞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생겼나요?》

하는 어조는 실망에 찬듯이 들렸다.

림의건은 책상우의 도면을 거두어 둘둘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이건 아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하나요?》

《이젠 자거라, 피곤할텐데.》

《전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면서도 딸애의 눈에는 벌써 잠이 실리기 시작하고있었다.

세면장에서 물소리가 찰박찰박 들리더니 방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 발자국소리조차 잠에 취한듯이 고르롭지 못했다. 미구에 조용해졌다.

허나 림의건은 그냥 서있었다. 시간은 자꾸만 가고있다. 일이 뜻대로 진척이 없을 때 시간은 마치 총알처럼 날아가는것 같다. 이렇게 가는 시간은 인간과는 동떨어져가는것이다. 인간의 시간은 해놓은 일이 척도로 되어야 한다. 그러고보면 림의건의 시간은 아직 형성안을 시작하던 때에서 조금도 흘러가지 못한셈이다. 건설자들은 이미 광복거리의 광활한 구간에서 새라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있었으나 림의건은 아직 광복거리에 착공의 삽을 박기전 몇달전의 그 시간에 머물러있는것과 다름없었다. ...

## 2

방안에는 어둠이 깃들었으나 림의건은 불결 생 각조차 하지 않고 창가에 서있었다. 하여 가로등불 빛이 흐르는 거리는 더 밝고 선명하게 내려다보였다.

《우리 철이 용쿠나, 자 또 한걸음...》

창말의 길에서 한 젊은 녀인이 아이의 손목을 잡고 걸음마를 떼주고있다.

완전무장한 겨울옷차림으로 하여 공처럼 동그 래진 아이는 손목만 놓아주면 걷는것보다 몇배 더 빨리 굴러갈것 같다. 그래도 용케 굴러가지 않고 한 걸음 두걸음 걸어간다. 물론 아이는 겨우 서있을뿐 이고 걸음을 옮기게 해주는것은 어머니의 손길이다. 그러나 아이가 걸음을 옮기자 녀인은 기쁨에 넘쳐 앞서가는 사나이에게 말한다.

《철이 아버지, 철이가 걸어요, 좀 봐주라요.》

그러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발을 옮겨놓는것 을 뻔히 보면서도 사나이는 기쁨에 넘쳐 말한다.

《어이쿠, 철이가 정말 걷누만, 용한데 !》

그는 아들의 《영웅적 첫 위훈》에 칭찬할 말이 모자라는듯 덩석 안아 쳐들고 걸어간다.

아마도 인간의 첫걸음이란 저렇게 시작되는것 이리라...

창문말의 정류소에서는 사람들이 뺑스를 기다리고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신문을 읽는 사람,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연신 시계를 보는 사람, 뺑스가 울쪽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사람...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류달리 길어보이는 법이다.

드디어 뺑스가 나타났고 정류소에 와서 멎었다. 정류소에 서있던 사람들은 뺑스문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운전사가 머리를 내밀고 소리친다.

《광복거리 건설장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 주춤하는듯했으나 곧 앞을 다투어 오르기 시작한다. 운전사는 다시 소리친다.

《광복거리 건설장으로 갈 손님들만 타라지 않습 니까?... 아주머니 ! 말하는게 들리지 않소?》

그는 중간에 끼여 부득부득 오르는 녀인에게 소리친다. 그러나 녀인은 그냥 차에 오르며 대답한다.

《나도 광복거리로 가요.》

《광복거리? 주인님이 기다리지 않소?》

《물론 기다리죠, 그래서 이렇게 가잖나요?》

《무슨 소린지 원.》

《그렇게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인은 광복거리 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린다. 운전사도 껄껄 웃는다.

정류소에 있던 사람들은 죄다 탔다. 그중에는 광복거리 건설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광복거리 건설장 으로 간다는 말에 이제까지의 계획을 집어던지고 뺑스에 오른것이다. 참으로 광복거리 건설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있는것인가. 이것은 우리 당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구상하고 지휘하고계신다는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일것이다.

림의건은 저도 모르게 얼른 창가에서 물러섰다.

운전사가 금시 《아바인 왜 그러구있습니까.》 하고 소리칠것 같이 느껴졌다.

저들은 인제 웃고 떠들며 광복거리 건설장으로 갈것이고 충성의 지원전투가 끝나면 기쁨과 만족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것이다. 그들에게는 오늘과 래일이 명백하다. 오늘은 오늘의 만족과 기쁨이, 래일은 래일의 만족과 기쁨이...

허나 림의건에게는 일주일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었다. 아니 그는 뒤걸음치고있었다. 남들이 전진할 때 담보하면 그것은 뒤걸음질로밖에 될수 없다.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그는 설계실에서 밤을 새웠고 낮과 밤이 언제 바뀌는지도 몰랐다. 얼마나 많은 집을 그려보았던가. 얼마나 무수한 선을 그어 보았던가.

그러나 그 모든 선들은 종시 생명을 지니지 못했고 그어지는 순간부터 종이장우에서 존재를 마칠 운명을 지니고있었다. 차라리 머리속에서부터 이미 죽은선이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 죽은 선들로 가득찬 종이장들앞에 림의건은 앉아있었다.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고있었다.

한초한초가 래일을 맞지 못하고 흘러가버리는것으로 하여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방금전에 찾아왔던 딸과의 이야기가 다시금 떠올랐다.

딸애는 한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식사를 가지고 왔다.

《아버지, 우리 공장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전화를?》

딸의 눈에 어린 간절한 빛이 림의건을 놀라게 했다.

《예, 우리 공장 당비서동지한테 직접 말이에요.》

림의건은 더욱 놀랐다. 잠시후에야 그는 물었다.

《무슨 전화를 하라는거냐?》

《절 광복거리 건설장에 아주 내보내주라고 말이에요.》

《건설장에?》

《예, 광복거리 건설장에 나가겠다고 제일 먼저 제기했는데 글썽 저보다 후에 제기한 사람들은 내보내면서도 전 안내보내잖았어요? 다음 차례를 기다리나요?》

딸은 어느사이 아버지의 옆에 와서 기대여섰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을 안고 불을 비비며 속살거릴 때처럼 몸을 흔들며 소곤거렸다.

《이렇게 말해달라요. 우리 딸은(나말이에요.)집에서 너무 고이 자라서 좀 단련시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온실에서 자라난 꽃은 후에 쓸모없다고... 아무말이나 다 해도 돼요. 그저 내보내게만 해주세요, 예?》

《허-》

림의건은 웃고말았다. 광복거리 건설장에 나갈수만 있다면 어떤 창피라도 다 감수하겠다는 그 생각이 가슴을 울렸다.

《전화를 걸어주죠, 아버지?》

림의건은 머리를 흔들었다.

《광복거리 건설장은 연약한 정신을 단련시키는 데가 아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광복거리건설자는 조직에서 추천해보내는 사람만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 생각에도 기다리는게 좋을것 같구나. 조직에서 추천해줄 때까지.》

《아버진 정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다간 광복거리 건설이 다 끝날거예요.》

《허허.》

《정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쪽-쪽- 올라가는지 알아요? 놀라울 지경이에요!》

이것이 딸과의 이야기였었다....

《그러다간 광복거리 건설이 끝날거예요!》

림의건은 건설을 잘 알고있었다. 그 어떤 건설에도 공정을 뛰어넘는 기적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사람이 아무리 조속해도 나이를 먹어야 어른이 되는것처럼 건설도 일정한 시간을 거쳐야 한다. 얼마나 빨리 거치는가에 차이가 있을뿐 단계를 들 초월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때는 딸의 말이 그림직한 말로 생각되었다. 그가 형성안을 만드는 사이 광복거리 건설이 끝날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까닭없이 어느날 뺨스차창으로 내다본 광경이 떠올랐다. 한 청년이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아니면 급히 만나야 할 사람이 뺨스에 탔는지 갓 떠난 뺨스를 맹렬한 속도로 따라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뺨스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청년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창으로 내다보는 림의건에게는 청년이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달려가고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의 두팔과 두손은 맹렬한 속도로 움직이고있었으나 뺨스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그는 마치 맹렬한 속도로 뒤걸음질치고있는듯이 보였다. 그는 사실 뺨스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있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명백한 뒤걸음질이었다....

건설자들의 눈으로 볼 때 림의건 역시 그 청년처럼 보일것이 틀림없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놀라울 지경이에요!》

눈부신 광복거리 건설속도를 두고 온 나라가 웃으며 기뻐할 때 림의건은 도리어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있었다.

때로는 이 고통스런 상태에서 벗어쳐나오려고 서둘러 책상에 마주앉아 이런 집, 저런 집을 마구 그려보기도 했다. 그러느라면 그 어떤 기발하고 훌륭한 착상이 불쑥 떠오르거나 앓을가 하는 기대에 서었다. 그러나 창작이란 결코 그런 소경문고리잡는격의 우연이 아니어서 종당에는 쓰거운 환멸로 끝나버리곤했다.

딸이 왔다간 이밤도 그렇게 흘러가고말리라는 것을 림의건은 예측했다. 더는 자신에게서 자그마한 환상도 안개처럼 희미한 정서도 느낄수 없었다. 모든것은 고갈되어버렸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자기의 일생이 끝난듯한 절망을 느꼈다.

《안되겠구나! 더는 안되겠구나!》

모태김의 하루가 끝날 때 울리던 그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지중 두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머리속에서 울리고있었다. 귀를 막으니 그 목소리는 독안에 대고 친 소리처럼 두개골 안벽 이쪽저쪽에 부딪쳐 수심배로 더 크게 공명되어 울리는듯했다.

《안되겠구나! 더는 안되겠구나!》

갑자기 그는 무엇엔지 놀래여 귀에서 손을 뗐다. 무엇이 자기를 놀래웠는지 알수 없었다. 다음 순간에야 예리하게 울리는 전화종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그를 질식과도 같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한 것이었다.

전화종소리는 예리하고 길게 강렬한 요구를 담고 울리고있었다. 그는 천천히 전화기앞으로 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설계사업소입니다. 예, 림의건입니다.》

다음순간 그는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움켜쥐며 부르짖었다.

《예? 뭐라구요?》

그러나 수화구에서는 이미 말소리가 사라지고 전류흐르는 소리만 울리고있었다.

그러나 교환수의 뚜렷뚜렷한 목소리는 귀에서 현실같지 않은 말을 되뇌이며 계속 울리는듯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다. 혹시 교환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형성안을 언제 보아주시겠다고 했다는것을 알려준것이나 아닐까. 그이께서 형성안이 어떻게 되였는가고, 되기만 하면 인차 보아주시겠다고 하신것이 사흘전이었었다.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전달한 그 말씀을 림의건은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다.) 아니, 교환수는 정확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림의건선생을 찾으십니다.》 하고 말했었다.

그는 옷때무시를 바로잡으며 무의식중에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침과 분침이 꿈속에서처럼 흐릿하게 보여 시간을 알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방에 불을 켜지 않은채 앉아있었음을 깨달았다. 방안은 거리의 불빛이 반사되어 러명이 밝아올 때와 같은 어스름한 빛으로 차있었다.

순간 수화구에서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나왔다.

《림의건선생입니까? 김정일입니다.》

림의건은 송수화기를 움켜쥔채 전화기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왜 아직 퇴근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된다고 그렇게 불도 켜지 않은 방에 앉아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림의건은 부지중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문을 바라보았다. 마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방안에 들어와계시는듯했고 아니면 문가에서 미소를 지으시며 근심스런 시선으로 어두운 방안을 굽어보고계시는듯했다.

《방금전에 그곳을 지나오면서 보니 림선생의 방에 불이 켜져있지 않아서 들리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문득 림선생이 불켜 생각도 잊고 방안에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들었습시다.》

그이께서는 자그마한 의혹도 없이 해주려는듯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지도자동지!》

《그래서는 안됩니다. 수도의 거리를 걸어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래야 일이 잘됩니다. 우리 나라의 창작가는 시대의 숨결을 알고 그 숨결로 호흡해야 합니다.》

림선생, 우리야 상아탑속에서 헤매는 지상주의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인민을 위한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와 시대의 숨결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바라는것, 요구하는것을 창조해낼수 없습니다.》

림의건은 다시금 항상 줄달음치는 시간을 주름잡으시는듯한 그이의 발걸음소리를 생각했다. 바로 이 시각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느 공장, 어느 농장을 돌아보시고 오신 참일수도 있고 중요한 회의를 지도하시려 떠날 시간일수도 있다. 혹시는 광복거리 건설장을 돌아보고 오신 길일는지도 모른다.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두세차례씩 광복거리 건설의 방향과 방도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전달 받을 때에야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또 광복거리를 돌아보시였구나!) 하고 놀랜적이 한두번이었던가...

《림선생,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학생소년궁전이 어떤 집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먼 옛날로 된 유적근거지 아이들에 대하여,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전후에 세운 장대재의 학생소년궁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이께서는 끝없이 넓고 깊은 사색의 바다를 헤쳐가고계시였다. 때때로 짧은 사이를 두시는것은 림의건이 그 사색의 바다에 들어서게 하려는 기다림처럼 느껴졌다.

《생각해보십시오.》

림의건은 자신의 주위에서 출렁거리는 사색의 바다를 느끼는듯했다.

그 바다는 끝없이 넓었다. 바다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에 이르면 그토록 찾던 학생소년궁전을 보게 될것이였다. 허나 그 끝은 너무도 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보고계시는 한끝이었으나 림의건에게는 너무도 멀었고 가당기에 힘겨운 기슭이였다. 허나 기어이 가닿아야 할 기슭이였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조금만이라도 더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림선생은 아이들의 설맞이공연을 본적이 있습니까?》

《?!》

사색의 바다는 멀리로 물러갔다. 림의건은 미처 대답을 못했다.

설맞이공연, 그것은 또하나의 아득한 기슭으로 설체형성안과는 인연이 없는듯 느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의혹을 느끼신듯 가볍게 웃으시였다.

《물론 텔레비죤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번 보았을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보는것과는 다릅니다.

래일저녁 평양체육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꼭 보도록 하십시오. 이해의 마지막날인데 머리로 쉬우는것 꼭 보도록 하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림의건은 목이 짝 메여올랐다.

참으로 그이의 사색의 시작은 어데며 끝은 어데 일가. 광복거리 건설이 아무리 거창하다 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망한 사업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것이라. 그리고 림의건이 안고있는 학생소년궁전은 그 빙산에 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것이다. 그런데 이 시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하나의 점을 눈여겨보시며 그속에 비친 그들과 고민을 헤아려주시었고 끝없이 넓은 사색의 바다와 함께 뜨거운 빛을 주신것이였다. ...

깊은 감동속에 송수화기를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림의건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 시간에 한생의 모든 시간이 집약되어있었던듯했고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던듯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시계를 쳐다본 그는 그사이 시계가 멎어있었던듯이 생각되였다.

불과 5분밖에 지나지 않았던것이다. 시계는 힘차게 재깍거리고있었다. 과연 그 5분은 어떤 5분이었던가 !

### 3

림의건은 관람석에 앉아있었다.

하나 그는 자신이 관람석이 아니라 무대복판에 앉아있는듯한 느낌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토록 무대는 넓었고 다양한 빛으로 넘쳐있었다. 관람석은 또한 얼마나 넓은지 실내에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천정을 쳐다보고서야 하늘이 아닌데에 일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한눈으로 굽어보기에는 너무도 넓고 아름답다.

온 체육관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될 시각을 기다리며 설레이고있었다. 말그대로 술래대는 바다와도 같았다.

어데선지 모르게 울려오는 음악이 림의건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뎡금소리 울려라  
...

무대와 장내를 장식한 수많은 꽃송이들, 그것은 하나하나가 활짝 웃고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연상시켰다.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림의건의 귀전에서는 지난밤에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수령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림의건의 귀전에서는 어느덧 노래소리와 더불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음성이 현실처럼 울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찬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그이의 말씀을 현실처럼 재현시켜주는것인지 아니면 그이의 말씀이 노래를 불러오고있는것인지 ... 그는 전화를 받던 그 시간속으로 잠겨들어가고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방안에 들어와계시는듯 느껴지던 그 시간, 그 공간, 그 대기가 그를 서서히 감싸안았다.

《림선생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유적인것으로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시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왜 수령님을 아버지원수님이라 부르겠습니까? 이번에 세우는 학생소년궁전은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안겨주는 또하나의 선물입니다. 이번의 학생소년궁전은 단순한 하나의 집이 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한 수령님의 바다같은 사랑,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이들의 심정이 반영된 그런 집으로 되여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시간과 새해를 맞는 첫 시간을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어린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수령님과 어린이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마치 그이께서는 눈앞에 그 학생소년궁전을 보고계시는듯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환상의 나래를 더 펼치십시오, 그러면 림선생에게도 보일것입니다.》 하시는듯했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고계시는 그 집은 어떤 집일가. 하나 림의건의 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이께서 말씀을 끊으계신 그동안에 류달리 높이 울리던 시계소리를 림의건은 기억하고있었다. 그 시계소리는 마치 그 짧은 시간속에서 위대한 력사가 창조되고있음을 알리는듯 힘차고 고르롭게 울려했었다. ...

《우리는 건축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인이상에는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림선생이 이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우리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모든 인민이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 시대가 반영되여야 합니다. ...》

수령님과 인민... 수령님과 어린이들...

림의건의 눈앞에는 여러곳에서 보아온 한쪽의 그림이 떠올랐다.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을 형상한 그림이였다.

공원의 수수한 나무의자에 수령님께서 앉아계신다. 의자등받이에 기대앉으시여 미소를 짓고계신다. 어린이들이 수령님의 옆에 빙 둘러서있다. 수령님의 모자는 세발자전거를 탄 어린애의 머리에 씌여져있다. 한 아이는 수령님의 무릎으로 기어오르고있다. 장난감자동차를 손에 끌고 수령님앞에 서있는 어린이...

한없이 따사로운 봄날의 공원이자. 봄날,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미소에서 시작되고있다.

수령님과 어린이들... 수령님과 어린이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음성이 다시금 귀전에 울린다.

《생각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수령님께서서는 아마 공원을 산책하고계셨으리라. 나라일을 두고 세계혁명을 두고 사색을 쌓으시며 천천히 걷고계시었으리라.

혹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났던 한 노동자를 회상하고계셨을지도 모른다. 허나 설혹 그이께서 한 노동자를 생각하고계셨다고 해도 그것은 나라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잇닿아있는것이였으리라. 그이의 사색속에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거대한 역사적사변과 하나의 시대를 마련하는 신비한 불꽃으로,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는것이다.

깊이도 넓이도 헤아릴수 없는 사색의 바다를 그이께서는 걷고계시었으리라.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에 1년, 10년, 때로는 한세기를 엿어보시며 걷고계시었으리라.

그 무엇도 그이의 사색을 깨뜨릴수는 없었으리라. 공원의 나무들도 숙연한 침묵속에서 그이의 사색을 지키며 따라섰으리라.

그이께서는 의자에 앉으시였을것이다. 수없이 떠오른 사색을 정리하시려고...

그이께서 앉아계시는곳은 불법의 계선이었으리라.

온 나라 온 우주를 감싸안은 사색이 아니고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는 그 계선을 넘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 계선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아버지원수님이시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을 먼지투성이의 장난꾸러기들, 그들에게는 불법의 계선이란 없었다. 그들은 나라의 왕들이었다.

공원에 울려했을 《아- !》하는 환성...

순간 온 장내에 터져오르는 우렁찬 박소리와 《만세》합성에 림의건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뛰쳐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관람석에 들어서고계시었다. 무대와 관람석을 한눈에 굽어보시는 빛나는 안광, 온 장내를 눈부신 빛으로 충만시키는듯한 환한 미소...

언제 어디 가나 단 하루도 뵈지 않은적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초상화에서, 영화에서, 텔레비존에서 그리고 방금전의 회상속에서도 뵈웠었다. 이제는 자기자신의 모습보다도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진 모습이였다. 허나 이 시각 직접 뵈옵는 수령님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어서시는 순간 림의건은 드넓은 체육관이 그이의 모습으로 충만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분께서 들어서심으로 하여 너무도 넓어 실내라는 느낌이 들지 않던 체육관이 마침내 하나의 집, 하나의 방으로 느껴지는것이였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이 줄수 있는 느낌이었다.

림의건은 건축가였다, 실체가였다. 그는 어떤 대상이나 실체와 시각적인 크기에서는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그대로 하나의 세계였다. 그 아무리 넓은 세계도 충만시킬수 있는 세계였다. 그리고 하도 다양하고 다채로와 지나치게 넓어보이는 세계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해서일가.

드디어 막이 올랐다. 그런데 그리도 넓어보이던 무대가 이때는 넓어보이지 않았다. 무대에 꼭 차서 노래부르는 아이들의 얼굴도 많아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모두 하나의 얼굴로 보였다. 아무리 얼굴이 더 많아져도 그렇게 보이리라는것을 림의건은 느꼈다. 왜? 무엇때문에? 어찌하여? 아이들의 얼굴에 한결같이 떠있는 행복의 미소때문일가. 기쁨의 눈물로 하나같이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들 때문일가. 행복과 감격, 기쁨으로 하나같이 떨리는 노래소리때문일가. 얼굴이 천으로, 만으로 되어도 하나로 보이리라는것을 림의건은 깨달았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당의 품, 수령님의 품, 바로 이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품속에 안겨자라는 어린이들... 어찌 그뿐이라. 드넓은 관람석도 크나큰 무대도 모두 수령님의 품속에 있었다. 그 품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고있기에 수령님의 모습은 그 어떤 세계이든 충만시키는듯 느껴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아버지의 품, 하늘보다 더 넓은 품.

마침내 림의건의 눈앞에는 우렁이 떠올랐다. 이 땅위에 솟아오른 무수한 건물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을 따사로이 안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품을 형상한 기념비적건물들이 은빛지붕과 눈부신 창문들을 빛내이며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를 펼치였다. 그 세계에는 평양산원이 우뚝 솟아있으며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과 유치원, 탁아소들이 땅이 비좁도록 들어서있는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품 ! 바로 이것이였구나~)

림의건은 그 품을 보고있었다. 온 세계라도 안을수 있는 크나큰 그 품을 보고있었다.

《수령님과 어린이들...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수령님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 ...

어느덧 눈물로 흐려진 림의건의 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두팔을 활짝 펼친 어린이들을, 이 나라 인민들을, 온 겨레를 부르는 우주보다도 넓은 품으로 보였다. 온 나라, 온 겨레가 안겨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가 있다. 주체시대가 !

우렁찬 박수소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어린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계시었다.

순간 림의건은 어찌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설맞이공연을 보라고 하시였는지를 깨달았다.

그이께서는 림의건에게 바로 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넓고넓은 사색의 바다를 거쳐 《품》을 보고계시였고 그 바다를 헤치기 힘겨워하는 림의건을 단숨에 이 기슭으로 이끌어주신것이였다.

눈물어린 림의건의 눈에는 아이들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보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처럼 보였다.

바로 그자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림의건을 지켜보고계시는듯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림의건의 머리속에서는 랑쪽팔을 활짝 펼친 반원형의 웅장한 집, 학생소년궁전의 새로운 형성안《품》이 우렁이 그려지고있었다...

## 4

5월이였다. 해빛은 반원형의 학생소년궁전창문마다에서 빛나고있었고 《춤추는 분수》의 수천수만물방울에서도 불꽃처럼 반짝거리고있었다.

그 해빛아래 서있는 림의건의 가슴은 세찬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고있었다.

방금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함께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생소년궁전의 완공테프를 끊으셨던것이였다.

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아주 멋있습니다. 설계도 잘하고 짓기도 잘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학생소년궁전을 감회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시면서 말씀드렸다.

《학생소년궁전형성도안을 만들 때 설계가동무가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수령님의 품이라는 뜻에서 형성도안의 이름을 〈품〉이라고 지었습니다.》

《품이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학생소년궁전을 다시한번 둘러보시였고 미소를 지으시였다.

《뜻이 있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품〉이라고 할만합니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하는 노래도 있는데 정말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더니 림의건에게 미소를 보내시고나서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이 학생소년궁전을 착상하여 형성도안을 완성한 설계가동무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이런 건축물을 착상하여 설계한다는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설계가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순간 림의건은 목이 짝 메여올랐다.

(아닙니다. 수령님! 아닙니다! 이 학생소년궁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설계하신것입니다. 저는 다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선을 그렸을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가 아니시였다라면 이 궁전은 《품》으로 완성될수 없었을것입니다!)

그렇다, 그이의 가르치심이 아니였다라면 이 궁전은 《품》으로 완성될수 없었을것이다.

새로운 형성안을 보아주시던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떠오른다...

넓은 방안은 눈부시도록 밝았다. 어느 구석에서도 그들을 찾아볼수 없을만큼 온통 밝은 빛으로 가득차있었다.

림의건은 그 빛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해빛인지, 천정에서 비치는 형광등불빛인지... 그는 방금전까지는 방안이 이토록 밝다는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저 보통정도로 밝은 방이였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온 방안이 빛으로 넘쳐 마치 방을 이루고있는 네벽이며 천정, 바닥, 그 모든것이 빛을 뿜는것만 같았다.

《형성안이 괜찮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시한번 되뇌이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자 방안은 더한층 밝아지는듯했다. 이제는 벽과 천정만이 아니라 림의건과 옆에 서있는 모든 설계가들의 몸에서도 빛이 발산되고있는듯했다. 가장 밝은 빛속에 서면 어떤 물체든 빛을 가지는것인지도 모른다. 달이나 행성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것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미소는 그토록 밝았고 그 밝은 미소는 눈부신 빛으로 되어 방안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얼굴도 빛나게 해주었다.

《형성안 〈품〉이 괜찮습니다. 무게있게 잘되었습니다. 특색이 있고 궁전맛이 납니다.》

하시며 그이께서는 림의건을 돌아보시였다.

《이번에 림선생이 수고했습니다.》

《!》

림의건은 목으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그 뜨거운것은 온몸으로 퍼져갔고 두눈으로도 피여올랐다.

(저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형성안은 지도자동지께서 주신것입니다. 저는 다만 종이에 옮겼을뿐입니다.)

그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아니였다라면 《품》은 태어나지 못했을것이다. 그밤 아이들의 설맞이공연장으로 이끌어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이 아니였다라면 그는 아직도 여섯달전의 시간속에서 몸부림치고있었을것이며 창작가로서의 조락기에 들어섰을것이다!...

《형성안 〈품〉이 괜찮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시 되뇌이시며 미소를 띤 시선으로 형성안을 보시었다.

림의건의 가슴은 뛴뛴했다. 오늘에야 드디어 그이께 적으나마 기쁨을 드리게 된 것이다. 그이의 미소와 함께 형성안 《품》은 자기의 개성을 더한층 뚜렷이 나타내며 때 부문이 약동하는 생명을 띠는 듯했다. 량쪽으로 팔을 활짝 펼친 반원형의 건물, 수직선을 강조하면서 전면유리로 장식되어 시원하면서도 툄동감이 느껴지게 한 건물정면, 무한한 미래를 약속하는듯 활짝 열려진 공간... 그앞에 서면 어린이들은 자기들을 안아줄 넓은 품을 느낄 것이며 그 품에 의지하여 돌아서면 먼 우주공간까지 끝간데 없이 펼쳐진 창창한 미래를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품》이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이었다!...

《유리를 많이 넣어 시원하게 한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에 맞을것입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림의건은 부지중 긴장했다. 무슨 부족점이 있을까. 건물의 량쪽 팔이 너무 길게 처리된것이 아닐가. 지붕처리하는? 계단처리하는?...

《유리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손으로 형성안을 가리키시었다.

《난방은 어떻게 보장하려고 합니까? 여름에는 일없겠지만 겨울에는 추울수 있습니다. 궁전에서는 아이들이 연습할 때나 공연할 때에 짧은 치마와 짧은 바지를 입고 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온도를 충분히 보장해주며 아이들이 소조활동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아무런 지장도 없게 해주어야 합니다.》

《...》

림의건은 자책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집의 형태적미에 대해서만 생각했을뿐 그 집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누려갈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집이란 보기 위한것이 아니라 살며 리용하기 위한것이다.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것, 이 집의 특수한 주인들에 대하여 망각한것이었다. 주인은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는것을!

《그리고 평면설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빈공간이 많은데 그곳들에는 소조실이나 연습실을 배치할수 있을것입니다. 큰 집인것만큼 공허한 감을 줄수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후에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 생각에는 전면을 가창문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시원하고 안에서는 온도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겨울에 유리에 물방울이 생기는 로점현상도 방

지할수 있고 여름에 지나치게 더워지는 일도 없을것입니다.》

《!》

겨울에는 춥지 않게, 여름에는 덥지 않게!

림의건은 미소하고있는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아, 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면 그것이 무슨 참다운 품이랴.

위대한 수령님의 품, 우리 당의 품이 어떤 품인가에 대하여 그이께서는 말씀하고계시는듯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우리 당의 품은 명실공히 친어버이품이라고!

친어버이의 품, 언제 달려가도 따듯이 안아줄 이 품이 자기들을 부르고있음을 알기에 아이들은 설맞이공연에서도 그토록 환성을 올리는것이며 찬비내리는 밤에 흙감탕속에서 일하면서도 건설자들은 그냥 웃고 노래부를수 있는것이다. 아, 그 품, 그런데 림의건은 걸보기에나 좋은 집을 만들어놓고 《품》이라는 이름을 붙인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형식만으로 이루어졌던 《품》을 내용적으로 충만된 《품》이 되게 하여주시었다.

우리의 건축예술에는 시대와 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벌써 가르쳐주시지 않았던가.

림의건은 깊은 자책속에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소를 짓고계시었다.

《형성안이 잘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자들이 설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학생소년궁전이였다.

학생소년궁전의 참다운 설계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설계가들이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학생소년궁전형성안을 만든 사람과 건축설계를 한 사람들, 구조설계를 한 사람들에게 영웅칭호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대견하신 눈빛으로 림의건쪽을 바라보시며 다시한번 되뇌이시었다.

《설계가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

영웅칭호! 림의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속에 만시름을 잊는듯 서계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보기만 했다. 과연 그이의 이끌어주심이 없었더라면 건축설계를 완성할수 있었을것인가.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에 이르기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하나하나의 선을 그어나간 림의건이였다. 첫 형

성안을 만들 때부터 어느 한걸음도 림의건 혼자서 걸은 걸음이 있었는가...

문득 림의건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첫걸음마를 떤 어린애가 떠올랐다.

자기의 손으로 이끌어 첫걸음을 떤해주고도 아이가 첫 걸음을 뗐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어머니, 더 큰 기쁨을 담아 아들을 하늘높이 가장 높은곳에 쳐들어올리던 아버지...

림의건 자신이 바로 그 어린애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에 이끌려 걸음마를 떤 어린애였다.

《품》, 이 품에서는 이제 이 나라의 수많은 어린 이들이 나라의 기둥으로, 미래의 주인으로 무력무력 자라날 것이다.

허나 이 《품》에서 제일 먼저 자라난것은 바로 림의건 자신이였다!

5월의 햇빛은 더 찬란하게 비치고있었다.

《춤추는 분수》에서 튕겨오른 물방울들은 칠색의 무지개를 그리며 눈부신 햇빛을 받아 수천수만의 작은 태양으로 태어나고있었다.

## 그날처럼 살고싶어

한정규

빼앗지 말아다오

나의 삼을

늪은이 땀을 흘린다고

등을 밀지 말아다오

돌격대의 젊은이들아

여기 전승기념탑에

락동강 옛전사 우리 모습 새겨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은정이 고마워 달려온

나는 어제날의 화선병사

전호를 파던 그날처럼

번개같이 삼질도 하고싶다오

포가를 메고 고지로 오르던 그때처럼

벽돌집 무거이

저 높은 발판으로 오르고싶다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아끼지 않았던 세대이기에

친애하는 그이의 마음속에는

불비를 헤치던 우리 모습이

그리도 소중한 간직되어있었는가

락동강전사들은

혁명의 2 세라 불러주시고

늪지 말아야 할 세대가 아껴주시더니

오늘은 또 불멸의 기념탑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한없는 은정이여!

그 은정 고마워

여기에 달려와 땀을 흘리는

이 마음을 알아다오

나의 아들같은

나의 손자같은

돌격대젊은이들아

우리의 앞날에 어찌

피의 락동강이 다시 없다고 하라

또다시 준엄한 그런 날이 온다면

친애하는 그이의 만세 높이

피끓던 그때처럼 싸워갈

나는 변함없는 화선병사

지난날에 세운 위훈의 모습으로만

여기 전승기념탑에 남고싶지 않다오

친애하는 그이의 전사로

피가 뛰고 심장이 뛰는

영원한 충신으로 살고싶거니

내 손에서

삼을 빼앗지 말아다오

내 마음의

진정을 빼앗지 말아다오

(1992. 12. 2)

가사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 외 1편

송찬웅

아 백두산아 말하여다오  
못잇을 력사의 그 새벽을 전하여다오

흰눈이 내리던 2월의 그 새벽  
백두산 밀림우에 큰별이 솟았네  
하늘땅 구만리에 노을은 불타고  
천지의 푸른 물도 설레며 반겨맞았네

백두의 해돋이로 밝은 빛 뿌리며  
주체의 넓은 길을 펼쳐주셨네  
2월의 노을비긴 조국땅 어디나  
그이의 큰뜻은 찬란히 꽃피어나네

아 이 강산아 말하여다오  
조선을 떨치신 그 위업 전하여다오

세월을 하루같이 지새우신 밤  
헤치신 새벽길은 얼마이신가

사랑의 자옥마다 꽃들은 피고  
산천도 사람들도 붉게 피여라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으로  
김정숙어머님의 그 사랑으로  
따사론 한품속에 우리를 안아  
주체의 혁명가로 키워주시네

아 하늘같이 영원한 사랑  
우리의 가슴속에 넘쳐흘러라

위대하신 수령님의 높은 뜻 이으신  
향도의 밝은 태양 누리에 빛나라  
우리 마음 붉게 핀 꽃바다우에  
천만년 무궁토록 높이 모시리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인민은 충성답아 영광을 드리네

## 오늘도 그날에 사네

젊으신 지도자를 처음 뵈웁던  
그날의 감격을 어이 잊으랴  
아, 세월이 갈수록 그리운 영상  
오늘도 마음속에 모시고 그날에 사네

한밤을 지새우신 새벽창가에  
불타던 노을이 눈에 어리네

아, 우리의 젊으신 그이를 모셔  
청춘의 열정으로 이 가슴 불타올랐네

우러러 목메이던 그날의 격정  
만세의 환호성 파도쳐오네  
아 세월이 갈수록 친근한 영상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그날에 살리

《작가는 당이 내놓은 문학예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소설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요소와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 통이 큰 구상

1978년 1월 초순 어느날이었다.

몇몇 문학부문 지도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일군들이 흥분된 심정을 안고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도착하자 한 일군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사업을 시작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헤아리시어 앞으로 몇해어간에 장중편소설 100편을 창작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고 전달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00편에 달하는 장중편소설의 주제와 제목, 작가의 이름까지 일일이 보고받으시고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아주시고 비준하여주신 작품창작목록을 돌려보며 솟구치는 걱정과 놀뛰는 심장을 억제할수 없었다.

장중편소설 100편!

얼마나 통이 큰 구상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마주하고 선듯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파도처럼 설레이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의 소설문학은 지난 시기 날로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있었다.

고질적으로 내려오면서 완고하게 굳어진 큰 형식의 소설창작에 대한 신비주의는 소설문학발전을 심히 저해하고있었다.

오랜 창작생활로 머리가 회였거나 《특출》한 창작적재능이 있는 작가들만이 장중편소설을 쓸수 있는것으로 공인되어있었다.

그러다보니 1년에 5~6편의 장중편소설만 나와도 대단히 큰 일을 해놓은것으로 떠드는것이 지난날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실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기치따라 문화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우리 나라 현실은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정서적수요에 맞게 소설문학창작에서도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더우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인 문학창작리론이 제시되고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게 되면서 작가들의 창작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시대의 명작으로 될 장중편소설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10년이상은 걸려야 하고 따라서 작가가 일생에 두세편의 장중편소설을 내놓으면 괜찮다고 하던 기성관념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새 세대 젊은 작가들이 대담하게 장중편소설창작에 달라붙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 100여편에 달하는 장중편소설의 주제와 내용, 줄거리들이 제기되게 되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이것을 어떻게 밀고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현실발전의 요구와 작가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을 하나의 거창한 창작운동으로 밀고나가실 통이 큰 구상을 펼쳐주시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소설문학이 새로운 혁명적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될 장엄한 선언이였다.

장중편소설 100편창작과제에는 일찌기 문학예술전반을 주체의 요구대로 발전시키실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영화부문에서 속도전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어 문학예술혁명의 돌고구를 열어놓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성과에 토대하시어 우리의 혁명문학 특히 소설문학에서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하시어 혁명적변혁을 가져오시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이 주체시대의 혁명작가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의해 장중편소설 100편창작목표를 내세우게 된 일군들과 작가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행복과 불타는 정열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뚜렷한 목표는 신임과 열정을 날기마련이다.

창작전투에 들어선 작가들은 기세충천하여 붓을 달렸다. 일찌기 볼수 없었던 창작속도가 태어나고있었다.

작가들의 높은 창작열의에 작품지도 및 창조체계를 따라세워야 하였다.

이 문제는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에 달라붙은 적지 않은 작가들이 아직 장중편소설을 써보지 못

한 신진작가들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작품지도와 편집 공정이 일원화되지 못한 사정으로 하여 작품 지도 및 창작에서 높은 속도를 창조할수 없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시고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8년 1월중순 어느날 우산창작작실을 거점으로 하여 장중편소설 창작전투를 집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미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작품심의 원칙에 맞게 장중편소설의 심의사업이 진행되도록 창작지도력량과 편집력량을 하나의 새로운 심의집단으로 무어주심으로써 심의체계를 일원화, 단일화하여주시었다.

그리고 이 조치들이 행정적인 지도와 당적지도로써 은을 낼수 있도록 전투참모부와 립시당조직을 무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신 제반 조치들은 창작지도력량과 편집력량을 분산시키고 작품지도와 편집공정을 복잡하게 하던 종래의 약점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와 작가들의 창작에서 전면적인 비약을 일으켜 단 몇해사이에 100편의 장중편소설을 창작할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립시조직형태로 무어진 심의체계의 생활력을 검증하시고 그 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창작과 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완전한 기구체계를 내오도록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전반적문학작품창작사업을 당앞에서 책임지는 국가행정기구로서 조선문학창작사를 내오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조선문학창작사의 창립,

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학창작사업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당에 의하여 장악지도되고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가장 합리적인 우월한 창작지도체계로 완성하여 우리 문학을 주체의 문학으로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오래동안 무르익혀 오신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1972년 5월 어느날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부문사업을 지도하는 한 일군에게 지금 장중편소설이 한해에 몇편정도 나오는가고 물으신적이 있었다.

그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4~5편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사회단체인 작가동맹이 작가들을 교양하고 문학운동을 전개할수 있지만 문학작품의 창작사업을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전면적인 창작지도기관으로서 소설창작사를 내오고 사회주의제도의 요구에 맞게 지도사업을 개선하여야 질적으로나 량적으로 인민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단체인 작가동맹안에 창작조직지도사업과 심의사업의 행정적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실을 잠정적으로 두게 하고 그 생활력을 다년간 검증하신데 기초하시어 장중편소설 100편창작과 함께 심의체계를 기구화해 주고 마침내는 독자적인 창작지도기관으로서 조선문학창작사를 내오도록 하여주시는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큰 휴양기지의 하나인 우산장휴양소를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의 전문창작실로 독매여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은혜로운 그 사랑, 그 은덕 속에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전투의 불길은 더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 가사

# 빛나라 향도의 자욱이여

김덕용

소나무 설레이는 장자봉 숲속에  
향도의 자욱은 찬란하여라  
오르며 높은 뜻 새기신 자욱  
충효의 높은 뜻 새기신 자욱이여

한자욱 옮겨도 수령님 생각  
한결을 걸어도 수령님 생각  
천리길 전선의 수령님 안녕을

조선의 행복으로 안으신 자욱이여  
한생을 걸어도 변함없이  
대를 이어 걸어도 이 자욱 따르리  
수령님 받드신 력사의 자욱  
조선을 빛내이신 영광의 자욱이여

아 인민은 길이길이 전하리  
장자봉의 빛나는 향도의 자욱이여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에 대하여

방연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저작 《주체문학론》은 력사의 새 시대인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적문학,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의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독창적이고도 심원한 해답을 주면서 전일적으로 체계화한것으로 하여 인류문예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새롭게 개척하고 그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고전적인 문예리론총서로 된다.

《주체문학론》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리론의 위대한 고전적총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문학예술활동과 문학예술창작을 이끄는 총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주는 주체의 문예관을 독창적이고도 완벽하게 밝혀준것과 깊이 관련된다.

《주체문학론》이 저작의 앞머리에서 밝혀준 주체의 문예관에 관한 사상은 저작에서 제기된 모든 리론을 관통하면서 전일적으로 작용하는 출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더없이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다한다.

##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의 제 1 장 제 1 절에서 주체의 문예관에 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고 체계정연하게 전일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과학적통찰력으로 력사의 새 시대는 새로운 문예관을 요구한다는 합법칙성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문예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며 그의 본질과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의 문예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에 대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식화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에 대한 독창적인 정식화는 가장 정당한 과학적인 정식화로 된다. 이 독창적인 정식화가 가장 정당한 과학적인 정식화로 되

는것은 그것이 우선 일반적으로 말하여 문예관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그 범주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되었기때문이다.

문예분야에서 문예관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이때까지 써왔다. 《부르조아문예관》이라든가 《로동계급의 문예관》, 《맑스-레닌주의문예관》이라든가 하는 술어를 써왔지만 일반적으로 문예관이란 범주를 어떻게 한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로동계급의 문예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선행한 로동계급의 고전가들이 정식화하여 밝힌적이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예사상 처음으로 문예관이라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범주를 문예관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맞게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여 밝히시였다.

문예관이라 할 때 그것은 문학예술의 어떤 부문, 어떤 형상요소에 국한되어 작용하는 개념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학예술을 전일적으로 보고 대하는 총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주는 범주이다. 따라서 문예관은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작품창작의 원칙과 방도, 작품의 사회적가치 등을 밝히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며 창작전과정에 기초적으로 전일적으로 관통되어 작용하면서 문학예술활동, 작품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그 전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원리로 된다.

이것은 문예관이라 하면 그것이 문학예술활동과 창작활동에서 작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으로 되는 세계관과 함께 같은 계열에 병렬하여 놓을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다한다는것을 말한다.

문예관은 세계를 통일적으로 반영하는데 작용하면서도 사회적인식형태의 한분야를 이루는 문학예술부문에만, 문학예술활동과 문학예술창작활동 전반에만 작용하면서 주로 문학예술의 본성적특성과 본성적사명을 전일적으로 살리게 하는 가장 규정적인 요인이다. 세계관이 모든 과학전반에 전일적인 관점과 립장 그리고 방법론을 주는것이라면 문예관은 세계관을 구현한것이면서도 문학예술전반에 전일적인 관점과 립장 그리고 방법론을 주는 것이다.

문학예술활동과 작품창작활동에서 차지하는 이런 지위와 역할로 하여 문예관은 문예작품의 종자를 잡는데로부터 그것을 형상하는 창작의 전과정에 전일적으로 작용하며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또한 문예관의 이런 전일적이며 규정적인 지위와 역할로 하여 같은 시기의 같은 생활소재를 다루는 경우에

도 작가, 예술인들이 어떤 문예관을 지녔는가 하는데 따라 형상의 결과와 그 질이 달라진다.

레컨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농촌소재를 취급한 리기영의 장편소설 《고향》과 리광수의 장편소설 《흙》을 대비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고향》의 주인공은 고향을 한 지식인출신인 김희준이며 《흙》의 주인공은 《법》을 전공한 지식인출신인 허승이다. 김희준은 대학공부를 하고 벼슬을 한 것이 아니라 고향 원터마울에 돌아와 일제강점하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을 깨우쳐 지주와 마름을 반대하는 경제투쟁을 조직하며 농민들을 단결시켜 초보적인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농민들의 계급적각성과 단결, 계급투쟁을 고취하고 있다. 허승이도 살여울이라는 마을의 농민들속에 들어가지만 농민들의 가난하고 락후한 생활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빈궁과 무지와 몽매를 가시는 문맹퇴치와 위생사업을 벌리며 《법》적보호를 받도록 도와주는 등 계몽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개량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고향》은 일제통치하의 조선농촌의 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리었다면 《흙》은 같은 현실을 두고 비진실하게 외곡하여 그리었다. 이렇게 된 근본요인은 전자는 로동계급의 세계관과 문예관에 기초해서 자기가 준비된 것만큼 현실을 보고 그런데 있기때문이며 후자는 부르조아문예관과 《민족개조론》의 친일적이며 개량주의적이며 계몽주의적인 견지에서 현실을 보고 그리었기때문이다. 이것은 터득된 수준의 문예관이야말로 창작활동에서 작품의 가치여부와 성과여부, 질적차이를 보장하는 기초적이며 규정적인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예활동과 작품창작에서 문예관이 차지하는 이처럼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통찰하시고 그에 맞게 문예관의 범주를 정립하시었기때문에 주체의 문예관에 대한 정식화를 역시 문예관 일반의 범주가 가지는 내적범위와 원리적인 내용의 규정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정당하게 정식화하실 수 있으시었다.

주체의 문예관에 대한 독창적인 정식화가 가장 정당한 고전적정식화로 되는 것은 주체시대의 가장 정당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의 문예관을 사람중심의 문예관으로 그 본질을 규정하였기때문이다.

문예관은 일반적으로 세계관에 의하여 그 원리가 규정된다. 그러므로 문예관이 가장 선진적인 문예관이 되려면 가장 선진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그 원리가 규정되어야 한다.

주체시대의 가장 위대한 세계관은 주체사상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 원리가 밝혀져야 그것은 가장 선진적으로 발전된 로동계급문예관의 절정으로 된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중심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진

주체의 문예관도 사람중심으로 문학예술을 보고 대하는 문예관으로 된다.

사람중심의 문예관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문학예술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며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세운다는 것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대로 사람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 보며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를 그리며 사람, 인민대중을 위하여 문학예술활동, 창작활동을 벌리는 관점과 립장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견지에서 문학예술을 보고 대하는 관점, 립장이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사람중심의 문예관인 주체의 문예관이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문예관으로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것이 문예관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그 범주가 세워진 데 있을 뿐 아니라 사람중심의 문예관으로 되어야 문학예술의 본성 즉 본성적특성과 본성적사명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구현할 수 있기때문이라는 데 있다.

산 사람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이 있다. 주체의 인간학의 본성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살리자면 주체의 문예관의 경지에 서야 한다. 말하자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주성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혁명가를 현실 그대로의 생활 자체의 모습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야 주체의 문학예술의 본성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확고히 담보하는 관점과 립장을 주는 문예관으로 정립되어야 그것이 가장 정당하고 발전된 문예관으로 된다. 바로 사람중심의 문예관은 생활을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로 보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을 보고 그리는 문예관이므로 사람, 인민대중의 본보기인 자주적인 인간과 그의 생활을 가장 본질적으로 정당하고 진실하게 그리게 하는 관점과 립장을 준다. 사람중심의 문예관은 또한 사람,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개조자로 보고 내세우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을 보고 그리는 문예관이므로 사람,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로 보고 내세우는 관점과 립장을 준다. 사람중심의 문예관은 또한 모든 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을 보고 그리는 문예관이므로 문학예술로 하여금 인민대중에게 복무하게 하는 관점과 립장을 준다.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중심의 문예관인 그 본질로 하여 원리적으로 작용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문예관의 최고봉으로 가장 우월할 뿐 아니라 그 생활력에서 가장 위력하다는 것이 창작실천에서 남김없이 실증되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관은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물질중심의 문예관이다. 변증법적 및

력사적유물론에 기초하고있는 물질중심의 문예관은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조아 문예관의 허위성과 부당성, 반동성을 짓부시며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물질중심의 문예관은 사람을 사회의 물질적존재로,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역사를 물질적생산방식의 교체의 역사로,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문예관이므로 사람과 사회의 계급적성격과 사회계급적모순을 해결하는 혁명투쟁을 반영론의 견지에서 정당하고 진실하게 보고 그리는 관점과립장을 준다. 현실을 사회계급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 물질중심의 반영론의 관점과 립장으로 하여 물질중심의 문예관은 현실을 주관주의적으로 외곡하는 관념론적인 문예관을 극복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적원리에 기초하는 전환적인 견지로 전진하지 못함으로써 본질적인 약점과 허점을 드러내는 력사적제약성을 면치 못하였다. 이 력사적인 제약성으로 하여 물질중심의 문예관은 창작실천에서도 일련의 본질적인 제한성을 나타내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장편소설 《고향》을 대비하여 보면 사람중심의 문예관과 물질중심의 문예관의 생활력의 본질적인 차이를 심각하게 확인할수 있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의 농촌현실을 취급한 두 작품을 보면 전자는 일제에게 빼앗긴 자주성을 찾기 위한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항일무장투쟁으로 펼쳐보이면서 그속에서 무자각한 농촌녀성이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투사로 성장하는 성격발전을 아주 뜻깊고 진실하게 그려보이였다. 후자는 지식인 선각자의 인도하에 농민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지주의 앞잡이인 악질적인 마름을 반대하는 단합된 경제투쟁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려보이고있다. 그리하여 전자는 조선혁명의 본질과 자주적인 인간의 성격적면모의 본질을 현실 그대로의 발전과정에서 폭넓고 깊이 그림으로써 사람들,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주체로 교양하는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교과서로 자기의 커다란 위력을 떨치었을뿐 아니라 주체시대에 맞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후자는 혁명발전의 주도적인 흐름보다는 뒤진 낮은 단계의 계급투쟁과 빈농민들의 계급적각성과 계급적단합의식을 인간과 혁명의 자주적성격과 바탕과의 결합속에서 그리지 못함으로써 조선인민의 계급적성격과 계급투쟁을 극히 일면적으로 그 낮은 단계의 면모로 비껴낸 생활화폭으로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같은 시기의 현실을 그리면서도 문예관의 견지가 다른 질적차이로 하여 작품의 결실의 질적차이가 불가피하다는것을 말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을 밝혀주시는데 기초하여

그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체의 문예관의 특징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었다.

주체의 문예관은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며 문학예술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노동계급적성격을 체현하며 문학예술에서 민족적특성을 구현하는것을 자기의 공고한 본질적인 특징으로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과 특징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깊이 완벽하게 밝혀주시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이 그것을 폭넓고 깊이 체득하고 뚜렷이 살릴수 있게 되었다.

##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예사상,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과 특징을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었을뿐 아니라 주체의 문예관을 형성하고있는 내용을 또한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깊이 밝혀주시었다.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과 특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주체의 문예관을 이루고있는 내용이 밝혀지지 못하면 주체의 문예관을 전일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할수 없으며 문학예술활동과 작품창작활동에서 차지하는 문예관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며 구현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과 특징을 밝히는데 기초하여 주체의 문예관을 이루는 내용이 완벽하게 밝혀져야 주체의 문예관이 자기의 전일적인 면모를 갖추수 있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적으로 유감없이 펼칠수 있다.

주체의 문예관의 내용에서 근본핵으로 되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관점이 주체의 문예관의 내용에서 근본핵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문학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문예관의 근본문제로 되기때문이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 바로 문학예술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밝히는 기초이며 출발점이며 귀결점으로 작용하기때문이다.

문학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소여의 문예관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문학의 본성을 바로 규정하여야 문학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바로 규정할수 있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문학을 무엇으로 보는가,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보는것은 문학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견해에서 가장 높은 정당한 견해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문학의 본성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살리게 하는 견해로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문학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문학으로 되게 하는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력사의 새 시대인 자주시대, 주체시대와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은 문학앞에 인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혁명가를 현실생활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하고 깊이 그림으로써 인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 주체의 생활철학으로 될것을 요구한다. 시대와 인민, 혁명이 문학앞에 제기하는 이 요구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 주체의 생활철학으로 보는 주체적견해를 세움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보는 견해는 문학에 대한 가장 발전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견해로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보는 주체적인 견해를 주체의 문예관을 이루는 내용의 첫자리에 놓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예관을 정립하는데서도 그렇고 특수적으로 주체의 문예관을 정립하는데서도 그렇고 문학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그 본성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첫자리에 세우는것이 합법칙적이라는것을 말한다.

그러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문학으로 하여금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체의 문예관이란 무엇보다먼저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로 보고 작품에 내세우며 자주적인 인간의 본보기를 통하여 밝힘으로써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게 이끄는 기초적인 견해와 관점을 주며 견지하게 하는 문예관이라는것을 말한다.

주체의 문예관의 내용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아름다운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름다운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문예관은 문학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주어야 할뿐 아니라 미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주어야 한다.

문예관이 미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주어야 하는것은 문학과 예술이 바로 현실에 대한 미학적파악의 산물이고 그와 같은 특성으로 하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이 확고히 담보되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은 현실을 반영하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림에 있어서 미의 법칙에 맞게 그것을 반영하여야 자기의 독자적인 존재가치와 역할을 다하게 된다. 사람은 모든것을 자주적요구와 미의 법칙에 맞게 창조한다. 문학예술은 현실에 대한 미학적파악의 가장 집중적이고도 가장 높은 형태로 진행되는 창작활동의 산물이다.

문학예술의 형상은 미학정서적으로 창조되고 미학정서적인 견인력을 가지기에 인식교양적기능을 강요없이 자연스럽게 다하게 된다. 문예작품은 인간과 생활의 일반화되고 개성화된 현실그대로의 전형적인 모습을 통하여 어떤것이 아름답고 숭고하며 영웅적이고 비극적인것인가, 어떤것이 추악하고 저속하며 회극적인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밝혀낸다. 이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은 미학적리상에 비추어 현실생활을 미학정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을 가지게 되며 견인력과 감화력을 떨치게 된다.

그러면 주체의 문예관은 자기의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이루는 아름다운것에 대한, 미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을 어떻게 규정하고있는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예관은 아름다운것에 대하여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하여 그릴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문예관의 견지에서 볼 때 아름다운것이란 자주적인간의 생활과 투쟁이다.》**

이 독창적인 명제의 정당성과 진리성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생활에서 아름다운것과 미학적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사람마다 계급에 따라 다르다. 로동계급, 인민대중은 남을 착취해먹고 로동을 싫어하며 부화방탕하게 생활하는것을 추악한것으로 보지만 지주, 자본가들, 착취적인 기생충들은 아름다운것으로 본다.

그러면 자연과 사회에서의 아름다운것을 아름다운것으로 옳바르게 감수하고 구현하자면 누구의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하여야 하는것인가.

주체의 문예관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아름다운것을 보고 대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아름다운것을 보고 대하여 그린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으면서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것을 선택하여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연과 생활과 예술에서 아름다운것을 가르는 기준, 척도가 다름아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있다는것을 말한다.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서 아름다운것을 보고 그리는것이 자연과 사회의 아름다운것을 외곡함이 없

이 올바르게 감수하는 가장 정당한것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아름다운것을 식별하는 기준이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본성과 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자연과 생활에 대한 미학적과 악에서 이러저러한 감정과 정서, 미감을 불러일으키는것 가운데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의의를 가지며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것만을 아름다운것으로 혹은 고상한것으로, 또는 영웅적인것으로 혹은 낭만적인것으로 감수한다.

그러므로 주체의 문예관의 견지에서 볼 때 아름다운것이란 자주적인간의 생활과 투쟁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만큼 그것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자주적인 인간의 생활보다 더 아름다운것은 없다. 그리하여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인간을 그리든지 자주성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인간의 생활에서 아름다운것을 찾고 그것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물론 착취사회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정에는 가슴아픈 희생과 실패도 있을수 있고 참을수 없는 고통과 불행도 있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겪게 되는 불행과 고통, 실패와 희생을 헛된것으로, 순전히 비극적인것으로만 보고 그린다면 그러한 작품은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줄수 없게 되며 사람에게 미의 참다운 의미를 깨우쳐주지 못하게 될것은 더 말할것 없다. 문학예술은 웅당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우며 곡절많은 그들의 생활로정을 혁명적랑만에 넘친 보람찬 인생행로로 밝고 값높게 형상하여야 한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예술영화 《월미도》의 창작적성과만 상기하여도 이 정당성과 생활력을 알수 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주체의 문예관이란 창작활동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더없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아름다운것에 대한 주체적 견해와 관점을 주며 견지하게 하는 문예관이라는것을 말한다.

주체의 문예관의 내용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문예관은 문학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관점, 미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주어야 할뿐아니라 창작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주어야 한다.

문예관이 창작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주어야 하는것은 문예관이 바로 창작실천을 이끄는 전일적인 관점이며 립장이기때문이며 창작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 세우는것이 창작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초적인 근본요인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작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대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은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있다. 그 하나는 창작을 무엇으로 보는가, 즉 누구를 위한 무슨 사업으로 보는가, 창작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이 창작에 대한 관점과 태도형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문학예술의 본성적사명을 설정하고 다하게 하는 출발적인 고리로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작품을 창작하는것을 무의식적인 행위로 보며 작품을 쓰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것이 아니고 그자체를 위한것이라고 보는것은 창작에 대한 부르조아적인 견해이다. 이 견해는 창작을 착취계급을 위해 복무하게 만들기 위한 부르조아적계급성을 위선적으로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견해이다. 창작행위를 고상한 목적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행위로 보며 인민을 위하여, 그의 혁명위업에 복무하기 위하여 작품을 쓴다고 보는것은 창작에 대한 로동계급적견해이다. 이 견해는 숭고한 목적, 복무성, 사명감의 정당성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사회앞에 선포된다. 이것은 창작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창작의 목적, 복무성, 사명감에 관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창작을 무엇으로 보는것인가.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문학예술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과 그의 주체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더없이 숭고하고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보는것이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이며 관점이다.

이 견해와 관점은 사람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의 본성을 높이 발양시키게 하는 견해, 관점인것으로 하여 가장 정당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견해, 관점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견해와 관점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첫자리에 놓고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게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내세워주시므로써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목적, 복무성, 사명감에 있어서 자기발전의 최고절정에 올라서게 하시였다.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에서 또하나 중요한것은 창작의 주체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창작의 주체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창작의 주인을 누구로 보는가, 그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의 계시에 의해서 진행되는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주동적역할에 의해서 진행되는것인가. 전자는 창작에 대한 관념론적인 견해라면 후자는 창작에 대한 진보적인 견해이다.

그러면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창작의 주체를 누구로 보며 창작적성과의 근본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예관은 작가, 예술인을 창작의 주인으로 보고있으며 창작의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요인도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찾고있다.》**

창작의 주인은 사람, 인민대중이며 그의 전문적인 창작자인 작가, 예술인이다. 이것은 론의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창작가를 타고난 선천적인 선발된 존재로 보고 신비화하는 부르조아적견해가 얼마나 집요한것인가, 창작에서 목적의식적인 사상의식의 역할 대신 《잠재의식》의 역할을 떠들어대는 부르조아적인 견해가 얼마나 유해로운가, 이것을 상기한다면 창작의 주체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수 있다.

창작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창작가의 주인된 주동적역할에 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창작가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 인민대중과 그의 전문적인 창작자인 작가, 예술인이 사람의 자주적본성으로 하여 창작의 주인으로 되며 사람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사람의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에 귀결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창작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하며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창작사업을 대하는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 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임을 깊이 알고 그것을 열쇠로 틀어쥐고 창작활동을 벌리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두가지 측면으로 그 내용이 통일되어있는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가르치신 주체의 문예관은 창작을 단순한 직업으로가 아니라 혁명사업으로 보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애국자만이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며 관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일찌기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주체의 문예관의 개별적인 명제와 내용들을 이번 저작에서 집대성하고 발전풍부화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며 완벽하게 정식화하고 전개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문예관의 전일적

인 면모를 완성하시는 불멸의 획기적인 업적을 기록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체의 문예관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통일적인 의식을 가지고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주체의 인간학, 주체의 생활철학을 더욱 빛나게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문예활동의 위대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주체의 문예관의 내용을 밝혀주신데 기초하여 주체의 문예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도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문예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주체적 문예사상과 주체적문예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할데 대해서와 주체적문예활동방법의 본질과 요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사업하고 창작할데 대해서 그리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해서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력사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예관을 세워야 할 필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체의 문예관의 본질과 특징, 주체의 문예관을 이루는 내용 그리고 주체의 문예관을 세우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문예관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고 완벽하게 전일적인 사상리론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인류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에 관한 사상리론은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집대성되고 전일적으로 완성된 것으로써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주체적문학예술을 건설하며 창조하는 앞길을 휘황히 이끄는 위대한 기치로 된다.

주체의 문예관의 불멸의 의의, 위대성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도 않으며 부르조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문예조류의 침습을 막으며 자주시대와 인민과 그 혁명이 요구하는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과 예술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창조할수 있는 높은 안목과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준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자주시대의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보는 안목과 열정을 지니게 하는것으로 하여 부르조아자연주의예술, 순수예술, 형식주의예술을 적대시하고 짓부시며 주체의 인간학의 순결성과 원칙성을 지키며 온갖 도식주의를 범하지 않고 극복하는 투철한 자각과 높은 요구성을 발휘하게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자연과 사회, 문학예술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는 아름다운것을 비판복적으로 생동하게 구현할수 있게 하는 안목과 열정을 주는것으로 하여 미학적리상을 구현하는 높은 자각과 탐구정신을 떨치게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창작을 가장 신성한 혁명사업으로 간주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삶의 목

적으로 보는 안목과 열정, 창작의 주인된 의식성과 책임감을 주는것으로 하여 혁명적 창작기풍과 창조 정신을 발휘하게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문학 예술에 대한 인간중심의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 안목과 열정을 주는것으로 하여 문예활동과 창작활동에서 주체성의 원칙,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하는 원칙, 이색적인 사상, 문화적조류의 침습을 막는 원

칙을 지키게 하는 안목과 열정, 자각과 요구성을 발휘하게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문예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학습과 인간수양, 창작실천과 현실침투와 탐구를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답게 자신을 열렬한 주체형의 애국자, 공산주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며 만대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명작을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 너와 속삭이노라

서진명

언제부터이던가  
살뜰한 벗처럼  
정깊은 사람처럼  
흥금을 터놓고  
비료, 너와 말을 나눈것은

당의 부름 받들어  
더욱 넓어진 가슴에  
더욱 소중해진 비료  
너를 끌어안고  
속삭이노라  
조용히, 뜨거이

너를 더 많이 쏟아낼수만 있다면  
불타는 이 가슴의 열도로  
탑을 더 더욱혀주고싶고  
높뛰는 이 심장의 박동으로  
배관의 흐름 더 세차게 해주고픈 이 진정

길을 걸어도  
너때문에 바빠 걷고  
눈빛이 빛나도  
너때문에 별처럼 빛나고  
심장이 뛰어도  
너때문에 세차게 뛰거니  
어찌보면  
비료는 내 삶의 전부!

아이들을 밥상에 불러들이는  
안해의 정겨운 목소리  
거리와 마을에 넘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  
더 좋아질 래일의 꿈도  
너를 떠나 생각할수 없거니  
어찌보면  
비료는 우리의 생명!

아 순간도 잊고서는  
떨수 없는 이 심장  
잠시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나의 생 나의 온 넋을 바쳐  
폭포처럼 안아내는 나의 기쁨아!

진정 너를 얼마나 쏟아내면  
온 나라 농장벌을 걸굴수 있고  
논밭에 커가는 곡식포기마다  
알찬 열매를 주렁지게 할수 있느냐

내 나라 벌이 넓어  
벌에 안고 갈 풍년기쁨이 커  
뛰며 불타는 이 심장의 말로  
비료, 너와 속삭이노라  
사랑에 겨워  
진정에 넘쳐...







# 명제해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옳게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이다.

주체의 인간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들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면 자주적인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하여 옳은 미학적해명을 주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것이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존재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어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참다운 모습을 볼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바로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그들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립장과 관점에서 모든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작품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보는것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생활과 인간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주체의 인생관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가장 보람있는 삶으로 본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리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인생관을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로 삼으시고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고계신다.

오늘 사회주의위업이 제국주의자들과 배신자들에게 의하여 일시 시련을 겪고있지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의 힘으로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리념의 승리이며 현명한 정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정도에 의하여 창작되고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을 통하여 깊이있게 해명되고 있다. 다부작예술영화에서는 주인공 최현덕, 윤상민, 차흥기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와 자본주의제도의 진면모와 반동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면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비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 어떤 물질적관계보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립장에서 분석평가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도 인민대중이고 가장 힘있는 존재도 인민대중이라는 사상이 힘있게 울려나와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사상적내용에서 뿐만아니라 예술적형식을 탐구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한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이 작품평가의 기본척도이다. 인민대중이 좋다고 평가하는 작품이라야 잘된 작품이며 인민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작품은 잘된 작품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식의 모든 면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투철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나가야 할것이다.

## 주체의 혁명관, 민족관 확립에 이바지하는 빛나는 화폭

백진향

총서 《불멸의 향도》 중의 장편소설 《푸른 하늘》(권정웅)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는 우리 식 소설문학의 또하나의 자랑찬 성과작이다.

소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절박한 역사적과제인 민족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튼튼히 세워주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상에술적성과가 있다고 본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문학에서 형상하여야 할 중요한 인간문제의 하나이다. 인간의 자주성이 민족의 자주성을 떠나 실현될수 없고 애국과 애족을 떠나 자주적인간의 참다운 삶을 말할수 없는것이 그 초보적인 리유로 될것이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특히 자주시대 문학의 근본문제로 되고있다. 지난날 인류문예사는 모성애와 사랑, 선과 악 등 개인의 운명문제로부터 계급적각각과 량심과 같은 계급해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데까지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폭넓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 모든 인간문제가 민족문제의 한부분이며 민족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떠나 참답게 실현될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주시대 민족의 운명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안고있는것이 우리 나라이며 혁명실천과 문학창작에서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나가고있는것도 또한 우리 현실이고 주체문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자면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으로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계속되어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어나갈 때 해결된다.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으로서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민족의 자주성을 떠나 개인의 참다운 삶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민족을 이루는 모든 성원들이 민족의 자주성

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단결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장편소설 《푸른 하늘》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 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을 창조하였다.

×

장편소설 《푸른 하늘》의 사상에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사건에 기초하여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감동깊게 형상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주고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간직하게 하는것이다.

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84년 9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 막대한 구호물자를 보내준 역사적사건을 기본으로 형상을 펼치였다. 이 사건은 민족분단 39년만에 처음으로 실현된 물질적지원으로서 북과 남 인민들의 혈육의 정이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하나로 굽이치고 이 동포애를 따라 통일의 열망이 온 나라를 휩쓴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소설은 이 역사적사건을 승리적으로 이끄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선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형상의 초점을 그이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정치의 위대성을 밝히는데 두었다.

작품에서는 먼저 혹심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것을 받기하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동포애를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레년에 없었던 큰물이 북과 남을 함께 휩쓰는데 자연의 재해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만 엄혹한 재난을 가져온다. 수십만의 리재민이 나고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진다. 허지만 전두환역도는 민중의 고통엔 아랑곳없이 몸값을 울리며 일본행각을 서두를뿐이다. 이것이 어찌 자연재해만이겠는가...

그러나 이 땅, 이 민족의 운명을 안고 잠못드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 심리를 충성과 효성으로 받드시는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가 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정이 넘도록 서울지구 지도를 앞에 놓으시고 한강변의 수재형편에 마음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 자신께서 책임지시고 남조선수재민들을 도와줄 현실적인 대책안을 꼭 세우시겠다고 말씀올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겨레와 민족에 대한 위대한 사랑에 뿌리를 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동포애는 적십자 중앙위원회 결정을 채택하는 마당에서 더욱 뚜렷이 발현된다. 그이께서는 스물아홉번째로 제기하는 이번 일이 또다시 공회전할것이라고 우려하는 일군들에게 난관이 있다고 형제동포들에 대한 사랑도 포기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라고 준절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데는 술책이 아니라 진정이면 된다고 하시면서 적십자회의에서 내놓은 랑을 다섯배로 늘일것을 제기하신다. 세계 적십자사의 120년력사에 알지 못하는 방대한 랑에만도 겨레와 민족에 대한 대해같은 사랑이 차흐르지만 간단치 않게 조성될 난관들을 오직 동포애의 진정으로 뚫고나가기려는 결심과 의지에는 혈육들을 품어안으신 민족의 어버이로서의 무궁무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굽이치고있다.

소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동포애와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정도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는 첨예한 극적형상속에서 전면적으로 형상되고있다. 소설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본질로 하는 북과 남의 심각한 정치적대결과정을 실재한 사건, 사실을 따라 그대로 펼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밝혀내었다.

적들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딪쳐 할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선포하고는 비렬하게도 《잡아당기면서 밀치는》 술책에 매달린다. 적들은 10월 10일까지 보내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에 대하여 9월말까지 전량을 일괄인수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무례하게 도전해나선다. 사실 그 방대한 랑을 10월 10일까지 보장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9월말까지 하라는것은 억지로 현실적인 불가능성을 조성하는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위인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동포애를 《정치선전》이라고 악리용하려는 적들의 모략에 일군들은 분격을 금치 못하며 남측의 언론인들까지 혐오를 느낀다.

그러나 이 역경을 순경으로 돌려세우는 기적같은 대책이 세워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적의 정체를 회담장에서 폭로하는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적들의 계책대로 될수 있음을 꿰뚫어보시는 한편 기어이 적들의 술책을 타개할 대책을 찾기 위하여 일군들과 함께 구호물자를 마련하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신다. 그이께서는 정미공장과 방직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의 열화같은 통일열망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새롭게 확인하시고 적들이 도저히 할수 없으리라 보는 9월말까지 방대한 물자들을 마련할것을 결심하신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새로운 음모를 또다시 꾸며내고야말 적들과 마주앉을것이 아니라 맞받아 도의적으로 진공할것을 제기하신다.

《구호물자를 보내는 사업에서 우리는 누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것도 없습니다... 구호물자를 싣고 판문점으로, 동해의 북평으로, 서해의 인천항으로 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대고 선포합시다...이런 도의적진공을 남측에서는 아마 무슨 수로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이리하여 교활하고 파렴치한 적들을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고 분단 39년만에 처음으로 혈육들의 사랑이 수백대 자동차와 대형집배들에 가득가득 실려 분계선을 넘어서는 력사적기적이 이루어진다.

적들의 술책을 타개하고 구호물자 인도인수가 현실적으로 실현될수 있게 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도의적진공책은 그이의 정치적령도의 빛나는 예지와 현명성이 바로 겨레와 인민대중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출발점이 있다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정치와 그 위력은 적들이 마지막발악으로 품질을 코에 걸어 끝내 받지 않으려는 《묘안》을 어렵지 않게 이겨내는데서와 《대동강》호 좌초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도전해나서는 적들의 흥계를 통쾌하게 짓부시는데서 다시금 힘있게 파시된다. 1만 2천톤의 세멘트를 실은 배의 좌초, 적의 환성, 현실적으로 로력, 배, 시간 모든것이 애로를 안고있는 긴박한 정황... 그러나 동포들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우리 인민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우리를 감히 우롱하려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려는 도도한 존엄과 기상은 끝끝내 약속한 48시간이 아니라 36시간만에 《순천》호를 인천항에 도착시키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다. 여기에는 《순천》호에서 부리워야 할 소금우에 세멘트를 덧씌어 시간을 얻어내게 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그이의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발휘되는 온 나라 인민들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담겨있다.

이것은 인민의 행복, 겨레의 소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정치는 당의 두리에 천만대중을 하나의 숨결과 힘으로 묶어세우고 이 단결의 위력은 기적같은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여주는 뜻깊은 형상이다.

소설은 이처럼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실현시키고야마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정도를 정면에서 박력있게 형상하면서 그이의 천재적인 정도, 정치의 근본특성이 겨레와 민족, 인민대중에 대한 위대한 사랑에 있음을 밝히여준다.

소설에 형상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개별적간들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하나의 덕성으로가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과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적령도의 길에서 발현되는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조직력, 정력적활동의 근본바탕으로 되는것이다. 여기에 이 소설이 보여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의 독자적인 몫이 있고 그 깊이를 보장하여주는 기본요인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정치의 본질과 위력은 작품 후반부에서 북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곡절많은 오랜 정치인인 최성덕의 형상을 통하여 더욱 깊이있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인간중심주의리념에 기초한 우리 식 정치의 본질이 밝혀지면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의 고귀한 위대성이 격조높이 찬양된다. 또한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말아나서실 위대한분이시며 민족분열의 비운을 걷어내고 조국통일의 푸른 하늘을 펼쳐나가실 통일운동의 위대한 령수라는 사상이 힘있게 울려온다.

이처럼 형상전반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주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굽이치게 한 여기에 이 소설의 첫째가는 성과가 있다.

## ×

소설의 사상에술적성과는 다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반증하고 주체의 민족관을 확립하여나가는 특색있는 성격들을 진실하게 창조하여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하고 소설의 인간학적품위를 높인것이다.

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정면에서 창조하는 한편 동아일보사 기자 한영국과 해외망명자 최성덕의 성격을 품을 들어 형상하였다. 이들은 작품의 기본줄거리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물선을 이루면서 작품이 안고있는 민족의 운명문제를 구체적인 성격과 생활을 통하여 인간학적으로 제기해명하는 의의있는 형상들이며 총적으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반증하여주는 뜻깊은 형상들이다.

한영국은 분단비극의 체험자이며 동시에 남의 판록있는 기자로서 북의 구호물자 인도인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하고 체험하는 객관적인 시점자이다.

한영국에게 체현시킨 사상주제적과제는 북과 남 어디에 정의와 량심, 민족의 운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총적주제인 민족의 운명문제가 안고있는 한 부분이다. 작품에서 민족의 운명문제는 현존하는 두 정치제도 어디에 민족의 번영이 있는가 하는것과 매 민족성원들의 참된 애국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로 구체화된다.

한영국이 체현한 사상주제적과제는 그의 성격형상속에서 정의와 현실, 정의와 삶에 대한 문제로 구체화되며 이에 따라 소설은 그의 인생관의 변화에 모를 박고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의 인생관은 현실적응으로 특징된다. 모든 진리는 학설에 그칠뿐 현실에는 진리가 없으며 따라

서 인간의 량심과 지성은 현실적인 행위로 구현될 수 없고 오직 부조리한 현실에 적응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것이 그의 철학이고 인생관이다. 여기에는 모든 정치는 일정한 권력층이 자기 리해관계를 위한 기만과 협잡이며 이 정치로 하여 현실에 진리가 있을수 없다는 사회정치관이 놓여있다. 이로부터 그는 주체사상의 진리성도 학설로만 인정하며 더우기 북남실무접촉과정을 목격하면서 북의 진정한 인도주의와 남의 비렬한 술책을 명확히 갈라보고 충격도 받지만 기사는 안기부의 보도지침에 맞게 능숙하게 써낸다.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구호물자에 대한 취재과정, 특히 좌초되었다던 배를 대신하여 짧은 시간안에 정성껏 만찬한 세멘트를 싣고 나타난 《순천》호의 위용앞에서 정의와 진실이 현실에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더우기 구호물자를 물고온 운전수청년이 바로 자기 조카이며 그를 통해 행복한 형의 형편을 알게 될 때 심각한 번민속에 지난날처럼 글을 쓸수 없게 되며 북에 대한 동경과 공감을 막아낼수 없게 된다. 그는 남측이 경계하는것이 바로 인간본연의 동포애, 혈육의 정이고 하나로 합치려는 통일의 열망이라는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남조선위정자들에 맞서 진실을 그대로 기사로 써낸다. 이로 하여 끝내 안기부작간으로 타살되지만 그는 현실에 적응하여 목숨을 부지하던데로부터 벗어나 생명보다 귀중한 참된 삶에 대한 지향과 확신을 지니게 된것이다. 한영국의 형상은 오늘 겨레와 민족을 위한 참정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운명적인 체험으로 밝히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정치의 위대성을 설득력있게 반증하여준다. 동시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가 안겨주는 인간재생의 위대한 감화력을 뜨겁게 확인하여 준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매 성원들, 특히 복잡한 민족사와 더불어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인간들앞에 오늘의 력사적시각에 민족공동의 리의를 위하여 책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성덕의 형상은 민족을 등지고 최악의 길을 걸어온 반공본자가 조국통일의 력사적과제앞에서 련공에로 나선 실재한 인물에 기초한 형상으로서 참된 애국과 애족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여주는 인물이다.

한생 반공을 신념으로 삼아온 최성덕은 인생말년에 심각한 정신적번민을 겪는다. 그는 자기 한생이 그리도 뜻하고싶었던 애국도 애족도 아닌 허무뿐임을 절감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단 하루라도 참사랑을 지녀보고싶은 유일한 소망을 품는다. 이러한 인물의 형상은 계급, 당파를 위한 정치적 주의주장보다 동포애, 조국애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상감정이며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정치적주의주장으로 되여야 한다는것, 애국의 량심을 잃지 않으면 자주적인 삶을 개척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의의있는 형상이다.

소설은 최성덕의 형상에서 인간다운 참사랑, 정신적지렁점을 찾는데 모를 박고 북반부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받아안은 생각과 감정들을 진지하게 펼치고있다. 동포들에게 구호미를 보내게 되었다고 사람사태를 이루어 흥성이는 《오늘호신문매대》, 손님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사의 말, 실업자도 호화로운 기생충도 없고 학비와 세금이란 말도 모르는 현실, 보고들을수록 미궁에 빠져드는것 같고 사람, 사실 모두가 리상적수치에 도달해있는 별세계인것이다. 그는 구호물자를 물고 가게 된 감격으로 흥분된 소박한 무산청년의 약혼식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축하해주셨고 평범한 의사의 아들딸을 《나라님》의 전용차에 태워주었으며 운숙경의 의식회복을 위해 그이께서 장시간 간호해주셨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차 이복정치는 한가정처럼 어울리고 정이 통하는 인정 정치라는것을 느낀다. 북반부 현실에 대한 그의 감격과 환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절정에 달한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최악에 찬 그의 과거보다 한생을 뉘우치고 진리에 접한 그의 오늘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대해같은 따뜻한 품속에 안아주신다.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인간중심의 위대한 정치에 대해서와 공산주의야말로 민족을 위한 참된 길임을 가슴깊이 받아안으며 위대한 인간에 대한 끝없는 매혹을 느끼는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는 지금껏 허탈상태에 빠진 공간을 메꾸고난을 새로운 씩이 순간에 돌아나게 되며 여생을 애국애족에 바칠 불같은 욕망이 솟구친다.

소설은 최성덕의 인생전환과정을 주체의 민족관의 형성과정으로 탐구형상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은 련공에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희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심을 깊이있게 밝히여준다. 최성덕의 형상은 오늘 민족대단결의 통일의를 구현한 전형적형상으로서 주체의 민족관 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한다.

최성덕, 한영국의 성격형상은 수령형상문학에서 중요인물들의 정신적높이를 원만하게 보장하여 그 철학성과 예술적감화력을 높이는 문제, 수령형상문학이 안은 거대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인간학적으로 심화시키는 문제, 자주적사상의식을 바탕으로 일반화와 개성화를 실현하는 문제 등 주체적소설문학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의의있는 경험을 시사하여준다.

## ×

장편소설 《푸른 하늘》의 사상에술적성과는 또 한 형상의 집약화, 분석적인 묘사기교로써 수령형상장편문학의 무게와 형상의 원숙성을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장편이라는 양식에 비해볼 때 이 소설에는 매우 짧은 시간안에 몇몇 인물들의 생활이 담겨있다. 한

달 가까운 짧은 기간에 벌어진 일들이며 성격화된 등장인물들은 열명을 약간 넘을뿐이다. 작가는 마치 중편을 다루듯이 인물과 시간, 생활령역을 한정시키고 절제하여 쓰는 인상을 준다,

한편 작품을 이론 제재의 문학적감화력이 남다른것도 별로 없다. 주요인물들의 관계는 사회정치적관계가 기본으로 되고 아기사기한 생활을 풍길 개인적, 가정적, 세대적인 관계는 밑에 깔려있을뿐 화폭으로 전개되는것도 거의 없다.

그러나 소설은 시종 읽히우고 감동을 주면서 생활이 허약함을 결함으로 느끼게 하지 않는다. 무엇이 장편소설의 용적, 정치소설의 높은 형상력을 보장하고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높은 묘사밀도를 가지게 하는 형상의 집약화, 원숙한 묘사기교이다.

형상의 집약화는 우선 립체적인 구성조직과 사상주제적과제해결에로 육박하는 시점인물들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고있다.

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여기에 남조선현실과 해외망명인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한영국, 최성덕의 선을 굽게 병행, 교차시키는 기하학적구성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생활의 공간적인 폭을 넓히면서 우리 민족의 복잡다단한 운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주제를 깊이있게 해명할 생활적바탕을 이루어준다.

소설의 구성은 특히 다양한 생활무대의 중심에 민족의 운명문제를 밝힐 뚜렷한 형상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높은 지성과 사회정치적안목에서 현실을 예리하게 투시할수 있는 한영국, 최성덕을 세우고 그들의 시점에서 생활을 펼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건, 사실의 라렬이 아니라 생활의 본질을 다각적으로 파고들게 하였다. 생활의 본질과 의의를 밝힐수 있는 시점인물들을 내세우고 모든 사건, 사실들을 그들의 운명적체험과정으로 펼친것은 현실의 적은 시공간에서 장편의 형상적시공간을 이끌어내고 형상이 높은 묘사밀도를 띠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이밖에도 소설의 구성은 전반부에서 북과 남의 대립에 의한 외적갈등을 위주로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한영국, 최성덕과 같은 인물들의 운명전환의 극으로 심화시킴으로써 사건이 아니라 성격형상대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해명으로 심화되게 하였다.

소설의 형상이 집약화, 집중화된 화폭으로 창조된것은 또한 굵고 선명한 사건선, 인물선에 뜻깊고 인상깊은 세부, 일화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탐구리용된것과 관련된다.

일화, 세부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체험시키는데서 의의있게 쓰여있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상하신 전사 립업성 송부상에 대한 일화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심려의 한생을 작은 이야기에서 뜨겁게 느끼게 하며 잠시 모셔진

수령님의 영상을 생활이 흐르는 진실한 화폭으로 감수하게 한다.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충성과 효성의 세계를 깊이있게 드러내는데 이바지하는 비에 화락하니 젖은 어버이수령님의 양어깨세부, 분단비극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안고계시는 위인의 세계를 생동한 숨결로 체험시키는 구호물자를 실은 차들이 38선을 넘는 순간의 《넘어갔소!》대사세부, 오직 동포애의 진정을 담으면 된다고 하면서 포장의 적십자표식마저 지워버리고 만든곳과 날자만 써넣게 하신 세부, 쌀알의 습도를 재어보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한그릇 밥을 짓도록 하여 일군들과 함께 그 맛을 헤아리시는 세부 등 소설에는 감동없이 대할수 없는 무수한 세부와 일화들이 있다. 소설은 역사적사건에 기초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치적경도과정자체를 기본줄거리로 하여 선이 굵게 형상하면서 이와 같이 뜻깊은 세부와 일화들을 탐구하여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와 인간적품모를 감성적으로 체험시키고 형상의 깊이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소설에는 이밖에도 은시계줄세부와 심창억이 땅에 흘린 쌀알들을 주어모아 사람들 손에 조금씩 나눠주는 세부, 《해주》만을 찾는 박만호의 형상, 운속경의 경력과 관련한 뒤생활일화 등 적지 않은 일화와 세부들이 탐구되어 성격들을 인상깊게 특징지어준다.

소설의 세부, 일화들에는 은시계줄세부와 같이 깊은 의도밑에 반복되면서 사건과 성격발전, 종자해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것이 적지 않은데 《일산고아원》과 관련한 생활세부가 대표적이다.

《일산고아원》은 한영국이 수재를 빚어내는 남의 반인도주의정책을 야유하기 위해 찾아간 취재대상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미제에 의해 초래된 혼혈아들을 보면서 고아원원장이 선전하는 적십자정신으로 표방되는 외피세계와 자신이 꿰뚫어보는 치욕스럽고 잔인한 썩은 내부세계를 처절한 심정으로 투시한다. 이 혼혈아들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최성덕의 인물선에서 반복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심화된다. 최성덕은 한국고아들을 데려온다는 친구를 축하하러 갔다가 다름아닌 혼혈아들인데 놀라며 망국의 징조로 환멸을 느낀다. 그의 이 혐오와 환멸은 뜻밖에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향한다. 도대체 너자신은 저애들보다 무엇이 나은가. 그애들은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것을 책임질수 없지 않나... 차창에 비친 그의 얼굴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번쩍인다. 소설은 제일 마감부분에서 다시 최성덕의 시점에서 행복하고 귀여운 북반부 어린이들과 그 혼혈아들에 대한 인상을 대비반복한다. 이처럼 한 세부로 북과 남, 조국을 잃은 망명자의 비극을 다 비쳐내고 민족문제의 심각성과 그 전망까지 다 형상하여내었다.

다음으로 소설의 형상이 원숙하고 세련된 지성미를 풍기는것은 속도감있고 분석적인 묘사서술과 관련된다.

이 소설의 묘사는 속도감있는 탄력있는 묘사, 높은 지성도를 느끼게 하는 분석적인 묘사로 특징적이다.

원래 소박하면서도 의미와 정서가 정확하고 예리하며 순탄하면서도 높은 지성도를 느끼게 하는것이 이 소설가의 중요한 문체상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문체가 정서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과 세련미를 느끼게 하는 작가의 원숙한 묘사기교는 이 소설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있다.

소설의 묘사가 우선 속도감있게 안겨오는것이 좋다.

묘사속도가 반드시 묘사밀도와 관계되는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묘사를 밀도높게 그려낸다면 속도에 역행할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매 문장에서 독자들에게 필요하고 절실한것을 충분히 받아안게 한다면, 그러면서 별다른 수식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다면 그 묘사는 독자들에게 속도감있게 읽힐것이다.

이 소설의 묘사에는 사회정치적, 시대력사적, 경제실무적, 생활적 내용들이 알차고 풍부하게 담겨있으며 특히 이 다양한 세계에 대한 작가의 사색과 평가가 예리하고 깊이있다. 그러면서도 문장들은 군더더기가 없이 간명하게 서술되고있다.

또한 앞에서 인상깊은 세부, 일화들이 적극적으로 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작가의 의도를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선명하고 특징적인 묘사대상들이 초점으로 포착되고 나머지는 기본줄거리선에서 소묘화되고있다. 초점의 설정과 심화, 소묘적처리는 줄거리와 인물배치, 언어형상 전반에서 실현되면서 탄력있는 흐름, 속도감이 느껴지게 한다.

이 소설의 묘사기교는 중요하게 분석적인 묘사이다. 소설은 생활의 의미를 높은 지성세계에서 들여다볼수 있는 시점인물들을 세우고 그들의 사색과 체험과정을 파고든것으로 하여 분석적인 심리묘사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소설의 묘사는 어디에서나 현상자체를 화폭화하려는것보다 그의 내적본질에 성격적특징으로 지향되면서 리성적특성을 뚜렷이 한다. 그러면서도 풍부한 정서를 동반하는것으로 하여 작품의 지성도는 형상의 충분한 감화력을 보장하여준다.

분석적인 묘사는 심리묘사에서 널리 쓰이었는데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정신세계를 밝히는 효과적인 형상수단으로 쓰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에 대한 깊은 사색과 운속경을 병원에서 돌봐주신후 옥류교를 홀로 걸으시면서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가능성, 시대적과제를 받아안으시는 사색과정에 대한 분석적인 심리묘사는 상당한 폐지에 걸쳐 길게 전개되면서 그만한 폭과 무게를 가지고 작품의 주제사상해명과 위대한 인간의 성격형상에 힘있게 이바지한다.

소설의 묘사는 분석적인 리성적묘사에 간명하고 생동한 묘사를 결합하여 요긴한 대목들에서 풍부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최성덕이 신미리털사릉에 애국렬사로 모실 아버지의 비석앞에서 복잡한 심리를 체험하는 대목의 묘사를 레들수 있다.

《아무런 감각이 있을리 없는 화강석우에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얼굴은 시퍼렇게 이문것처럼 색이 변하였고 비석을 그러안은 팔이 와들와들 떨었다. 차디찬 비석우에 눈물이 고이였다. 그것은 마치 돌썸에서 금방 솟아난 이슬같이 보이였다. 거기에는 저물기 시작한 해빛이 강하게 반사되였다. 처절한 광경을 지키고있던 허담의 가슴에도 비애라 할지 감격이라 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는 충격이 일어났다.》

묘사언어들은 뜻과 정서가 예리하고 생동하고 간명하면서 다의미적이다. 한생을 총화하는 뼈아픈

체험이 있어 비애와 고통이 화폭화된 동시에 그의 과거만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생의 감격과 환희도 감각되는 묘사이다.

실로 두뇌와 정서에 다같이 많은것을 주는 세련된 묘사기교를 떠나 이 소설의 형상적품위를 말할수 없을것이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장편소설 《푸른 하늘》은 오늘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이 제기하는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풍만하고 심오한 예술적 형상으로 깊이있게 대답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민족의 어버이로 충성과 효성을 다해 높이 모시고 주체의 민족관을 튼튼히 세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도록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우리 식 소설문학의 귀중한 성과작이다.

## 비료로 우리를 지켜간다 !

량덕모

내 손에 총은 들려있지 않고  
내앞에 작렬하는 포연탄우가 없다  
하나 조작실을 지켜선  
나의 눈빛은 예리하다  
전조선에 서있는 병사처럼

용을 쓰는 압축기 압력  
단숨 쉬는 합성탑 온도가 실린  
계기의 눈금  
그것은 그대로 비료의 무게

조작반너머 마주 어려온다  
비료, 비료만 있으면  
풍년은 문제없다는  
전야의 농장원들 그 얼굴이

새해 농사차비로 뚫으며  
비료를 부르는 그들에게  
꼬리물고 하조장을 떠나는  
렬차의 기적소리로 대답해야 할 우리

순간마다 귀전에 울려온다  
비료전선을 진두지휘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를 믿어 내리신 전투명령이

그 명령은 다름아닌

우리의 행복을 보위하는것  
밝은 웃음과  
씩씩한 발걸음  
불러 끝없는 기쁨의 노래를 지키는것

아, 주인의 권리로 누리는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을 지키고  
더는 소원이 없을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것

어려워도 힘겨워도  
오늘에 땀흘려 지키지 못하면  
래일은 피를 흘리며  
다시 찾아야 할수도 있으리

논밭 곡식만 자래우는 비료가 아니다  
거목처럼 든든한 우리의 사회주의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우고  
그 아지를 더 무성하게 펼쳐가는  
조국의 큰 힘 여기서 먼저 솟음치나니

내 손에 총은 들려있지 않고  
내앞에 작렬하는 포연탄우는 없어도  
성새처럼 높이 쌓아가는 비료산  
그 비료로 지켜간다 !  
우리의 사회주의를



## 축복의 흰눈송이

림향

평평 흰눈이 이 땅을 포근히 감싸며 내린다.

눈사람을 만들어놓고 마주보며 깔깔 웃는 아이들의 빨간 얼굴에도, 네거리의 한복판을 척 가로타고 우롱-찌르릉거리며 달리는 궤도전차들우에도, 다정히 속삭이기도 하고 손을 내흔들며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면서 오고가는 사람들의 어깨우에도 쌓이고 쌓이는 흰눈송이다.

이 은세계에 그들과 함께 꼭 잠기고 싶은 욕망을 누르며 우리는 《청년전위》 휘장이 힘있게 빛을 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사의 어느 한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방안으로 들어선것도 모르고 40대의 다부진 체구에 두손을 뒤로 맞잡은 한 일군이 눈내리는 창밖을 향해 서있었다.

그가 바로 사로청중앙위원회 최룡해위원장이었다.

무슨 생각에 잠겨있기에 저렇게... 우리는 그의 사색을 깨뜨리고싶지 않아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몸을 돌려 책상앞으로 다가서던 그는 그때에야 우리를 알아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인사를 나누고 찾아온 사연을 듣자 그는 매우 난처해하였다.

《이거참, 조직부에 가보십시오.

그 동무들이 이번에 진행될 사로청 제8차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일을 하고있는데...》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로 사색해야 할 그를 지체시키는것이 미안한감도 없지 않았으나 이왕이면 양보하고싶지 않았다. 또 사로청사업과 관련하여 많은것을 그에게 묻고싶었다.

거듭되는 간곡한 요청을 마다할수 없었던지 그는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고도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가 사로청사업을 갓 시작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로청 제8차대회를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뜻깊은 대회를 눈앞에 두고보니 우리 청년운동을 일심정력으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금할수 없구만요. 저도 그이의 넓은 품속에 안겨 걸음마를 댈 일군의 한사람입니다.》

그의 어조는 담담한데 내심에 끓는 마음은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있었다.

그는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청년운동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을 테를 들어가며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가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 사업을 맡아보던 때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로 한창 들끓고있던 시기였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직 경험도 어리고 미숙한 그에게 제13차 세계청년학

생축전 조선민족준비위원회 책임자의 중임을 맡기시는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 직접 그 일을 지도하시면서 모든 사업이 다 잘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전당적으로 청년사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당시 많은 문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하는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청년사업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내밀어주시는 그 믿음.

그 은정속에 그는 난관이 제기되어도 동요없이 주동적으로 축전준비를 원만히 해나갈수 있었다.

《기자동무는 이런 말의 뜻을 깊이 음미해본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것의 절반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드려야 한다.〉 이 말을 말입니다. 전 그걸 축전국제준비위원회 제1차회의때 단장으로 파견되어가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포함하여 여러 대외사업부문 일군들로 구성된 대표단 단장으로 그는 조국을 떠났다.

정다운 조국산천이 점차 멀어져가는 차창가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한방울, 두방울 이슬이 고여올랐다.

슬하를 떠나야 부모를 그리는 마음 더욱 간절해지고 자식을 위해 기울이던 보살핌이 더욱 새록새록 갈마든다더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먼곳에 있는 전사들을 념려하시여 회의에서 단장인 그가 해야 할 연설문에까지 깊은 주목을 돌리시고 그 내용들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모두 몸건강하기 바란다고 어머니의 다심한 심정으로 말씀하시였다. ...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살지요. 바로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러한분이십니다.

기자동무들도 그때 일을 잘 아시겠지만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 얼마나 독특하고 황홀했습니까.》

그의 말이 옳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1989년 7월.

우리 조국은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하는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이며 우리 나라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국제행사인 평양축전의 분위기속에 휩싸여있었다.

낮에 밤을 이어 환희에 찬 사람들의 물결,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청년들의 경쾌한 모습.

축전을 하루 앞두고 불과 4시간이면 올 길을 멀리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전대협》의 애 어린 대표인 림수경학생의 평양도착.

우리 이 만남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그로 인해 더한층 고조된 축전의 분위기!

수경의 모습은 통일열망의 활화산을 힘껏 타오르게 하는 불씨였고 세계청년들앞에 더는 갈라져 살수 없는것이 조선인민의 념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통일화원의 아름다운 꽃이었다.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조선청년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시위한 보람찬 축전이였으며 세계청년운동사상 가장 빛나는 장을 새겨넣은 단결과 화합의 대축제였다.

왜냐면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세계청년운동의 본보기로 되었기때문이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를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눈앞에 펼쳐진 희한한 모든 동작을 수행하는 우리 청년학생들도 이 평양축전이 어떻게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본보기로 될수 있었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평양축전에 참가한 세계 인민들과 청년들도 우리 조선청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저렇듯 환하고 아름다왔는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드리는것을 제일 첫째가는 사업으로 놓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축전 전기간을 세심히 령도하고 지도하시였다.

축전행사를 뜻깊게 하며 축전전야를 의의있게 하기 위해 축전장으로 달리는 조선청년학생들의 화불이어달리기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그때 일군들은 종전의 형식과 다름없이 화불행진을 진행할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화불이어달리기를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출발행사는 52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서광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공격의 신호총을 울리신 그 시각에, 그것도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의 날 보천군 보천읍에서 평양축전의 봉화대에 지필 불을 달도록 하시였다. 또한 그 불도 항일의 로투사가 달아주도록 하였으며 로정도로도 혁명사적지들과 《배움의 천리길》 행군로를 따라 달리도록 정해주시였다.

우리 그때 축전장에 활활 타오른 봉화대의 불길, 《야!》하는 만사람의 경탄속에 거침없이 지퍼진 그 불길을 보며 이런 세심한 사랑, 위대한 령도의 손길에 대해 가슴뜨거이 생각해보니 그 누구더냐.

청년들이 들끓어야 나라가 들끓는다시며 우리 청년들을 사회의 활력있는 부대로 키우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손길,

《ㄷ. ㄷ》의 탄생으로부터 그 시원이 열려진 우리 청년운동을 선렬들의 념원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어나가는 주체위업의 영예로운 계승자의 부대로 키워나가시려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업적,

세계의 부러움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 행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꽃핀것이 아니겠는가!

《행복에 도취되면 모든것을 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황홀한 축전장에서, 우리 식의 축전장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을 지녔지만 하나의 공통된 심정으로 흥분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석단에 앉아계시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며 전 맹세했습니다.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가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절 부러워합니다. 제가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사업을 하며 그 누구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과 배려 속에 일하는 행복한, 복받은 인생이라구요.

정말 전 행복합니다. 몇해전 일이지요...》

...1980 년대의 마지막해를 빛나게 장식하려고 모두다 들끓무렵 전국청년발명 및 창고고안선구자대회가 끝나가던 때였다.

그때 그는 몹시 앓고있었다.

사람이 앓으면 마음도 약해지고 보고싶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그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당중앙위원회의 청사로 향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대회와 성과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 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로청중앙위원회 최룡해위원장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간절한 그리움을 달래며 병을 이겨나가던 그는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 수척해진 전사의 몸건강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보시고 무척 놀라시며 과업준대로 왜 몸을 돌보지 않는가고 따 뜻이 타이르시면서 몸소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 사로청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위원장동문 몸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친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시였다.

그후에도 사로청위원장이 왔다고 뜨겁게 손잡아주시면서 일을 많이 하는 동무라고 등을 두드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의 아버지는 자신께서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에도 그랬고 그후에도 늘 찾아와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였다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당의 령도에 충실하였다고 먼저 간 로혁명투사를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현동무가 끝끝한 아들들을 남기고 갔다시며 저를 보시고 일

잘하라고, 최현동무가 당에 충실하였던것처럼 자식들도 대를 이어 당에 충실하도록 잘 키워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되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고 아버지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잘 받들어모시겠습니다라고 충성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까지 그이의 의도대로 일하지 못하고있으니 …

1991년 9월초였습니다.

저녁에 있게 될 행사에 참가하느라 옷을 갈아입으러 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문을 열기 바쁘게 전화종소리가 울리더군요.

퇴근시간도 꽤 지난데 말입니다.

글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며칠전 텔레비존화면으로 비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3대혁명붉은기 칭호〉 수여식 장면을 보시고 돌격대 제복을 청년들의 미감에 맞게 고치는것이 어떻겠느냐는 전화말씀을 주시는것이였습니다.

그 행사에 직접 참가하였던 저도 미처 살피지 못하였는데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청년들의 옷차림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전화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십시오.

죄중에 죄는 믿음에 보답 못할망정 배반하지 말겠다고 누구보다 신임과 배려를 받아안은 제가…》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 넓은 법이다.

자식들은 이것을 너무도 늦게야 깨닫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잘못을 깨닫고 몸돌바를 물라하는 그에게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그후 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을 맞으며 진행한 청년들의 해불시위를 보시고 우리 청년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사로청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다음해에는 전승 40돐이 되는 해인데 그때에 해불시위를 더 크게 벌리자고 믿음을 주시었다.

여기까지 말을 한 그는 눈길을 창밖에 주었다.

우리의 눈길도 그와 함께 밖으로 향해졌다.

이해의 더 큰 경사를 예고해주듯 소담진 흰눈이 평평 쏟아져내린다.

《날이 참 좋지요.

문학가들은 이런 밖을 보느라만 좋은 글감이 떠오르겠지요. 저 눈을 보니 제마음도 더욱 깨끗해지

는것 같습니다. 하아얀 저 눈송이처럼 우리 사로청원들을 더욱 순결하고 깨끗하게… 허허.

우리 청년들은 꼭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대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날것입니다.》

조용한 방안의 무게를 한층 더 질게 해주는 그의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는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다고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청년운동을 령도하시기에 미래는 휘황한것이다.

그이께서 몸소 발기하여주시고 령도하시는 우리의 사로청 제8차대회, 이것은 우리 청년운동력사에 또다시 빛나는 한페이지로 아로새겨질것이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이 말은 우리 조선의 청년학생들을 위해 생겨난 말일것이다.

크나큰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 위신 더욱 높아진 우리 청년들의 자랑찬 모습,

이제 그 활기찬 모습들이 사로청 제8차대회장으로 모여들것이다.

《모두다 90년대의 청년영웅이 되자 !》라는 힘찬 함성높이…

우리는 그날의 대회장을 위해 들끓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청사를 나섰다.

흰눈을 한껏 맞고싶은 우리의 머리에 소담진 눈송이가 여전히 소복소복 내린다.

저마다 하얀 눈송이를 받으려 손바닥을 펴들었다. 그리고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힘껏 문질렀다. 상쾌하고 차가운 눈송이 !

그것을 타고 들려오는 최룡해위원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리는듯싶다.

《눈이 없는 겨울을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키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떠나 우리 청년운동의 래일을 생각할수 없지요. 이게 제가 꼭 하고싶은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청년운동의 령도자이시며 스승이신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 담아 그 은정이 축복으로 승화되어 내리고내려 수복이 쌓이는 저 눈송이.

설경속에 잠긴 모든것이 범상히 보이지 않는다.

눈덩이를 움켜쥐고 달리는 아이들,

보통강반을 옆에 끼고 우뚝 솟은 건물우에서 힘차게 필력이는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기발…

이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맹세의 뜻으로 승엄하게 안겨왔다.

## 해발

류정옥

장혁수의 방에 들어선 조명구는 조심스레 의자 한귀통이에 걸터앉았다.

강습에서 돌아온 초급당비서 장혁수의 호출을 받은 그였다. 출근하자바람으로 당장 올라오라는 그 억양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마음이 어정쩡하다.

장혁수는 돈보키너머로 앉으라는 눈짓을 하고는 보던 문건을 계속해보고있다.

도에서 가지게 되는 기술혁신자들의 경험토론회에 선출된 혁신자들의 명단이다. 종이의 색깔과 글씨가 낫익은 1 광구 조명구네것이었다.

그의 책상에는 허리를 접은 신문이 놓였는데 나란히 찍힌 개별사진들이 첫눈에 띄었다. 1 광구기술혁신자들의 사진과 함께 얇은층 채광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새로운 채광기를 창안한 기술혁신 기사가 실린 《로동신문》이었다.

방금 보다 놓은듯했다.

장혁수는 명단에서 눈길을 떼고 조명구를 피딱 건너다보았다. 엄해보이기도 하고 웅심깊어보이기도 하는 눈길엔 노기가 서린듯했다.

조명구는 저 명단에 무슨 사달이가 났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내 욕심을 부렸다는걸가?)

욕심을 부릴만도 하다. 광산기술자들과 기술혁신자들은 이번 경험토론회에 큰 의의를 부여하며 기대를 가지고 무척 흥분하고있다. 가치있는 경험들이 토론될것이며, 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기회로 될것이며, 저저마다 자기네들의 기술성취를 시위하는 공지와 자부심이 클것이다. 또 한가지 흥미를 끄는것은 평양건축을 예견한다는것이다. 사상, 기술, 문화 발전의 축도인 3 대혁명전시관 건설장에서 땀도 물론 흘려볼것이고 웅장화려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직접 확보해볼수 있고 유명한 박물관들과 극장들에서 보고 배우며 즐기는 기쁨을 누리게 될것이라는 크나큰 기대속에 누구나 다 참가하고싶어한다.

조명구네가 욕심을 부렸다면 이번에 보다 혁신적인 얇은층 채광기를 창안해서 신문에도 소개된 기술혁신조 성원들을 죄다 추천한것이다. 사실 그들중에는 아직 기술기능수준이 어리고 채광년한도 몇년 안되는 광부들이 보조공으로 망라되었었는데 그들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보내기로 하였다.

광구장 이하 초급일군들의 합의밑에 부문당비서인 조명구 역시 찬성했던것이다. 한사람이라더 보내여 배우게 하는것이 무엇이 나쁘랴. 하지만 광산적으로 기술자, 기능공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타산도 하지 않고 자기네 사람만 생각하는 본위주의라는것이겠지, 정 그렇다면 조절하면 될텐데 저렇게까지 난데없이 노기를 풍기며 못마땅해할건 없지 않을가.

어쨌든 조명구는 몸도 마음도 웅색스러워 순박한 얼굴에 불안기를 담고 초급당비서의 기색만 살렸다.

하지만 장혁수는 조명구의 불안정한 자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몇달전 부문당비서로 선거받던 날 이 방에 왔을 때도 지금처럼 조심스레 의자 한귀통이에 걸터앉았었다. 물론 오늘과는 다른 의미에서였다. 그때는 엇그제까지만해도 평범한 제대군인광부였던 그가 부문당비서라는 직분이 분수에 닿지 않는것 같고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을 빌려입은것 같아 부자연스러워서였다.

그날은 장혁수가 조명구에게 편안히 앉으라고 어깨를 짊어주면서 진정한 당일군이 된다는것은 헛치 않은 일이다, 허나 지레 겁을 먹거나 걱정할건 없다, 명심할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어렵고 복잡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일이라도 어머니의 심정이 되여 뜨겁게 몸을 달구며 깊이 사색하고 다심하게 대하는것이라고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지금은 그 내심을 가늠키 어려운 눈길이 여전히 심상치 않다.

《부문당비서동무도 이 문건을 보았겠지요?》

예감은 갈데가 없었다. 물음이 아니라 추궁이다.

《예.》

《그런데 왜 이 모양이요?》

《...》

조명구는 얼른 말이 나가지 않아 엉거주춤 일어 서기부터 했다.

다른때같으면 앉아서 말하라고 손짓까지 했을 초급당비서였으나 오늘은 그런 기미도 안보였다.

《왜 빼버린 사람이 있나 말이요?》

《예 ? !》

조명구는 얼떠름해서 커다란 눈을 꺼벅거렸다. 분명 빼버렸다고 했다. 우려와는 정반대 앞에 안도감과 의혹을 동시에 느꼈다. 누구를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짐작이 안갔다.

《리재남동무가 빠지지 않았소.》

《재남이요? ! ... 그야...》

리재남은 공장대학 학생이며 기능이 높은 채광공으로서 이번 기술혁신조에 처음부터 참가했었다. 선진기술에 민감하고 현장실정에도 밝은 청년으로

서 조에서 하나의 기둥이었다. 현대 창안초기에 주관적욕망을 앞세우다가 채광기의 주요부분품제작에서 실패를 보는바람에 무척 귀한 특수재질의 자재를 낭비했고 따라서 로력과 시간을 허비했었다. 게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져나간 사람이다.

장혁수가 조명구의 뒤말을 받아이었다.

《그러니까 재남인 사고를 쳤고 마지막 시운전대를 잡지 못했으니 빠지는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겠소... 앗소.》

그 억양은 아직 예리한 주견이 없고 세련이 없이 그저 순박하기만한 조명구에게 화를 내는것 같았다.

조명구는 꼭 찍어서 대답할수가 없었다. 재남이라는 그자체가 아예 론의대상에 오르지부터 앗았었고 조명구 역시 재남이가 녀두에 없었다.

장혁수는 신문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그래서 이 신문에도 재남인 이름도 얼굴도 다 빼버렸겠소?》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자리를 떴던 보조공을 찾느라고 온통 법석을 했지만서도 재남이는 생각지 않았다. 결국 그만큼 사람들의 안중에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조명구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비서동지, 경험토론회에 참가하는것이나 신문에 나는것도 성과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현대 재남인 성과보다도... 어쨌든 누구의 관심에도 그가 없었습니다.》

장혁수는 말없이 조명구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 우묵한 눈에 떠돌던 노기는 사라지고 대범해지려는 아량이 어리었다.

《아주 그럴듯한 계산법이구만... 이보우 명구동무, 생활을 그런 단순한 산수적계산으로는 짚수 없소. 보다 복잡한 고등수학으로도 풀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것이 생활이요.》

뭔가 깊은 생각을 담은 눈길로 조명구를 투시할듯이 지켜보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생뚱같은 질문을 하였다.

《거 금년 설날에 만났던 소녀가 생각나우?》

《?!...》

(금년 설날?!... 소녀?!... 소녀?!...) 생각났다.

《재남의 녀동생 말입니까?》

《그렇소. 그동안 그 분이생각을 좀 해보았소?》

무엇때문에 불쑥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뭐 ... 별로...》

우연히 그날 그를 만났던후로는 다시 상기해볼 기회도 겨를도 없었다.

장혁수와 조명구가 재남이네 집과 그의 녀동생을 알게 된것은 아주 우연이었다.

장혁수는 새로 선거된 젊은 부문당비서 조명구를 데리고 금년 설날아침에 광부들의 가정을 방문하는것으로부터 새해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날 채광마을을 지나던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것은 길옆의 아담한 단층집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연기와 마당가에서 눈굽을 흠쳐대는 열너덧살의 소녀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것 같아 차에서 내려 들어가보니 별일은 아니고 탄불을 피우는중이었다.

소녀는 낯선 두사람과 길옆의 승용차를 의아스레 여겨보며 누구들인가고 물었다. 광산사람들이라고 하자 소녀는 뜻밖에도 온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 찾아오셨구만요.》

두사람 역시 뜻밖의 정황에 대답을 못하고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들의 눈치를 본 소녀는 자기나름으로 의아해하였다.

《우리 오빠 모르시나요? 새로운 채광기를 창안하는 기술혁신조에 리재남이라구.》

《오,그랬었구나. 왜 모르겠냐. 알아두 잘 알지.》

장혁수가 대답하며 자기들을 소개했다.

《나는 채광초급당위원회에 있구 이 아저씨는 오빠네 광구 부문당비서다.》

《어마나, 어쩔. 그것도 모르고.》

소녀는 놀람과 기쁨의 탄성을 연발하면서 어쩔줄 몰라하다가 문득 자세를 바로하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고 깊이 허리굽혀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는 냉큼 뛰어가 방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들 가세요.》

《그럴새가 없구나. 가봐야 할 집들이 많아서.》

장혁수가 부드럽게 사양했다. 그러자 소녀의 얼굴에선 기쁨이 스러졌다. 보아하니 소녀는 두사람의 걸음이 자기 집을 겨는것이 아니라는걸 눈치챈 듯했다. 따라서 오빠가 별로 이들의 관심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는 뭔가 말할듯말듯 망설이다가 결심을 내린듯 입술을 감빨고나서 말했다.

《저- 우리 오빠 일이 잘 안되나요? 그러구 기계두 별치 않은것인게요?》

《?!...》

뜻밖의 질문이고 아이답지 않은 관심이였다.

《왜, 오빠가 뭐라더냐?》

장혁수가 되받아 물었다.

《아니요. 이번 창안이 성공되면 전 오빠가 인차 발명가도 되고 혁신자로 될줄 알았는데 요즘엔 왜 그런지 말도 잘 안해요.》

소녀의 까만눈이 빛을 잃고 흐려졌다. 무척 감정이 예민하게 변하는 소녀였다. 불안해진 눈길이 초조히 대답을 기다렸다.

허나 두사람은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이무렵에 재남이가 기술혁신조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관을 앞세웠다가 쓴맛을 본후 비판을 받고 자책속에 번민하고있었다.

소녀의 눈길에선 희망과 절망이 엇갈렸다. 그 믿음이 이상하리만치 절절하고 그 실망이 너무도 큰데 장혁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하지만 대답을 독촉하는 눈길앞에 무심할수가 없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다 잘될게다. 그리구 오빠네가 만드는 기계는 아주 훌륭한거다. 그래서 우리 광산적으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게 정말이나요?》

《정말이 아니구.》

소녀의 표정은 일시에 밝아졌다. 모든걸 표현그대로 믿을 나이였다. 그럴수록 ऐसा게 스칠수 없는 소녀의 심리라는 의문이 생기는 장혁수였다.

어째선지 방에도 부엌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부모님들은 다 어데 가셨나?》

소녀는 눈길을 떨어뜨리며 아버지는 10여년전에 불치의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어머니는 장기질환으로 앓고있는데 병이 심해져서 며칠전에 입원했기에 지금은 오빠하고 둘이 있다고 하였다.

《그랬겠구나.》

두사람은 다 아직 재남이네 가정내막까지는 모르고있었던것이다.

《헌데 오빠는 왜 보이지 않느냐?》

《오빠 오늘도 뭐 할일이 있다면서 아침일찍기 나갔어요. 그 채광기때문이겠지요 뭐.》

《그렇다? !》

장혁수는 소녀의 심리상태가 리해되었다. 오빠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왜 그토록 각별한것인지 짐작이 갔다.

재남인 소녀에게 있어서 생활의 기둥이고 희망이며 믿음의 지탱점으로 되지 않을수가 없을것이다. 벌써 알고있었어야 했고 관심을 돌렸어야 할 남매였다.

장혁수는 아직도 연기가 스름스름 흘러나오는 부엌문앞으로 다가갔다.

《불이 자주 죽느냐?》

《아니요. 설맞이놀이에 갔다가 제시간에 갈지 않아서 죽었어요. 일없어요. 이제 살아나요.》

그러나 꺼먼 탄아궁에서는 연기만 푸실푸실 날 뿐이었다.

《내가 좀 볼가.》

《그러지 마세요.》

《비서동지 !》

분이가 다급히 팔을 잡으며 말렸고 조명구가 따라서며 난처해하였지만 장혁수는 솜옷을 벗어놓고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탄불이야 내가 잘 피우지. 나는 원래 열관리공이었다. 군대때도 내내 화구당번이었으니까.》

병사시절에 불당번이야 했겠지만 열관리공이었다는것은 소녀를 위해 순수 꾸며낸 말일지도 모른다.

그 말의 효과인지 정말로 솜씨가 있는것인지 잠시후 꺼먼 탄엔 빨간 불이 불기 시작하였다.

분이는 송구한 미소를 짓고 어서들 방으로 들어갈것을 권했다. 그 눈빛은 간절하였다. 거절했다간 죄를 만날것만 같았다.

《부문당비서동무, 잠깐 들어가보고 가시오.》

방안거둬새며 가구들을 둘러보던 장혁수는 한쪽벽 사진액틀앞에서 흠칫 굳어졌다.

(아니, 이런 우연도 있을수 있는가? !)

낮익은 얼굴, 잊을수 없는 얼굴이 액틀속에서 장혁수를 마주보며 웃고있었다. 소년 재남이와 유치원생 분이를 랑쪽 무릎에 앉히고 병긔 웃고있는 젊은 아버지였다.

그는 20여년전 소대장이였던 장혁수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겨준 광부 리대석이다.

세월의 이기속에 희미해졌던 허물이 뜻하지 않게 이 집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줄은 상상도 못한 장혁수다.

분이가 살그머니 장혁수옆으로 다가왔다.

《우리 아버지질 아시나요?》

장혁수는 침중한 표정속에 머리를 끄덕였다.

《우린 한소대에서 일했었다.》

《어마나, 그래요? !》

소녀는 가슴에 두손을 모아붙이며 감동했다. 그것이 크나큰 기쁨이고 자랑인듯했다.

장혁수가 당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광산에 가있을 때 그것도 때늦게 그의 사망소식을 들었었다.

조명구는 그 썩 후에야 광산에 온 사람이다.

어느새 방에서 빠져나간 분이는 고급술병이 명절의 주인공처럼 긴 목을 쳐들고 우뚝하니 서있는 소박한 음식상을 들여왔다.

조명구가 서둘러 상을 밀막았다.

《고맙다, 하지만 그럴새가 없구나.》

《암만 바빠두 그냥 가시면 어찌나요.》

소녀의 표정은 대번에 시무룩해졌다. 온도계의 수은주처럼 예민하게 변하는 감정이었다.

《누구든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해서 마련해둔것인데 설날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오빠가 저를 가만 두지 않을거예요. 맹추라구.》

장혁수가 조명구에게 아량있게 눈짓을 하였다. 그러자 조명구는 의아스레 쳐다보았다. 이미 들려온 집들에서 요란하게 상을 차리며 불들었지만 모두 사양하고 일어섰던 초급당비서였던것이다.

소녀는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하얀 앞잔에 술을 부었다. 술병을 받쳐든 작은 손이 가늘게 떨고 있다.

장혁수는 마음이 이상해졌다. 무척 성실했던 그의 아버지를 무시했었고, 오늘은 그 자식들에게도 역시 미처 눈길을 돌리지 못했는데 소녀는 지금 귀빈으로 맞이하고있다.

이 장혁수가 소녀의 아버지에게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울수 있는 일생의 기쁨을 놓쳐버리게 한 장본인이라는걸 안다면 술대신 뺨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

소녀의 순진한 마음처럼 맑은것이 흘러내렸다. 그 방울방울에 무언가 크나큰 기대와 믿음, 간절한 소망까지도 담겨있는것 같아 장혁수는 속이 무죽했다. 술술 넘어간다고 해서 술이라는 말도 있다지만 한모금도 안되는 맑은 액체가 무겁게 목에 매달리는것 같았다.

설음식치고는 크게 구미를 돋굴만큼 다양하거나 색다른것도 아니였지만 장혁수는 상에 오른 모든걸 골고루 맛보며 소녀를 칭찬하였다.

《분이의 숨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다음에 대단한 요리사도 될수 있겠다.》

소녀는 두손을 무릎에 포개었고 새물새물 웃었다.

《전 이제 오빠가 케는 쇠돌을 실어내는 전차공이 될래요.》

《전차공, 전 왜?》

《아버지가 계셨고 오빠가 일하는데 함께 있으면 아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좋을것 같아요.》

《그렇단말이지. 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이제 오누이혁신자가 되겠구나. 꼭 그렇게 되거라.》

재남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실리고 죄를 벗을길 없게 만들고 가버린 고인에 대한 애석한 감이가슴에 서려들수록 소녀에게 무엇이건 믿음과 기쁨을 주고싶었다.

상을 물린후 장혁수는 조명구에게 귀뜸해서 승용차 짐칸에서 과자통을 꺼내오게 했다.

《분이한테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았는데 세배값이라도 치려야 되잖겠소.》

그는 숨웃주머니를 뒤져 고운 그림엽서 한장을 꺼내서 이렇게 썼다.

미래의 전차공 분이에게

이해에도 공부를 잘해서 최우등생이 되거라.

우리 광산은 너의 희망, 너의 믿음을 받아들여줄것이리라...

초급당비서는 경험토론회 참가자명단에 다시 눈길을 두며 말했다.

《나는 분이를 만났던 그날부터 은근히 걱정을 했소. 소녀의 심정이 하도 절절하여 오빠의 일이 잘 될거라고 믿음을 주긴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로 되고 그에게 더 큰 실망을 주게 될가봐말이요. 현대 재남이가 그 근심을 덜어주었소. 그가 자기 실수를 만회하고 채광기를 성공시키는데서 주공을 담당수행하던 나날들이 바로 그랬소.》

그무렵 어느날 새벽이었다. 밀린 사무처리를 하려고 푸름푸름한 새벽에 사무실을 향해 마을을 벗어나던 장혁수는 뭔가 배낭을 지고 겁적겁적 걸어오는 재남이와 부딪쳤다.

《이 새벽에 어딜 갔다오나?》

재남인 좀 멧적어하며 얼른 대답을 안했다.

《혹시 어머니 병이 더 심한가?》

《아닙니다.》

《그럼?》

어쭙게 머뭇거리던 그는 재차 물어서야 특수재질소재를 구하려고 광산기계공장엘 갔었는데 일이 잘 맞아떨어지질 않아서 막차를 놓치고 걸어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건 60여리길인것이다.

《원 사람두 참, 일이 그렇게 됐으면 거기서 잠을 폭 자고 낮차로 올게지 이 목직한걸 지고 밤길을 걸을건 뭐냐.》

장혁수는 그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기며 애정을 담아 나무랐다.

《죄진놈이 언제 발퍼고 잘새가 있습니까.》

재남은 벌쭉 웃었다. 자신에 대한 자책이 담긴 표정이었다.

《그래 이번엔 자신이 있나?》

《말을 앞세우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심이 없으면 이렇게 힘이 나겠습니까.》 무척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재남의 주관적욕망을 두고 자고자대니, 자기 중심의 고집이니 하고 비판들이 오고갔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공명에 급급했다는 비난까지 하였다. 허지만 주눅이 들거나 주저앉지 않고 것처럼 배가로 분발하는 재남을 보게 되는것이 다행스럽고 대견했다.

장혁수의 머리속에는 문득 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것처럼 오빠에게 기대를 걸고있는 분이를 위해서도 재남이네 일이 어서 빨리 순조롭게 돼가기를 바라마지 않는 장혁수다.

이들 오누이의 모습이 장혁수의 머리속에 또 한번 진하게 찍혀진것은 얇은층 채광기가 조립단계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출장지에서 밤늦어 돌아오던 장혁수는 언제나 그런것처럼 채광행정청사로 먼저 차를 달리였다.

마치 거대한 삼태기를 런상케 하는 넓은 골안입구에 관문처럼 서있는 구호관이 불빛에 환히 드러

났다. 《…충효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이 튀어나올듯이 안겨들었다.

행정청사며 난장들에 거의 불이 꺼진 뒤였다. 드문드문 보이는 불빛들중에 유난히 밝은 창문 하나가 장혁수의 눈길을 끌었다.

풀안에 들어서자 첫타에 있는 기술혁신조성원들의 방이었다.

차에서 내린 장혁수는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발길이 제일 가까와서보다는 자석에 끌리듯 마음이 가는곳이었다. 문턱 가까이에 이른 그는 우뚝 멎어섰다.

방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소녀의 목소리였다. 귀에 익은 명랑한 어조다.

《오빠, 나두 지금 벌써 공장대학생이라면 좋겠어요.》

《건 왜?》

응글은 남자의 물음이다. 재남이었다.

《오빠를 도와줄수 있겠… 오빠가 지금 보는 기술한 기술자료들도 내가 뽑아주고, 그 도면도 그려주고 또 외국문헌들도 척척 번역해주면서, 오빠의 조수가 되면 오빠는 더 많은 창안들과 발명을 할것 이구, 그럼 오빠 청년광부박사가 될게 아니예요.》

《원 애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도 칭찬받구, 내 위신도 하늘만큼 높아지죠. 〈거 리대석이 저는 빨리 갔어도 아들 하나는 잘렀거든.〉 하고 허를 두를것이고 우리 처녀애들은 〈애 분이 오빠가 박사가 됐대. 청년광부박사가〉 하고 짹 소문을 낼게 아니예요… 호호호… 그리고 어머니 병도 더 빨리 나을거예요.》

소녀는 명랑하게 깔깔거렸다.

《계집애두 고작 생각한다는게 그거냐?》

핀잔이라기보다 애정에 가까운 어조다.

《음-내가 왜 그것밖에 몰라, 다 알아요.》

응석과 항거, 궁지가 뒤섞였다.

《오빠가 창안이랑 발명을 많이 해서 아버지 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면 더이상 좋다는거야 누가 몰라요. 그건 선참으로 내놓고말이에요.》

《오냐, 오냐, 우리 분이 누구라구.》

총알같이 쏘아대는 동생에게 손들었다는 투다.

《오빠, 이거나 빨리 잡수랴요, 오빠가 좋아하는 군만두예요.》

《저녁은 여기 식당에서 먹는다는걸 알면서 그건 왜 또 들고나오니, 내 이걸 마저 끝내고 들어갈테니 먼저 집에 가거라.》

《나 무서워서 혼자 못가.》

《오긴 어떻게 왔냐?》

《오빠한테 간다는 생각만하니까 무서운줄 몰랐지 뭐.》

《그럼 저기 긴의자에 가서 좀 자거라. 내 갈 때 깨울테니.》

《음, 그럼 나 오빠 방해하지 않을래.》

종다리같은 목소리는 사라졌다. 어째선지 아쉬웠다. 밤새 듣는데도 싫지 않을듯싶다. 조용해진 정적이다.

장혁수는 발소리를 죽여 불빛주위를 돌고돌았다.

따뜻이 주고받는 오누이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이 밤을 보내고있는가, 누가 시켜서, 누가 본다고… 저런 마음들을 더 받아들여주고 무엇이건 보태주고 아껴주지 못하는것만 같아 자신이 불만스러워지는 밤이었다.

《오빠.》

또다시 종다리같은 목소리가 지저귀었다.

《그 채광기가 언제면 다 되나요?》

《거진 돼간다.》

재남은 인차 조립에 들어간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러니까 오빠가 말은 부분이 제일 망쪼리가 아니예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는걸 보니.》

자못 걱정이 어렸다.

《걱정 말아. 사람이 심장이 든든해야 빨리 뛰고 멀리 뛸수 있는것처럼 기계도 심장부가 기본이거든. 오빠 지금 어떻게 하면 심장부분을 더 든든하게 보강할수 있을가 하고 탐색중이다.》

동생을 안심시키고싶어하는 진지한 어조다.

《그럼 나 래일부터 꽃다발 만들래.》

당금 노래라도 흘러나올듯한 소녀의 표정을 장혁수는 보는듯했다.

다시 조용해졌다.

잠시후 그 마당가에서는 승용차의 경적이 정적을 깨뜨렸다.

장혁수는 오누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

《그리고 재남이가 도중에 막장으로 들어간거야 조직적으로 취한 조치가 아니였소.》

조명구는 장혁수의 말을 침묵으로 긍정하였다.

그때 기술혁신조에서는 큰일들을 기본적으로 다 체진후였고 생산에서는 로력이 긴장해서 누구든 한사람 막장으로 들어갈것을 호소하자 재남이가 선참으로 나섰던것이다. 헌데 어떤 사람들은 재남이가 파오를 범하고 기술혁신조에 있을 면목이 없어서 나가버린것이라고 억측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조명구는 그런 말을 믿은것은 아니다.

장혁수는 책상우의 신문을 꺼당기며 계속했다.



《재남이가 이 신문에 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을 부리거나 손뼉을 놓을 청년은 물론 아니요. 또 이번 경험토론회에 못간다고 해서 그의 기술수준발전에 큰 장애가 있을것도 아니요. 하지만 그의 녀동생 분이는 다르오. 그가 이 신문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컸겠소.》

듣고보니 조명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갔다. 벌써부터 꽃다발을 만들겠다고 했다는 소녀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소녀의 것처럼 절절한 소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책임을 져야 하오.》

장혁수는 조명구가 아니라 자신을 책망하듯 미간을 찌프리며 낯빛을 흐리었다.

조명구는 고개를 숙였다. 송구스러웠다.

초급당비서는 침중하게 긴말을 했다.

금년 설날 분이가 우릴 보고 왜 그렇게 기뻐하며 아이답지 않게 환대를 했겠는가. 자기네들의 미래를 의탁하려는 믿음의 표시이다. 현대 우리는 돌아다보지도 않은셈이다.

또한 분이가 아니라도 재남에 대한 평가는 옳게 해야 한다. 재남이가 기술혁신조에 차례질 그 어떤 평가에 대해서 타산을 했다면 막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에 대해 방임할 권리가 없다.

실사 다른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에 대해 잘못볼 수도 있고 무관심할수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일 군들은 그래서는 안된다. 진가를 바로 보고 매 사람의 심리정서까지도 놓쳐서는 안된다.

장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집을 지고 창가로 돌아섰다. 이윽도록 서있던 그는 다시 조명구를 향해 돌아섰다.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한 때가 있었소.》

《?! ...》

초급당비서의 눈길엔 뭔가 회억의 빛이 어리었다.

《이 광산굴안이 떠나갈듯한 만세의 환호속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셨던 일이 어제같은데 그게 벌써 10여년전 일ियो.

그때 3대혁명붉은기시대 정취운동에서 모범이었던 우리 소대는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협의회를 가지게 되는 무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소. 세포를 책임졌던 나는 너무도 엄청난 행복감에 휩싸여 어쩔줄 모르고 흥분에 들떠있었소. 소대원들중에 누가 그자리에 빠졌는가 하는것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소. 그것을 생각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돌아가신후였소.

그때 우리 갱의 어느 한 편도에서 뜻밖에도 석수가 터져서 그 물을 뽑는 양수기를 보는데 한사람

씩 교대를 서게 되었는데 그날 바로 재남의 아버지 리대석이가 걸렸던거요. 소대장이나 내가 관심만 돌렸으면 다른 소대사람으로 얼마든지 교대시킬수 있었던거요. 나는 너무도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를 마주볼수가 없었소. 그러자 오히려 그가 대범하게 나왔소.

《세포비서동무, 뭘 그러오. 나도 사실 처음엔 우리 소대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참지 못하겠더군요. 안절부절로 걸음을 내짚었다들여짚었다 하다가 예라 양수기는 좀 혼자 돌아가라지 하고 냅다 뛰어나오드렸소.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소. 내가 무슨짓을 하는가. 혹시 양수기에서 무슨 사고라도 생겨서 소동이 일어난다면 수령님께서 잠시나마 안정을 잃으실게 아닌가. 이게 무슨 수령님을 모시는 당원의 자세이겠는가. 다행히 이런 생각이 떠올라 돌아섰던거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군요.》

사실상 그때 그가 그 자리를 비웠다 해도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거요. 하지만 그는 자기 초소를 그냥 지키고있었소. 그럴수록 그 성실하고 량심적인 사람을 무시해버렸다는 죄의식이 나를 괴롭혔소. 그때 누가 날더러 대석동무를 교대시키지 않았다고 추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소. 하지만 나는 일생에 단 한번도 쉽게 차례질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그에게서 빼앗아버린것 같아 절로 골살이 찌프러졌소. 나는 집에 가서도 침울한 기분을 숨기지 못했소.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고 묻기까지 했소. 그래서 나는 모든 사연을 다 말씀드렸소.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눈빛을 흐리시며 말씀하셨소.

《세포비서라면 소대의 어머니나 같은데 어머니 구실을 잘못했구나.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것이 없듯이 어머니는 아무리 자식이 많다 해도 어느 누구도 소홀하지 않는다. 더구나 눈앞에 있는 자식보다 곁에 없는 자식에 대해 더 생각이 가기마련이다. 곁에서 잠자는 자식의 뭇은 없어도 밖에 나간 자식의 뭇은 있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거라고 생각한다. 네가 진정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소대원들을 대하지 못했으니깐 그가 네 마음속에 없었고 그러니까 데려올 생각도 못했었구나... 네가 그걸 참말로 피로와하는걸 보니 그래도 사람구실을 할것 같다. 제 동무를 아프게 하고 남한테 한을 주고도 속태울줄 모른다면 그건 벌써 사람됨기를 그만둔 속물이지.》 ... 우리 어머니님 여러 자식을 키운 극히 평범한 녀인이었소.

어머니의 그 말씀은 그후 당학교를 거쳐 전문당 일군이 된 나의 사업을 지켜보며 늘 일깨워주었소.》

조명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부문당비서로 선거받던 날 초급당비서가 하던 말을 다시금 듣는 듯했다.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매사에 깊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던 그 말의 참 뜻을 조명구는 너무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듯싶었다.

《명구동무, 광구장이나 일꾼들이 추천한 이 명단을 두고 내가 왜 부문당비서를 불러놓고 말하는지 알겠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무심히 흘릴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바로 당일군이기 때문이요. 분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오.》

조명구는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찾았다.

분이는 오빠가 신문엔 못났어도 경험토론회에는 꼭 가리라고 믿을 것이다. 정성껏 만들어놓았던 꽃다발을 안겨주며 부탁한다. 《오빠, 많이 배우고 오라요. 나한테 평양애기랑 들려주려면 잘 보고와야 해요.》 하고 말한다. 어쩌면 그 까만 눈에 감동의 이슬이 고여오를지도 모른다.

《지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사회적인 심각한 불행이나 큰 걱정거리가 없는 오늘날 우리 당일군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소. 어머니 우리 당은 모든 자식들의 가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그늘이라도 미리 막아주고 기쁨과 행복만을 안겨주려고 애쓰고 있소.》

조명구는 은연중 속으로 놀랐다. 당의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결국은 그 다심한 사랑을 방해하고있는셈이 아닌가.

《이번까지 재남일 빼놓으면 그들의 가슴엔 뭐가 남겠소?》

크나큰 실망과 더는 우리를 믿지 않으려는 불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외면일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전차공을 잃게 된다. 전차공 한 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분이를 잃게 된다.

재남이 역시 말은 안해도 좋다고 할리는 만무하다. 일심단결의 기초에 실금을 만들고있지 않는가? ! ... 따져들어갈수록 파렬구는 커지고있지 않는가. 마치 총알이 들어간 자리는 크지 않지만 원심작용으로 터쳐나간 자리는 나팔주둥이처럼 넓어지듯이,

왜 이런 바보짓을 했는가, 실수?... 무책임?... 압단?... 경험부족?... 이 모든것을 낳게 한 근본이 무엇인가?

조명구는 문득 귀를 기울였다. 평범한 녀인이었다는 그 어머니가 다시금 속삭여주는 듯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것이 없듯이...결에서 자는 자식의 뭍은 없어도 나간 자식의 뭍은 있다...흔히 들어왔던 이 말의 심원한 뜻을 조명구는 자기의 심혼으로 만들지 못했고 체질화시키지 못했다.

제 동무를 아프게 하고 남한테 한을 남겨주고도 피로와할줄 모른다면 인간되기를 그만둔 속물이지... 평범한 녀인이지만 얼마나 현명하고 훌륭한 어머니인가.

가령 동지를 짓밟아놓고도 고개를 쳐들고 희희낙락한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울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자별한 오누이를 밀어버리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도 못한 조명구가 아닌가.

초급당비서는 조명구의 표정에서 모든 대답을 읽었는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해빛이 함뿍 내려앉은 창밖에 시선을 주고있었다.

창밖으로는 광산의 거대한 《지붕》인 높고 낮은 산봉우리와 멀고 가까운 골짜기들이 안겨들었다. 그 《지붕》에는 겨울과 봄이 함께 나란히 있었다. 푸른 기운이 돌듯싶은 야산등성이 있는가 하면 흰눈무지에 덮인 깊은 골짜기도 있다.

조명구는 어쩐지 그 얼룩덜룩한 풍경에서 아직 당일군다운 체모를 갖추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허나 머지 않아 모든것은 변할 것이다. 풍경도 사람도 하나의 일색으로,

해빛은 여전히 거대한 《지붕》 위에 눈부시게 내려앉는다.

이윽고 초급당비서는 조명구를 돌아보았다.

《이보우 명구동무.》

그는 친구를 부르듯했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의도를 받들고 그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 일꾼들이 어머니의 웅심깊고 다심한 넋을 자기의 심혼으로 만들지 않고서야 되겠소. 동무나 나나 우리는 당의 해발이 되어야 한다는걸 명심하기로.》

《알았습니다. 비서동지.》

조명구는 절도있게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걸음으로 장혁수의 책상앞으로 다가가 기술혁신자들의 명단에 리재남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 따르는 마음

-나의 일기시첩 중에서-

백하

### 나이를 세여본다

나는 나이를 세여본다  
마흔여덟 ...  
새삼스레 그 수자를 세여보고  
다시 조용히 새겨본다

나는 나이를 세여본다  
오래동안 세여보지 않던 나이  
어제도 오늘도  
때없이 세여본다

나를 따사로이 한품에 안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가슴속엔 영원히 샘솟는  
기쁨의 샘을 주신 위대한 은인

자애로운 아버지  
친애하는 그이  
살뜰히 나를 보살펴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나는 나이를 세여본다  
그 은덕에 보답할 세월은 그 얼마?  
내 이제 몇십년을  
충성으로 수놓아갈수 있는가고?

천년을 갚아도 못다갚을 그 은혜  
내 과연 그 얼마동안이나  
애쓰고 모대기고 불타며  
위훈의 삶을 꽃피울수 있는가고?

나는 나이를 세여본다  
아니 한초한초를 세여본다  
세월이여, 다시는 나의 앞으로  
한순간도 헛되이 흐르지 못하리라

그이를 그리며  
한초를 보내고  
그이의 뜻을 빛내이며  
한초를 보내리라

아, 나는  
친애하는 그이의 품에 안겨  
참된 삶의 길을 다시 시작하누나  
내 진정으로 지각이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제 나이를 세일수 있으리

충성의 나이를!  
충성의 나이를!

### 믿음

내 너를 소중히  
가슴에 새겨안고  
삶의 길을 걸어왔노라  
그 믿음 한가닥이 흩어져도  
나의 생이 꺼지려니

목숨처럼 너를 부여잡고  
한걸음도 헛짚을세라  
자옥마다 뚫는 피 쏟으며  
한생의 언덕을 뚫아왔노라

나에게 삶의 보람을 준 너  
나에게 인생의 환희를 준 너

이 몸을 굳게 안아  
가는 바람 오는 바람 다 막아준  
오, 친애하는 그이의 믿음이여

너를 잃으면 나의 숨결이 멎고  
너를 버리면 죽음의 나락으로  
내 던져지려니  
믿음이여  
친애하는 그이의 믿음이여  
내 심장이 멎는다 해도  
너만은 영생의 기폭으로  
내 높이 추켜들리라

## 매혹된 마음

끝없이 매혹되어  
따라온 길이기엔  
높은 령도 낮았노라  
깊은 강도 알았노라

그 놀라운 예지 하늘에 닿고  
그 절출한 사상 누리를 밝혀  
날에 날마다 매혹된 마음  
들에 가도 그 감격을 새겼노라  
산에 올라도 그 자량을 터쳤노라

받들어 다함없는  
세기의 위인 **김정일** 동지  
그 품속에 태어나  
그 슬하에 사는 이 행복

이 마음 이끌리는 감격  
희열로 터치고  
이 마음 한가닥 쏠리면 시가 된다  
이 마음 통채로 쏟으면  
효성이 불이 되어 끓으리

## 자정도 넘은 그밤에

은근한 노래는 가슴을 휘젓고  
가극의 장면은 흐르건만  
못잊을 추억을 불러내며  
눈앞엔 어려오누나, 다른 화면이...

대동강의 밤안개  
창밖에 자욱히 흐르던 밤  
자정도 꺾 넘어  
시연회를 마친  
대극장의 그밤, 그 휴계실

심려를 끼쳐드린 죄스러움에  
머리도 못들고 썼는데  
새 가극이 쉽게 나오겠는가  
오히려 따뜻이 위로하시던  
한없이 자애로운 친애하는 그이

막혔던 매듭들을  
손수 환히 풀어주시며  
새 가극의 화폭과 화폭들을  
하나하나 뚜렷이 펼쳐주시던  
그 거룩한 영상  
그 격동의 순간

못잊어라, 못잊어라  
그러시고도 가실 때에는  
나의 손도 힘껏 쥐시고  
다시 혼드시며

꼭 성공을 바란다니던  
그때의 그 믿음어린 눈길  
그 자애넘친 음성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맥박이  
그대로 나의 온몸에, 한가슴에  
툭툭 소리치며 맥박쳐올 때  
그때의 그 목메임  
몸에 겨운 그 영광

아 이분을 위해  
내 한생을 고이 바치리라  
이렇듯 위대한분을 위해  
내 한목숨도 기꺼이 바치리라  
굳게 다짐하던 그 순간이여

못잊을 대극장의  
행복넘친 그밤  
자정도 넘은 그밤이  
오늘도 생생히 떠오르누나

세월은 멀리 흘러갔건만  
그밤은 내 가슴에서 흘러가지 않아라  
그렇노라, 내 한생  
그밤의 그 주단우에 서있으리  
그밤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리

## 향도봉우에서

내 나이 어느덧 예순  
멀리도 걸어온 내 삶의 행로  
친애하는 그이앞에 총화를 짓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출발을 하려  
내 향도봉마루에 섰노라

굽어보면 저 구름봉들밑에  
내 걸어온 생의 자욱들  
그 어느 한자욱인들  
아버이 손길 미치지 않은곳 있으랴  
한없는 은정 깃들지 않은곳 있으랴

너무도 철이 없어 애를 태우던 몸  
흰 머리를 엮고서야 철이 들어  
아버이뜻을 만리에 꽃피우려  
결심품고 이 령마루에 섰노라

내 이제 새로운 투쟁의 길을 떠나며  
누리를 비치는 파아란 호수우에  
한가슴 열어제끼고  
조용히 눈을 감아 천지에 묻노니

말해다오, 하늘의 거울 천지여  
내 비록 보답의 길은 못걸었어도  
따르는 길에 흔들린 자욱 있었던가

모시는 마음에 한점 티라도 있었던가  
친애하는 그이의 전사는  
천번을 꺾어 굽힘을 모르나니  
내 다시 광풍속에 걸어갈 길  
만일 한순간의 주저라도 있을수 있다면

폭풍이여, 백두산의 폭풍이여  
아슬한 벼랑끝에 선 이 몸  
차라리 한점 티끌로 흘날려버려다오  
아득한 저 공간에 영영 자취도 없이

내 엄숙히  
천지에 묻고 폭풍에 묻고  
신념과 공지에 넘쳐 눈을 뜨노니  
친애하는 그이의 품에 자란 몸  
내 이제 갈길 결코 부끄러움 없으리

내 다시 첫자욱을 옮기노라  
향도봉에서 첫자욱 옮기노라  
내 지나온 생을  
오직 친애하는 그이께 바쳤으니  
내 이제 걸어갈 삶도  
위대한 아버지께 고이 바치리

## 기쁨만을 드리리 외 1편

최인덕

어제날에 품은 생각  
오늘에도 변함없고  
낮에 하던 생각 꿈에도 이어지는  
그런 생각 나에게 있어라

이 순간에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 무슨 심려를 안으시고  
우리 구역을 돌아보고계시지 않는지

하여 내 서둘러  
일터에 들어서면  
가슴 뜨거운 사연 나를 맞아주더라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그이께서  
우리 구역 공장의 사업에 대하여  
달리는 차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그런 날 그런 순간이면

내 감격에 목메었노라  
그이께서 달리는 차안에서  
우리 구역의 사업을 심려해주신  
그 뜨거운 자욱자욱에 마음 따라세우며  
편히 다녀오시기를 바라며...

소낙비 창을 두드리는 깊은 밤  
내 대동강제방쪽으로 달려간적 그 얼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장마비 맞으시며  
불어나는 강물의 수위 가늠하시려  
제방우로 걸으실것만 같아

그런 밤이면  
눈물에 젖은 제방감시원  
목메여 나에게 말해주더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당중앙의 한 일군이  
방금 제방을 돌아보고갔다고

그런 밤 수십수백밤  
죄책의 눈물 마음적시며  
밤잠 이루지 못했어라  
이 순간도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들의 생각에 잠 못이루고계실  
그이의 집무실창가의 불빛이 어려와

내 다시는 그이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으리라  
마음 다잡는 그 순간조차 그이께서  
우리 구역의 공장들과 가정을 돌아보고 가신듯  
내려지는 사랑과 뜨거운 심려

온 나라 인민을 돌보시는 그이  
순간을 해와 달로 아껴쓰시는 그이께서  
우리 구역의 일로 하여  
더는 심려하지 않게 맹세다지며

사무실에 모신 그이의 영상 우리르니

아! 이 순간도 그이께서는  
바쁘신 일 뒤로 미루시고  
우리 구역의 사업을 두시고  
어버이수령님과 사업토의 하시는듯  
일감을 들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이여!

맹세합니다  
어제날 그이께서 찾으신  
심려의 한자옥 한자옥을  
기쁨의 천리 만리로 늘어갈 맹세  
그이께서 남기신 심려의 순간순간을  
무궁한 기쁨의 세월로 이어갈 맹세  
충성의 맹세를 삼가 드립니다

## 현실은 대학이었습니다

-한달간 현지 세포생활체험을 두고-

나의 일터는  
구역의 상하수도사업소  
구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크고작은 배관들이  
얼기설기 쌓여있는 일터랍니다

나의 당세포는  
전화의 포화속에서 화선입당한  
오랜 당원도 있고  
갓 살림을 시작한 제대군인과  
열명식술의 맡으며느리도 있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해  
속을 툭 터놓지 못하고  
당생활총화할 때면  
구역당책임비서의 사무실처럼  
얼굴에 홍조만 피우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지하망에 들어가  
터진 배관도 함께 수리하고  
새로 지은 살림집 수도도 놓아주며  
당정책도 알기 쉽게 해설해주니  
마음이 그렇게 빨리 통할줄 몰랐습니다

새로 지은 김치공장  
물보장문제를 두고 토론할 때  
서로 앞다투어 하는 말이 미덥습니다  
물은 땅속에서 솟는 샘이 아니라  
마음을려과한 진정이란 그 말이

그리고 물은 수원지에서 아니라  
그네들의 가슴속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녕 물이야말로  
천길 지심에서 솟는 샘이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속에서 솟는 진정의 샘인줄...

그리도 티없는 진정의 마음  
내 어느 시구절에서도 본적 없습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노동자들속에 들어가 배우라고 하신  
그 참뜻의 메아리였습니다

작업반의 사무실과  
나의 사무실문이 마주 열려있고  
작업반 당세포비서의 사업일지와  
나의 사업일지 나란히 함께 있게 해주신  
심원한 가르치심 두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졸업증 없는 대학이었고  
현실속에서 일하는 그들은  
교단없는 선생이였기에  
나는 또하나의 대학을 나온듯싶습니다

아, 뿌리없는 나무 생각할수 없듯이  
세포가 건전해야 육체에 생기가 넘치듯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가  
바로 이렇게 마련되었기에  
우리 당이 위력함을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 충성과 효성에 대한 생각 외 1편

리석

받아안은 믿음이 클수록  
마음속에 움트는 하나의 생각  
친애하는 그이께  
이 세상에 없는 열매를 익혀  
기쁨만 드리고싶은 마음뿐

안겨 주시는 그이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하랴  
자나깨나 이 생각  
이 생각으로 날이 가고 달이 흐르고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름다운 소행들이  
마치 이 땅에 들꽃처럼 피어나  
그윽한 향기 풍기는것을

남편은 당일군이여도  
안해가 신발수리공으로  
한생을 바치는 그 마음의 꽃은  
이 땅에 얼마나 그윽한 향기 남겼던가

터지는 수류탄 몸으로 막아  
순간에 한몸은 흩어져도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 보위한  
애젊은 그 병사가 이 심장에 말하는  
그 의리 그 신념

아, 충성이란 말  
효성이란 말  
언제나 가슴속에 울려  
내 한몸 다바칠

그 한생각

은혜로운 사랑의 그 해빛이  
비치고 비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무슨 꽃인들 안필수 있으랴

그이만 계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새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져도 새땅이 솟구친다는  
그 신념이 맥박치는  
나의 이 심장

아,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주시는  
우리의 향도성  
친애하는 그이와 함께라면  
길아닌 길도 광활하게 열고  
천길막장속에서도 푸른 하늘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쉽게 말하지 말자  
무심히 이야기하지 말자  
충성이란 말  
효성이란 말

그 마음  
친애하는 그이를 위해서는  
땅도 바다로 만들고  
값높은 위훈을 창조할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삶의 가장 큰 영예여라

## 보 약

온종일 사무실의자에 앉아  
전화도 많이 걸었더라  
1 호갱의 책임기사  
당위원장 오라고  
수직갱 착암공 최동무도 불렀더라

바쁜 일 멈추고  
찾아온 그들을  
수고한다며 손잡아주며  
어려운 일을 두고 걱정도 했건만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가  
쇠돌은 그만큼 캐지 못했고  
실적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작업복 펼쳐입고  
막장의 동무들 찾아갔더니

저저마다 머리숙여 인사도 하며  
오늘계획은 두배가 문제없다고  
싱글벙글 즐겁게 웃기도 하더라

당일군 그대가 막장에 들어가니  
더 많은 쇠돌이 쏟아져 좋아  
막장의 웃음소리 높아져 좋아  
저마다 손잡아 오라고 이끄니  
인심이 후해서 그것도 좋아

아, 그것이 아닌가  
당일군이 한생  
써야 할 보약은  
군중속에 들어가는 이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그대에게는 없더라

# 사회주의신념

최승철

들린다 세월이 달리는 소리  
소란스레 저물어가는 20 세기여  
너는 무엇을 보배로 남기고  
무엇을 버력으로 버리려는가  
참과 거짓이, 미와 추악이  
뒤엉켜 싸우는 세계를 돌아보니  
가슴 뭉클 솟구치는 생각  
우리가 옳았다  
주체사회주의가 옳았다 !

아무렴 백두산혈맥이 뛰는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갈을 수 없다  
거기선 고아로 떨어진 인민의 머리 위에  
자본의 후리그물 쏟아져내려도  
여기선 사회주의파원이 향기를 날리며  
가슴마다 사랑의 열매 뿌려주도다  
거기선 실업자들 음달에 얼어붙고  
타락한 인생들 돈에 넋을 팔아도  
여기선 주체의 신념에 순결한 겨레들  
창조물로 뜨거운 정을 고백하며  
행복의 층계를 오르고오르도다

자랑하노라  
조선로동당이 운명을 걸고 들어올린  
으뜸가는 삶의 터전 주체사회주의여  
너는 발악하는 원썩도, 사기군의 유혹도  
발밑에 굽어보는 조선의 기상  
너는 사람마다  
서로 받들어 받들리우고  
서로 베풀어  
서로 받아 누리는 사랑의 대가정  
너는 막돌인생도 보석처럼 빛내여주고  
죽음에도 영생을 열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너는 변혁의 한길에  
오를수록 명승인 자주 의 새 세상

내 아무리 겸손하여도  
가슴펴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 나라의 천만가지 재부를 가졌으니  
재벌들따위 어리광대갈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끝끝한 동지이니  
나와 겨룰 자 어디 나서보라  
거창한 창조물들 수풀처럼 세운 우리  
감사나운 자연에도 굴레를 얹어  
준마처럼 타고 달리노라  
주체의 광명으로 다듬어진 심장은  
자주의 장엄한 우주 안고  
위훈의 갈망에 터질 듯 고동치나니

진정 사회주의가 없었다면  
맨발의 코흘리개 새까만 아이가  
오늘은 보란 듯 하늘 높이 살림을 펴고  
훈장 가득 어깨를 으쓱거리며  
의사당에 들어설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가 없다면  
벌나비 꽃을 찾듯 온갖 혜택이  
가슴마다 그득히 안겨질 수 있겠는가  
종달새 푸른 하늘 치솟아오르며  
저리도 신나게 노래할 수 있겠는가

아,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풍랑세찬 오랜 세월 로고를 다바쳐 쌓아오신  
인간애의 신성한 결정체여  
20 세기의 최대의 기적인  
우리 사회주의여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통일체우에  
날개 편 주체사회주의여  
너다, 인간자주의 유일한 증서는 !  
너다, 만물위에 사람있고  
사람아래 사람없는 인민의 락원은 !

세상엔 너와 견줄 광명이 없나니  
부르조아문명따위 명함도 내지 말라  
악바리 제국주의여  
약육강식의 악취나는 짐승풍속을  
감히 누구에게 강요하는가  
된벼락 맞기전에 멀찍이 물러가라

기억하라  
사람이 하늘에 머리들고 사는 한  
사회주의는 기어이 시련을 이겨내고  
온 세계에 푸르려 무성하리라  
사회주의는 짐승을 굽어보는 인간이기에  
본능을 다스리는 이성이기에  
사회주의는 아름다워 정의이기에  
진리여서 위력하고 불멸하기에  
승리하리 인민을 영웅으로 키워낸  
조선로동당이 앞장에 서있기에 !

내 조선의 공지와 신념을 모아  
세계에 웨치노라  
인간세상에 영원한 것 세가지 있으니  
이는 은혜로운 주체의 태양 !  
이는 혁명을 이끄는 어머니당  
이는 인간자주의 장엄한 노래여라

(1992. 12. 2)



## 첫 소조원의 모습앞에서

신경애

얼마전에 나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지식인들에게 돌려준 당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는 방들을 돌아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멈추었다.

그 방에는 해방전 식민지인테리의 민족적차별과 멸시를 받아오던 오랜 지식인들이 해방후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자료들과 매 사람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과학연구부문의 저명한 교수, 박사들의 사진들을 훑어나가던 나는 우연히 젊은 새 세대 대학생의 모습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검실검실한 두눈에 지혜와 정열이 불타는듯한 애젊은 25살의 저 청년, 그는 김박명이었다.

3대혁명소조원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는 대뜸 그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광산에 파견되었던 첫 3대혁명소조원이었다는것을 기억해냈다.

세월이 흐르느라면 모든것이 삭막해지기 마련이듯이 나도 3대혁명소조기간에 내 심장을 울리었던 김박명의 이름을 가뭇 잊어버리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 혁명박물관에서 그의 모습을 다시 볼줄은 몰랐다.

나는 오래오래 인상깊은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김박명소조원동무!》

이때 속삭이듯 조용하면서도 절절한 음성이 내 등뒤에서 들려왔다. 순간 뜨거운것이 몽클 솟구치며 가슴을 지지였다. 후더워오는 눈길을 들어 돌아보니 환갑을 바라보는 머리 희끗희끗한 아버지가 물기어린 눈으로 그의 사진을 훑어질듯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팔을 부여잡으며 웨치듯이 물었다.

《아니, 아버지... 저기 저 사진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나의 생각깊은 눈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머리를 끄떡이며 말했다.

《예. 알구말구요. 우리 광산의 첫 3대혁명소조원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혁명박물관에서 그의 옛모습을 보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첫 3대혁명소조원!

이렇게 서두를 때면서도 아버지는 그와 함께 지냈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돌이키는지 추연한 눈길을 그에게서 떼지 못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73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의 수준이 발전하는 사회

주의현실에 따라서지 못해 기업관리를 개선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였다.

아직은 정치실무수준도 어리고 사회생활경험도 없는 새 세대 청년대학생들은 자기들을 부르시여 3대혁명소조원의 고귀한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드높은 충성으로 보답할 백배의 결의를 안고 말은 단위로 떠나갔다.

《그가 1973년부터 우리 광산에서 소조원으로 일했는데 깨끗한 생을 마칠 때까지의 1년 5개월밖에 안되는 길지 않은 나날들은 모두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날들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20여년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우리 광산사람들은 박명소조원을 <우리 소조원>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소조원! 이 얼마나 친근하고 간격없는 다정한 부름인가.

나의 소생활경험을 보아도 3대혁명소조원이라고 하여 누구나 다 대중으로부터 그렇게 정겹게 불리워지기는 쉽지 않는 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직위보다 그 인간됨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따르게 되는것이 아닌가.

크지 않은 보통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띄약벌에 언제 한번 타보지 못한듯한 해말쑥한 얼굴에 수집음도 곧잘 타던 그, 이런 그가 광산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어왔을 때 광부들은 당에서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이라는 인식보다 책상물림에서 갓 벗어난 애송이 대학생청년으로밖에 보지 않았단한다. 그러던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그를 두고 《우리 소조원》이라고 부른다니...

아버지는 나에게서 그에 대한 호기심을 엿보았는지 자기 아들의 자랑이나 하듯이 갖가지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들려주는것 이었다.

광산에 온 첫날부터 하루도 쉬없이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보위하여 왔다는 이야기, 광부들과 허물없이 웃고 일하면서 3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정상화에 기여한 이야기며 유해로동을 없앨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추진식착암기를 분무흡착식착암기로 개조하던 나날들의 사연많은 이야기들.

어느날 광산실태를 료해하던 그는 착암기로 구멍뚫을 때 생기는 먼지로 인해 갱안의 공기가 맑지 못하다는것을 포착하고 모두가 소홀히 하는 이 문제를 자기의 기술혁신과제로 제기하였었다.

그러나 일꾼들은 깊고깊은 갯안에 흐르는 공기이니 허용한계가 있을수 있다고 하면서 그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일꾼들을 타이르며 했던 김박명의 말은 참으로 뜨거워 지금까지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허용한계라구요?

물론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먼지를 더 없앨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한단말입니까!

우리의 량심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뜨거운 량심을 안은 인간이었기에 멀리 호실에서 막장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으로 달려와 서슴없이 불이 붙는속으로 뛰어든것이 아닌가.

그는 그 위급한 첫 순간에 권양실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먼저 생각했고 막장에 있던 술한 로동자들의 생명을 생각하였다.

알길이 구만리라고 창창한 미래가 활짝 열려져 있는 그가 짧은 한순간에 자기만을 생각하며 주저했다라면 어머니가 준 자신의 육체적생명은 구원할수도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 하나의 생명과 드넓게 펼쳐진 희망찬 앞길은 전혀 생각지 않았었다.

오직 이역땅에 태어나 천대와 멸시 속에 설음만을 안고 자란 자기를 따듯이 안아키워주고 어엿한 3대혁명전위로 내세워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충성의 열정만을 안고살았기에 자그마한 사심과 동요도 없이 세찬 불길속에 서슴없이 몸을 내던졌이였다.

그의 이 소행을 보고반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자식으로서 웅당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전에 그토록 바라면서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소원을 헤아리시여 그에게 조선로동당원증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고 사회주의애국렬사라는 값높은 칭호와 함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명예당원으로 등록할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전진하는 대오에 함께 서라고 혁명선렬들과 함께 그를 혁명박물관에 세워주시였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에게만 돌려준 당의 사랑이라고만 하랴.

어린 청년대학생들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으랴만 3대혁명소조원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못내 대견해하시며 금별메달도 달아주시고 영광의 대회장에도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런 사랑, 이런 믿음 속에서 3대혁명전위들의 대오는 날로 백배해지고 그들이 있는곳마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것이 아니던가.

나는 이런 유명무명의 수많은 인간들을 세상에 이름높은 영웅으로 키워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젖어 뜨거워오는 눈길로 혁명박물관에 전시된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금 새삼스레 돌아보았다.

이제는 자기들이 쌓은 공적을 아는듯 잊은듯 흐르는 세월속에 고이 잠들고있을 그들이지만 이 순간엔 그들이 우리 새 세대청년들에게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영원히 변함없는 길로만 곧추 가라고 웨치는것 같았다.

《소조원동문 죽지 않았수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지 않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취해 깊은 생각을 더듬어가던 나는 갈린듯한 아바이의 목소리를 듣고 사색에서 깨어났다.

《여기 와서 소조원동문 만나고보니 그가 하던 이야기들이 가슴저리게 안겨오는군요.

그는 늘 누구나 일할 걱정, 먹을 걱정, 공부할 걱정,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이 없는 고마운 우리 제도를 위해 더 힘껏 일하자고 입버릇처럼 외우곤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웅당 할수 있는 격식화된 말로 생각하면서 귀맛 좋게 들어왔지요. 우리들이야 너무도 고마운 당의 사랑에 도취되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값비싼 소조원의 희생앞에서 왜 그가 고마운 우리 제도, 고마운 우리 제도라고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았수다. 그때에 나에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이 든다고 하던 성구가 떠오르더군요.

이젠 내가 우리 광부들에게 소조원을 대신해서 그 말을 하군하지요.》

진정을 담아 하는 그의 말이였다.

《고마운 우리 제도!》

나역시 그의 말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되뇌여보았다.

그러자 정말 내가 나서 20여년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근심걱정을 해보았던가 하는 새삼스런 생각이 갈마들며 가슴이 뭉클해왔다.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빛내여주는 은혜로운 태양, 그 태양 우리러 충성의 궤도를 돌고도는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정녕 이 땅은 위대한 태양을 따라 일심단결의 대오로 굳게 뭉쳐나가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꽃피어 나아가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향도의 태양이 우리의 머리우에 빛나는 한 우리의 앞길 막을자 세상에 없고 그 품에 안겨사는 인민들은 순간순간의 삶을 이 김박명소조원처럼 참답게 이어가리라.

나는 여기 혁명박물관에서 받아안은 힘과 용기로 하여 자신이 더더욱 억세여지고 마음의 키가 훌쩍 커진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아안으며 아바이와 함께 문을 나섰다.

## 만풍년을 안고 사는 사람들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아서-

림길명

지금은 잎떨어진 나무가지에 서리꽃 피는 계절이다. 그러나 여기 홍남사람들은 낱알향기 풍기는 가을에 산다. 그들이 바로 만풍년의 비료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는것이다.

비료는 곧 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지금 하고있는 화학비료공장의 생산능력확장공사와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새 비료공장 건설을 빨리 끝내고 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3 요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비료공장 설비보수보강사업을 짧은 기일에 와닥닥 끝낸 홍남의 로동계급들이 새 시비년도 비료증산의 동음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의 길을 떠났었다.

### 구내길에서

홍남비료련합기업소정문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아버지수령님께서 하조장의 눈같이 하얀 비료를 한줌 쥐여드시고 로동자들을 고무격려하시는 대형유화부터 보게 된다.

보면 볼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화폭이다.

금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시는것만 같은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노라면 가슴이 설레이고 로동자들이 생산한 비료 한줌을 귀중히 여기시며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라고 하시는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귀가에 울려오는것 같다.

감격에 젖으채 잠시 유화앞에 굳어진 우리에게 사관장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사람들은 출근할 때마다 이 유화앞에서 마음속 가까이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뵙군한답니다. 그리고 그이께서 드신 한줌의 비료를 가슴들에 받아안고 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출근자들에게로 쏠려였다.

정문은 평장하였다.

씩씩한 혁명가요를 우람차게 울리는 방송차, 꽃다발과 오색기를 흔드는 기동선전대처녀들, 그 한복판으로 대하처럼 흐르는 로동자행렬, 구리빛 열

굴들에 넘치는 희열과 신심... 유화속에 모신 우리수령님께서 합성탑로대에서 그들을 고무격려하시는데만 같았다.

문득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고 불면불휴의 수고를 하시는 수령님께서 이 아침 홍남의 로동계급을 찾아오시였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수령님! 비료는 걱정마십시오!...》

마음속으로 굳은 맹세 다지며 하루의 로동을 시작하는 홍남의 로동계급들, 그 가슴들에 안고 가는 한줌의 비료가 일터마다에서 폭포로 쏟아지는것이 아니라.

지심을 쿵쿵 울리는 대형압축기들의 요란한 동음, 증기소리, 차판마다 비료를 가득 싣고 하조장을 나서는 기관차의 기적소리... 그 청다운 음향들이 어서 오라 우리를 부르고있었다.

아득히 넓은 구내 어디부터 갈것인가. 불꽃튀는 현장마다에서 쏟아지는 비료를 보고싶은 마음 우리의 발걸음을 성급하게 하였다.

### 로공들의 눈빛

우리가 처음 찾아간곳은 증기 뿔양게 서린 무연탄가스발생로직장이였다.

두줄로 주련이 늘어선 대형로들이 불을 태우고 있었다. 송풍기소리, 증기소리, 이글거리는 화염이 우리를 어안이 빙빙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압도하고 우리의 눈에 먼저 안겨오는것은 작업봉을 억세게 틀어잡고 불을 다루는 로공들이였다.

《산소투입!-》

《증기투입!-》

반장의 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로공들이 껌싸게 돌아가며 발브들을 틀어놓는다. 그 모습은 마치도 결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발생로는 비료생산의 첫공정입니다. 여기서 효율이 높은 가스를 많이 생산해야 합성직장들에서 비료를 많이 생산하게 된답니다.》

현장에서 만난 초급당비서 박영모동무가 우리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였다. 비로소 우리는 여기가 공장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전초선》이라 하던 일군들의 말이 리해되였다.

우리는 특별히 눈을 끄는 102 호 로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 로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찾아주셨던 기대라는 것이었다.

《로공동문 현지교시기대를 말아보게 되었으니 참 영광스럽겠구만...》

우리가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자 젊은 로공이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다.

《저만이 아닙니다. 우린 3 형제가 로를 맡았습니다.》

《3 형제가 ? ...》

우리는 저으기 놀랐다. 당의 품에서 자라난 세대청년들인 그들 3 형제가 비료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하여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1992년 10월 5일 말씀을 전달받은 날부터 현지교시기대를 말아가지고 매일 만부하를 걸고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었다.

《형제들의 마음 하나이니 로를 다루는 마음도 하나갈겠지 ...》

우리가 웃으며 하는 말에 만형인 리성우동무는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렇지도 않은가 봅시다...》

더 말하기 따분해하는 그를 대신하여 초급당비서동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날 막내동생이 로를 보는 교대에 뜻하지 않게도 불판안내변이 고장나면서 로에 짐이 실리기 시작하였었다. 고장을 퇴치하자면 로밀의 화염속에 들어가야만 하였었다.

《로의 불을 끄시오 ! 》

수리공들이 결심을 내리었다. 난생처음 당하는 정황앞에서 어쩔바를 몰라하던 동생이 급기야 산소변을 막으려 할 때였다. 교대하러 나오던 만형이 벼락같이 달려와 동생의 손을 잡아 뿌리쳤다. 그바람에 동생은 벌렁 나자빠지고말았다.

《이녀석아! 불을 끄면 비료생산에 떨어진다는 걸 몰라 !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비료생산의 정상화때문에 이처럼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찌면 그럴수 있단말이나...》

만형은 푹크리트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신음소리도 못하는 동생을 불새없이 방열기재를 뒤집어 쓰고 로밀에 뛰어들어갔다.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후에 동생을 마주보기 미안하더군요. 하지만 그랜 이 형을 용서해줄겁니다. 이게 어떤 로입니까? 우리 3 형제가 영원히 받들어갈 이 로는 한순간도 박동을 멈추어선 안됩니다. 로는 고열로만 타야 합니다. 그러자면 로공의 심장부터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로공은 더 말없이 쇠장대를 틀어잡고 작업구로 로안을 살피는 것이었다.

한줄기의 불길, 한순간의 불길을 놓칠세라 번쩍이는 그의 눈빛이 어찌면 저리도 아름다울까! 로안의 이글거리는 불빛이 어룡거려서인가? 아니면 청춘의 랑만이 넘쳐나서일가?

아니다. 그것은 당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마운 사랑이 것처럼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진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의 눈빛, 그 고열로만 타는 눈빛이 로를 태우고 천년 굳어진 고체를 가스로 분해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 봄맞이하는 처녀들아

우리가 4,000마력압축기들이 대형화의 동음을 울리는 합성직장과 10만톤농류산확장공사장을 거쳐 질안직장에 이른것은 정오무렵이었다. 아아히 솟은 합성탑들로 숲을 이룬 공장구내를 한바퀴 돌아오느라 퍼그나 지쳐버린 우리는 하조장어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온다 ! 하고 소리칠 뻔했다. 하조장 천정벨트끝에서 평평 쏟아지는 비료를 눈으로 작각했던것이다. 그야말로 아득히 넓은 하조장은 백설로 뒤덮인 고깔모양의 산봉우리들로 가득차넘치었다. 그 기슭에서 하차공처녀들이 지게차로 비료마대를 자동차에 연방 싣고 천정기중기들이 대형집합자루를 화차방통에 싣고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개미들이 산을 뜯어먹는것만 같아 도무지 성차지 않아보였다.

우리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반장 최은숙동무를 만나 물었다.

《비료가 저렇게 폭포쏟아지듯하니까 도대체 측날것 같지 않은데요 ? ...》

《아이참, 저길 좀 봐요.》

처녀는 웃으며 입구쪽을 가리키었다. 문밖에 아득히 늘어선 자동차들과 기차방통들을 보고 우리는 말을 못했다.

《다음은 어디예요 ? 》

처녀가 소리치자 저쪽에서 출고표를 든 청년이 다가왔다.

《문덕별이요 ! 》

《먼길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그래 농사차빈 어떻게 됐어요? 》

《비료만 가져가면 다요 ! ...》

《그래요 ? ! ... 문덕별상차 ! 》

반장의 구령이 떨어지자 상차공처녀들이 떠들썩거리며 기대의 동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애들아, 농사차빈 다 됐대. 어서 빨리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팽상모를 보고싶구나 ! ...》

웃음소리, 기대소리, 속삭임소리... 상차공처녀들의 일숨씨에 반하여 멍청히 서있는 잠간새에 꼬리긴 화차마다에 비료가 가득 실리운다.

《투 ! - 》

기관차는 떠나간다. 길을 비켜다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담긴 비료를 싣고 전야로 나간다. 목멘소리로 웨치듯 기적을 울리며...

봄맞이하는 처녀들아 ! 우리도 한줌의 비료를 안고간다. 그대들을 지켜보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만풍년의 소식을 전하련다. 하조장을 떠나는 우리  
의 마음도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 시목록

# 홍남의 숨결

편집부는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홍남비료련합기업소로  
달려간 시인들과 현직작가들이 창작한 단시들과 벽시들중에서 홍남로동계급들이 일터에서 즐겨 애송하고  
있는 몇편을 그대로 편집한다.

## 단시목록

# 풍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외 1 편

김송남

풍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랭상모 움트는 파란 짝인가  
모내기 흥겨운 그 봄별인가  
벼포기 아지치는 달밝은 그밤  
개구리 노래하는 논머리인가

풍년은 여기서 시작되여라  
비료산 솟아나는 넓은 구내길  
압축기며 합성탑이 큰 숨 쉬는곳  
우리 당의 뜻으로 뛰고 달리는  
비료전사들 불타는 심장속에서...

# 병사와 처녀

맞들이 앞채는  
표창휴가 바치는 병사  
맞들이 뒤채는  
10 만톤에 지원나온 압축공처녀  
군민이 맞드니  
짐은 많아도 무겁지 않네

어기영 치기영  
발걸음도 흥겨워  
-처녀동무, 생각해봤소

우리 마음이 먼저 비료가 되여야 하는걸...  
-아이참, 좋은 생각이예요  
나라를 부강케 하는 비료가 되야지요

아무렴  
오곡백과 주렁지자면  
류안, 질안 갖가지 비료 많아야 하고  
사회주의 끄떡없이 솟아오르자면  
충효일심 그 마음 먼저 비료되야지 ! ...

# 당신은 압니까? 외 1 편

최정용

후후 !  
더운김을 날리며  
밥그릇마다 흰밥을 퍼담는 때  
어머니의 기쁜 심정 자식들이 다 압니까?

당신은 압니까?  
그 어머니와 다름없이  
합성탑에 서리는 흰김너머로  
높아질 비료산을 그려보는

운전공의 그 기쁨을  
진정 당신은 압니까?

차관마다 무독히 흰비료 떠실으며  
온 나라 가정의 어머니라도 된듯싶은  
비료 로동계급의 그 벅찬 기쁨을

## 알겠습니다

꽃중에  
벼꽃이 곱다고  
내 풍년벌에서 노래 부르던 시인  
  
만풍년을 부르는 흥남의 숨결 안고  
흰비료 쏟아지는 하조장앞에 서니  
내 알겠습니다

풍년 벼꽃이 왜 그리 희게 피는지  
  
아, 불길세찬 비료의 발생로  
열정에 끓는 로공들의 눈빛을 보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은 석탄이 어떻게 흰비료 되는지

## 벽시묵음

## 순간을 외 1 편

리금녀

계기의 바늘에서  
잠시라도 눈을 팔면  
다가오던  
풍년가을이  
뒤걸음친다

계기의 눈금  
아차 헛갈리면  
한해 농사  
아차 잘못될수 있다

## 다시 보라

발생로 전투원들이여  
알탄현장 돌격대원들이여  
그대들 빛는 알탄이  
검다고 생각말라

다시 보라  
그 색깔  
이 세상 가장 흰 비료색갈  
이 세상 가장 눈부신  
황금이삭 그 빛이 아니더냐!

## 비료와 쌀

조렴해

서쪽으로는 자유화바람  
동쪽으로는 반사회주의 광풍  
그래도 끄떡않는 우리를 두고  
원썩들은 경제봉쇄 잔피를 쓴다

쌀은 이 봉쇄를 뚫는  
돌과구  
비료전선은 이 쌀을 위한

생명선  
오, 홍남이여

비료로 우리의 존엄을 지키자

## 잊지 말자

리금석

잊지 말자  
우리 사시절 농장벌에 살지 않아도  
나라의 중대한 전구를  
농업전사들과  
꼭 같이 책임졌다는것을  
  
비료전사

그 본분을 다하면  
우리의 하루도  
수령님께 드리는 크나큰 기쁨  
그 본분 못하면  
우리의 순간도  
우리 당에 끼치는 크나큰 심려

## 홍남아 일어나라 외 1편

민병준

항일의 그 나날엔  
자동리 숲속의 구호목이 웨쳤다  
-홍남아, 일어나라  
백두산이 본다

사회주의기치 더 힘차게 나뭇기는 오늘엔  
우리 당이 부른다 뜨겁게 뜨겁게  
-홍남아, 일어나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비료산을 굽어보신다

## 비료고지를 사수하자

결전의 언덕에서 한치 물러설 때  
조국은 백리 강토를 잃고  
홍남의 비료고지에서 한치 물러설 때  
조국은 천리 들판을 잃는다

비료는 쌀  
쌀은 공산주의  
비료고지를 사수하자  
사회주의를 지키자 !

## 우리 청년들

한창수

얼마전에 우리는 대흥청년광업연합기업소에서 생산량을 부쩍 올리고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으로 취재길을 떠나게 되었다.

일이 될 때라 마침 한무리의 대흥청년광부들과 동행하였다. 그들은 채광을 2 배로 쏙 끌어올릴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가지고 도에 올라와 과학기술심의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우리들이 서로 통성을 하고 얼마간 지났을 때 열차방송에서 방송원의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흥의 청년광부들이 분기계획을 앞당겨 끝냈다는 것이다.

열차안에는 기쁨어린 탄성이 터져올랐다.

《우리 친구들이 또 장훈을 불렀군!》

《이제 우리가 창안한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면 연간계획두 때는 당상이야...》

청년광부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자량이 넘쳐나고있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괜찮아!》

내옆에 앉아가던 나이 지숙한 손님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손님뿐아니라 열차안의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을 대견히 바라보며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젊은이들!》

나도 옆손님의 말마디를 조용히 음미하였다. ऐसा 짧게 한 말이었으나 그것은 커다란 의미를 안고 가슴속에 숨배여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를 가보아도 가장 이채로운 집단이 청년들의 집단이며 그들이 있는 모든곳에서는 활기와 향만이 넘치고있는것이다.

90 년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통일거리 건설장을 가보면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조국을 빛내이는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이들에게서 사심과 공명이란 찾아볼수가 없으며 오로지 당과 혁명에 충실한 시대의 전위로 살며 투쟁하려는 의욕만이 얼굴마다에 넘쳐나고있을뿐이다.

일하기 좋아하고 배움에서 정열을 아끼지 않는 우리 청년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어려운 모퉁이에는 우리의 믿음직한 청년들이 어깨와 가슴을 내대고있는것이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감탄하고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부러워하고있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볼적마다 나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세기의 령마루에 올려세운 한없이 위대한 손길을 가슴뜨겁게 느끼군한다.

순결한 씨앗이 태양의 빛과 비옥한 토양속에서 비로소 역센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왕성하게 뻗치는것처럼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없는 청년운동이란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청년운동의 탄생과 성장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와 심혈이 자욱자욱 깃들어있다.

우리의 주체혁명이 첫발을 올린 그때로부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바라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에 충실하였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우리의 전통이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건설장에서 목격한 일이 떠올랐다.

골조가 마무리된 탑의 아찔한 꼭대기로 발판을 타고오르는 한 녀인이 있었다. 건설장에 매일처럼 지원나오는 어머니였다.

《어머니, 비가 내려서 발판이 미끄러운데 주의하십시오.》

함께 오르던 청년돌격대의 한 대원이 넘려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걱정말게, 이래봐두 난 처녀시절엔 탄약상자를 이고지고 불비 쏠아지는 고지로 맨 선참 내달리군 했다네. 자네들이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니 나에게도 청춘시절이 되돌아온것 같구만.》

《그래요? ! 우리 대대장동지는 해주-하성때의 청년영웅입니다. 오늘도 그때의 그 기백이지요.》

《그렇지 않구, 나이가 먹었다구 마음까지 늙을가!》



이들이 나눈 짙막한 이야기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시대의 앞장에서 달려온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런 로정이 빛나는 후광속에 빛나고있음을 가슴깊이 느끼게 한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또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는가.

불빛화려한 도시의 아스팔트길을 떠나 심산유곡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나라의 자원을 늘여가는 숨은 영웅청년들,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영예군인이 된 청년들의 손과 발, 눈이 되고져 서슴없이 짐을 꾸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처녀들,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청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며 사회주의조국은 통성변영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이런 청년들을 이 땅 그 어디를 가나 만나게 되는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면모이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과 위대한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새 세대, 조선의 공산주의청년전위들! 이 불패의 대오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심으로 하여 그 이름은 누리에 떨치는것이 아닌가!

렬차는 달아오르는 이 마음을 싣고 산굽이를 돌아섰다,

어느덧 차창으로 밤노을이 불타는 대홍땅의 야경이 바라보였다. 길손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리로 쏠리었다.

아, 이 시대 청춘들의 랑만과 희열이 약동하는 대홍의 저 불빛! 그 불빛처럼 빛나라 청춘이여, 너의 그 밝은 후광속에 조국은 언제나 젊어져 있으려니, 그래서 조선청년이라는 그 이름 그리도 자랑스럽고 숭고한것, 그래서 너는 령도자의 최대의 믿음과 총애를 받는것이 아니냐!

축복하노라. 시대의 청년전위들이여. 너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기를...

## 좋다! 이 기발이 좋다

리근지

좋다!

언제나 대오앞에 날리는  
3대혁명붉은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이 기발이 우리에게겐 좋다

이 땅에 뒤덮인 재더미를 헤치고  
무독히 쌓인 파편을 차던지며  
사회주의 봉우리로 치달던  
천리마의 역센 기상  
이 기발의 펄럭임에 울리고

종파의 오물을 쓸어버리며  
수령님만을 지지하던 불타는 충성  
이 기발에 붉게 물들어있고  
당을 따라 가는 길에 지칠줄 모르던 정신  
이 기폭에 새겨져있어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칼로 부속을 썰며 손에 피멍들던  
우리 정신 조선의 기상이  
이 기폭에 타오르거니  
이 기발 죽어도 놓지 않으리

이 기발밑에서 일심단결  
당과 생사운명 함께 하며  
천만심장에 신념의 뿌리내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보람

이 기발 날리는곳에 실망이 깃들곳없어라  
이 기발 들고 해와 침체를 모르는 우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우리 식으로 창조하며  
이 기발밑에서 혁명의 로쇠를 모르는  
천만의 심장은 하나

오, 저 세기끝에 가서 생각할  
날바다 20 리도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막고  
1 만톤프레스도 우리 설계 우리 자재로 만들어  
비약의 창문을 창공에 활짝 연  
조선의 모습이여

신념으로 높이 이 기발 들고  
당이 결심하면  
가는 길에 파도세찬 강을 막고  
험산준령이 하늘에 닿았대도  
우리 할 일 끝까지 하고야말리

이 기발밑에서  
우리 남에게 업혀 살지 않고  
이 기발 추켜들고 우리 구걸하지 않으리  
혁명의 배신자들을 차던지며  
우리 당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지켜가리

공산주의로 가야 할 길엔  
오직 3대혁명밖에 없기에  
그 길이 멀고 험난하다 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쥐여준  
이 기발 추켜들고 끝까지 가리

강행군 강행군을 해도 좋다

서정서사시

우리 정신 이 기발에 물들어있고  
우리 힘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억센 발걸음 이 기발에 나뭇기나니  
좋다! 우리에게 3대혁명 이 기발이

## 달밝은 강언덕

계훈

### 제 1 장

저녁노을 비끼는 강언덕우에  
배낭 멘 한 젊은이 걷고있었다  
풀섶에도 강변에도  
차츰차츰 노을은 짙어만간다  
무겁기는 등에 진 배낭보다도  
가슴속에 내려앉는 시름이거니  
걸음걸음 반겨웃는 들국화  
발목에 휘감겨 향기 풍겨도  
한송이 꺾어들 마음도 없이  
그는 그냥 걸기만 한다  
머리우 연보라빛 하늘가엔  
어디론가 떠나가는 철새들의 울음소리...  
그 누가 시름겨운 성호의 배낭을 받아서주라

성호가 이고장 떠난것은  
몇해전 여름-  
멀고먼 타고장의 양목장을 찾아  
자진해갔던 사람  
결코 새끼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패의 쓰거운 가슴에  
산촌의 이슬을 적시기 위해  
기어이 때를 써 방목공이 된 사람

...관서땅 이고장 고향마을에도  
감알이 주렁지게 하자  
이것이 그의 리상이였고 포부였던만  
자연의 힘은 령혹해  
꿈이 깃든 나무도 마음도 시들게 했거니  
조바심에 안달이 난 그의 《원예학》은  
산정에 날으는 구름장마냥  
즐기도 없이 뿌리도 없이  
따뜻한고장 찾아 방황하였다...  
...

이끌리우듯  
독아래 풀섶을 헤치며  
성호는 강변에 내려선다  
그러자 조약돌, 조약돌...  
발밑에 소리내는 그 조그만것들-  
어쩌면 그 소리 조롱하는듯

어쩌면 그 소리 달래이는듯  
때로는 날카로운 목소리 되어  
토막토막 가슴깊이 박히기도 한다  
그것은 정겨운 처녀의 목소리!  
이제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부르기 또한 피로운  
봉이에 대한 추억  
...

그날밤 두사람은  
밤늦도록 고향의 강변을 걸었다  
둥그런 보름달도  
강물우에 흔들리며 함께 있었다  
언뜻 침묵을 깨치는  
봉이의 목소리  
《다 알아요  
양떼와 함께 깊은 산속에  
자기의 량심을 숨기겠다는거죠  
그래 여기선 〈원예학〉의 꿈도  
행복도 찾을수 없다는거죠  
동무가 그런 사람인줄 몰랐어요  
비겁해요 동무는 겁쟁이에요...》  
차돌같이 차거운 말을 던지고  
강변을 달려간 처녀  
몇번이고 그 이름 찾아도  
푸름한 달빛을 밝으며  
동쪽길에 울면서 사라진 봉이...

별많은 하늘가 산정우에  
풀내 향긋한 초막을 짓고  
하얀 양떼와 함께 잠들기란  
참으로 즐거운 일  
허나 성호는 밤마다 잠못들었다  
아마도 산의 정서가  
사랑하는 봉이를 더더욱 그림계 한모양  
두툼한 《원예학》을 목침처럼 뒤척이며  
그는 은근히 바랐다  
봉이의 편지를  
그러나 자주  
성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준것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새로 온 3대혁명소조원의 편지-

행복은 먼곳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  
어서 돌아와  
고향땅에 함께 뿌리내리자고  
봉이동무도 이것을 바란다고  
아 가슴속에 정은 넘쳐도  
소중한 리상과 아름다운 꿈을  
처녀의 사랑과 저울질하는  
그런 수치 용서 못할 자신이였다  
그래서 벌써 두해가 지나도록  
고집의 령마루를 에돌며  
고향마을을 다녀오지 않은 자신이였다  
고맙다, 살뜰한 편지의 입자여  
허나 성호는 안다  
동쪽길에서 돌아선 봉이의 마음을  
푸른 꿈의 꽃잎을 시들게 한  
엄혹한 이고장의 자연을  
이런 문제를 놓고  
어찌 타협이 있을수 있으랴  
...  
성호는 황혼 짙은 강언덕을  
끝없이 끝없이 걷기만 한다

## 제 2 장

떠났던 사람이여도  
버렸던 마음이여도  
반겨주는것  
안아주는것  
그것이 고향이더라  
그래서 즐거워도 고향이요  
피로워도 고향이라  
사람들 말을 했던가  
언제나 달려와 안기고싶은  
이 마음의 집만은 텅길 없었으니  
고향아 말해다오!  
너에게 그 무슨 힘이 있어  
이 마음 한끝에 줄을 매놓고  
늘쌍 우리네 한생을 불태워주는거나  
그렇다면 고향아 그것이 무엇이더냐  
풀숲에 바위처럼 우에  
재롱부리는 잠자리 쫓아  
한나절 해빛에 절고 동요가락에 절던  
못잇을 그 추억이더냐  
달밝은 밤이면  
강변의 하얀 모래불우에 자욱자욱 담아가던  
청춘의 그 우정이더냐 그 꿈이더냐  
너에게 이런 꿈, 이런 추억 간직돼있어  
그토록 살뜰히 못잇는 너였더냐  
아니면 이 아들의 마음으론 미처 다 깨달을수  
없는  
그 어떤 크고 이름못할 힘이

네 품에 간직돼있어서더냐  
  
알아도 몰라도  
고향은 고향  
제 나서 태를 묻은 고향은 아름답다  
뜨락또르동음소리 들끝에 울리고  
파아란 잔디우에 흰염소 우는곳  
들리나니 강물소리 여울물소리  
강바람은 뚝에 올라 옷자락 들춰준다  
저기로구나  
해빛 쨍쨍한 점심참이면  
내 어머니 옷가지 행구던 강변이  
저것들이구나  
자주도 내 꿈속에 떠올라  
어서 오라 반짝이며 속삭여주던  
시내가의 하얀 조약돌들이...

성호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어찌된 일인가  
그전날 쓸모없던 산기슭에  
보여오누나, 노을에 번뜩이는 하나의 호수-  
물녘엔  
하얀 물안개에 발을 잠그고  
푸른잎 흔드는 과일나무들!  
어쩔수 없는 흥분을 안고  
성호는 사방을 조심히 둘러보았다  
그러자 저기-  
감나무모를 들고 선 처녀 하나  
그윽한 눈길 들어 이쪽을 본다  
마치 하늘에서 《신선도》를 가꾼다는  
동화속의 선녀인듯  
질어가는 노을속에 감실한 얼굴  
(아! 봉이... ?)  
아니였다  
그러면 누구일가?  
높뛰는 마음을 안고  
성호는 처녀앞으로  
용감히 걸어갔다

《저... 누구이신지 ? 》  
조용히 웃음 띄우는 처녀  
《아 나말이요  
이 마을에 살려오는 사람이요.》  
엇갹갹에 이런 말 내뱉고  
성호는 허구쁜 웃음을 지었다  
《반갑군요  
이 마을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랍니다...》  
땀젖은 귀밑머리 쓸어들리며  
처녀는 그윽한 눈길 들어  
강산을 바라본다  
그리고 함뿍 웃음을 담아

자기의 세계로 손님을 이끈다  
 《보세요 저 호수를!  
 겨울에도 얼지 않는 호수랍니다  
 호수가 생겨  
 이고장 기온은 4 도나 높아졌답니다》  
 꿈같은 처녀의 말에 이끌려  
 성호의 눈앞에 황홀히 펼쳐져왔다  
 산언덕 층층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부르며  
 설레이고 설레이는 푸르른 파원이,  
 잉어떼 꼬리치는 호수가엔  
 유유히 떠가는 아름다운 유람선  
 물결타고 흐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황홀한 꿈세계에 잠겨  
 실개천 찬물도 정겨운듯  
 뒤따르는 성호를 바라보며  
 합수목에 발잡고그 건느던 처녀  
 문득 걸음 멈춘다 망설인다  
 물가에 시작된  
 하이얀 백사장앞에서...  
 《아이! 얼마나 깨끗하고 고와요 이 모래불이...》  
 흙물은 신을 벗어두고  
 하얀 모래불에 사뿐히 올라  
 조심조심 옮기는 처녀의 걸음  
 순간-  
 무심히 모래발을 따라밟는 성호의 걸음  
 그는 멈춰섰다  
 하얀 모래불우에 압전히 찍혀진  
 조심스러운 처녀의 맨발자국!  
 하얀 모래불우에 물감탕이 찍혀진  
 성호의 투박한 신발자국!  
 그는 보았다  
 나란히 찍혀진 이 두발자국-  
 이는 티없이 깨끗한 사랑과  
 어느덧 얼룩이진 량심이  
 그대로 새겨진 마음의 자욱인듯  
 이것이 고향에 대한  
 애정의 증거인듯!

성호의 마음은 피로왔다  
 나서자란 고향을 떠나  
 타향에 마음을 두었던  
 죄되고 욕된 자신의 생각에  
 주먹을 안기고 또 안겼다  
 아 나도  
 고향 위해 가슴 불태웠던 몸  
 언제인가 황해도의 고모집에서  
 꾸러놓은 감배낭 되쫓아놓고  
 감나무모를 지고왔던 사람  
 정성들여 가꾼 나무  
 찬바람에 꽃잎이 질 때  
 사나이 드문 눈물 떨구던 사람  
 허나 그것으로 위안할수 없다  
 그렇다! 나는 겁쟁이었다  
 그런데 ...

이 처녀는 누굴까?  
 들바람에 다스려져  
 감실감실 탄 상냥한 얼굴  
 아무리 보아도 낮이 설건만  
 이고장 사투리가  
 몸에 배인 처녀  
 누구일까?  
 누구일까?  
 꿈도 많은 이 처녀는...

## 제 3 장

《소조원언니!》  
 먼발치에서 날아오는  
 쟁쟁한 목소리  
 《?!...》  
 성호의 가슴에  
 뜨거운 물결이 인다  
 너무도 귀에 젖은 목소리  
 사랑하는 봉이의 목소리!  
 《전화왔어요  
 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잠깐...》  
 가볍게 머리숙이고  
 동쪽길로 사라지는 3대혁명소조원 정녀!  
 가슴을 들먹이며 서로 마주선  
 성호와 봉이

너무도 많은 사연이  
 그래도 말 못할 사연이  
 가만히 부르는 노래소리처럼  
 마주선 두 가슴속으로  
 흐르고 흘렀건만  
 《우리의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무겁게 떼는 성호의 첫말  
 아마 그것은  
 용서를 빌기엔 남자의 자존심이  
 너무도 이지러진모양  
 아니면 너무도 큰 고향소식이  
 말수를 적게 한모양  
 아니면 금방 얘기 나눈 꿈많은 처녀가  
 3대혁명소조원이라는 그 사실이  
 가슴속에 술한 충동을 던진 그때문  
 봉이도 그 마음을 이해할수 있었다  
 그래서 애써 마음을 누착히며  
 풀밭우에 앉는다  
 더더욱 짙어오는 추억의 노을이  
 그들의 가슴을 물들여주었다  
 ...  
 모질기도 하더구나  
 북방의 이른봄이여!  
 산너머 령너머 저 멀리  
 벌써 아늑한 고장들엔  
 온갖 꽃 만발하여 벌나비 찾아도  
 너는 그냥 허연 서리발을 내뿜으며  
 아는듯 모르는듯  
 한낮이면 철새의 무리들이

하늘가를 에돌며 에돌며  
 정깊은 소리로 봄을 알려도  
 아는듯 모르는듯  
 그래서 더더욱 멀리  
 날아날아가는 철새들...  
 감꽃이 한창인 따뜻한고향  
 어머니님 계시는 고향을 떠나  
 즐겁던 학창시절의 농업대학을 떠나  
 정녀가 처음 여기 온것은  
 아직 날씨가 찬 서북방의 이른 봄철-  
 산기슭에 아직은 살얼음저도  
 한낮에 입열던 시내가 버들개지  
 밤마다 추위에 시들어저도  
 제발 이런 소식만은  
 정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며칠전  
 과일나무모 꽃눈튀우기에 실패한  
 성호라는 젊은이  
 실망하여 자진하여  
 고향 떠나 먼 방목지로 갔다는 소식!  
 그날에 그와 다투고 헤어진  
 봉이의 소식!  
 저녁노을에 아침노을을 이으며  
 줄곧 그 한생각에 가슴앓거니  
 꿈결에도 애처롭게 머리떨구던  
 두그루 감나무모를 찾아  
 소조원 정녀  
 달마천 강언덕에 다달은 그때-  
 그는 보았다  
 정성스레 꾸리던 자그마한 파수발  
 거기에 세워놓은 표식말뚝들을  
 울면서 울면서 뽑아던지는  
 봉이의 그 모습을!  
 뽕혀져 던져지는 말뚝과 함께  
 상처입고 덩구는 봉이의 꿈을!  
 《봉이동무! 왜 그래요?》  
 그래도 그는 말이 없고  
 《말좀해요  
 어찌된 일이에요?》  
 그래도 봉이는 대답이 없다  
 아, 그 무엇으로 하여  
 봉이는 나에게 말하지 않을가  
 마을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어찌하여 나에게는 말하지 않을가  
 아무 말도 않고  
 울면서 달려가는 처녀...  
 그날밤 정녀는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운 어머니에게〉

그리운 어머니!  
 양어장에 물을 푸니  
 잉어꿈을 해주겠다고  
 올해도 감이 잘 익었으니  
 어서 명절휴가 오라고  
 그 간절한 소식을 받았을 때

막 달려가고싶었어요  
 어머니 무릎을 마주하고  
 한종일 얘기하고싶었어요  
 그리고 집 울바자가에  
 몰래 숨어 피곤하는  
 그 조그마한 조밥꽃도 보고싶어요  
 해마다 감꽃이 피는 계절이면  
 고향의 과원속을 달려보고싶은  
 이 마음도 변함없어요  
 그러나 어머니!  
 이고장엔 감이 없답니다  
 날씨가 차 망울졌던 꽃도  
 못피고 시들어버린답니다  
 며칠전에 그때문에  
 한 젊은이가 떠났고  
 오늘은 봉이라는 처녀가 울었어요  
 몇번이나 물어보며 위안을 해도  
 그는 종내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고향 말씨와 다른  
 저에게 속터놓고싶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사투리야  
 쉽게 배우는게 아니잖나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해  
 강언덕에 앉아 몰래 울었어요  
 이제는 울지 않겠어요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딸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이라는것을  
 가슴깊이 되새겨요  
 어머니! 여기 서북방바다가마을에도  
 감알이 주렁지게 열려  
 이고장 어머니들이  
 멀리 가있는 아들딸들에게  
 감배낭을 보낼수 있게 하자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이 현실로 되는 그날-  
 바로 그날에 이 딸은  
 이고장에서 탄 노란 감알을 안고  
 어머니를 만나뵈오려 달려가겠어요  
 보고싶은 어머니!...

## 제 4 장

바람이 분다  
 연보라빛 들국화  
 꽃가지를 흔들며 흔들며  
 저녁바람 보폭우에 분다  
 어디선가 정겹게 울려오는  
 물새들의 울음소리  
 아득한 서편하늘가로  
 노을은 서서히 스러져간다  
 아, 노을은 사라져도  
 가슴속에 차호르는  
 미더운 소조원에 대한 그 이야기-  
 성호는 가슴뜨거이 묵묵히 듣고  
 봉이는 그냥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저도 함께 나누자는듯

때이른 둥근달은  
별많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휘영청 달밝은 밤  
바람부는 달마친강언덕을  
소조원 정녀는 조심히 거닐었다  
어두한 저기 산숲에서  
은근히 울려오는 접동새소리  
가만가만 속삭이는 시내물소리  
달밝은 밤마다  
정녀는 그 몇밤을 이렇게 지새었나?  
《원예학》 교재를 복습도 해보고  
어쩌면 이고장 날씨를  
따뜻한 고장처럼 만들수 없을가  
어쩌면 이고장 사람들의  
언니처럼 친딸처럼 가깝게 할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향의 달이여, 시내물이여!  
강언덕에 불어부는 밤바람이여!  
말해보라 너희들은 보았으리라  
해뜨는 아침에  
달뜨는 밤에  
여기 강언덕에 수없이 찍혀진  
마을젊은이들의 불같은 발자국들을!  
강건너편-  
화력발전소의 퇴수를 끌어오자고  
여기에 더운물의 호수를 만들자고  
마을사람들 이끌어  
흙집 지고 강둑을 뛰고 달리던  
소조원 정녀의 그 불같은 모습을!  
그리고 너 차주도 우리를 놀래우던  
북방의 차디찬 비바람이여!  
너도 오늘은 이야기하랴  
그 술한 사연을 다 전할수 없어  
동쪽의 잔디를 쓰다듬고 쓰다듬는  
봉이를 도와주랴  
그의 가슴에서 생생히 다시 태어나  
그 무섭고 억센  
우뢰와 번개, 비바람으로  
성호의 가슴에 불어들랴  
그 많은 이야기 되어...

×

《와르릉... 땅》

번개친다!  
우뢰운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듯  
쑉쑉 내리퍼붓는 비  
소리치며 달리는 폭풍우  
이 새벽  
사나운 비바람속을

달려가는 처녀 하나  
그는 3대혁명소조원 정녀!  
벌써 가파로운 고개를 두개나 넘었다  
와-와- 소리치며 흐르는  
골짜기의 물사태에 밀려  
떠내려가기 그 몇번  
달리다가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서고  
허나 마음은 웨친다  
〈어서 가자  
산기슭에 갓 꾸러놓은 과수원을 찾아  
지름길로 어서 가자〉

오, 내 그대에게 묻고싶거니  
성호여 대답하라  
봉이여 말해보라  
이 새벽  
우리 소조원 정녀를 깨워 일으킨것은  
저 번개와 우뢰소리였던가  
저 사나운 비바람이었던가  
과연 비바람에 씻겨져내릴  
몇그루의 감나무만이었던가  
아니다! 몇그루의 감나무-  
그것은 정녀의 마음이 안아 지켜온  
성호였다  
이 땅에 영원히  
억센 뿌리 내리기 바라는  
그들의 사랑이였고  
이고장 사람들의 꿈이며 행복이었다  
보라! 저기  
사나운 비바람을 끝끝내 이겨낸  
애어린 감나무를 부여안고  
뜨거운 불을 비비며  
끝끝내 터치고야마는  
정녀의 기쁨의 눈물을!  
축하하자  
변모된 북방의 산천이여  
지금 그 한가슴으로 폭풍우를 막아  
복을 돌구어주고 받침목도 세워주며  
행복의 미소짓는 처녀를!  
성호의 누이이며  
봉이의 언니이며  
온 마을의 딸인  
3대혁명소조원 우리의 정녀를!

## 제 5 장

때이른 둥근달이  
휘영청 동산우에 떠오를무렵  
은은한 달빛에 싸여  
보폭을 걸어오는 처녀  
티없이 깨끗한 마음인양

그 열정인양  
 빨간 머리수건  
 잠시도 잠모르는 마음인양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  
 마치 하늘에서 떠내리는 류성마냥  
 그윽한 미소를 머금고  
 저 멀리 보폭우에 달려오는 처녀  
 3대혁명소조원 정녀!  
 티없이 정다운 그 모습  
 뜨거운 눈길로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두쌍의 눈동자  
 그들은 서로 말이 없어도  
 심장은 벌써 속삭인다  
 정녀! 그대였구나  
 산정에 날으는 구름장마냥  
 뿌리도 줄기도 없던 이 마음 찾아  
 몇번이고 따뜻한 충고를 보내주던  
 그 편지의 임자는  
 그대였구나!  
 이고장에 불어치는 거친 바람을  
 사랑 넘친 가슴으로 막아준것은  
 그대는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주었다  
 그대는 행복이 결코  
 그 어느 먼곳이 아니라  
 우리자신에게 있음을 깨우쳐주었고  
 그대는 또한 되찾아주었다  
 고향과 함께 영원할  
 우리의 사랑을!

《소조원동무!》

《정녀언니!》

성호와 봉이 가슴터치는 소리-  
 그들은 다가오는 정녀를 향해  
 마주 달려나갔다

《정녀언니! 성호동무예요》

정녀는 잠시  
 그윽한 미소의 눈길을 들더니  
 성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오셨군요. 성호동무...》

그리고는 의미있게  
 성호의 무거운 배낭을 받아  
 봉이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보세요, 저 둥근달을!  
 저 달은 조국땅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처럼...》

밤

달밝은 밤  
 둥그런 보름달을 머리우에 이고  
 성호와 봉이  
 다정히 속삭이며 속삭이며  
 저 멀리 강변을 걸어가고  
 들국화 꽃향기 그윽한 강언덕에  
 홀로 앉은 정녀  
 자그마한 돌하나 던진다  
 《침병!》  
 그러자 둥그렇게 퍼지는  
 물결의 파문...  
 마치 정녀의 기쁨인듯  
 일렁인다  
 일렁인다  
 달빛안고 반짝인다

축복하노라!

달밝은 이밤  
 하많은 사연이 들리는 이밤을  
 축복하노라  
 보폭에 홀로 앉아  
 저 멀리 강변의 물굽이를  
 끝없이 걷고걷는  
 성호와 봉이를 바라보며  
 씩없이 간간이 울려오는  
 자갈 밟는 소리를 새겨들으며  
 행복의 미소를 머금은  
 3대혁명소조원  
 우리의 정녀를!

## 첫 생활

-소조원의 수기-

리수명

경제대학 부기과를 전공한 내가 산골농장소조원으로 배치되리라고는 뜻밖이었다.

나는 군소재지에서 50여리나 떨어진 삼향농장에 왔다. 농장소조책임자는 농장에서 기타부분이라고 하는 파수반을 맡아달라고 했다. 또 군말없이 받아들였다.

바다를 낀 시내북관에서 자란 나는 이따금씩 농촌지원을 나갔다가 과일나무를 구경했을뿐이었다. 하나하나 농장원들에게서 배우면서 일할수밖에 없었다.

도착한날 저녁 나는 농장도서관과 초급당에서 빌려온 해당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로작들을 밤늦도록 읽었다.

이튿날 아침 소조책임자가 초급당에 들렀다가 함께 파수반에 나가자고 했다. 나는 얼마동안 기다리다가 먼저 파수반선전실로 나왔다. 어쩐지 마음이 조급했던것이다.

한참 기다리는데 키가 크고 한쪽 눈섭옆으로 엇비슷이 허물자리가 있는 어딘가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다. 서성거리는 나를 보고 물었다.

《체넌 어데서 왔나?》

《저- 파수반에 소조원으로...》

《헛참, 이거 큰 실수를 했수다. 소조원을 몰라보고, 내 파수반장이우다.》

그는 막내동생이나 될 나의 손을 솔뚜껑같이 크고 거울진 손으로 짹 거머잡으며 무척 반가워했다.

《잘 도와주우다. 파수반에 담당소조가 오기는 처음이우다.》

스물두살짜리 어린 처녀에게 경어를 쓰니 마음이 웅송스럽고 어색하여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대가 험해와서 기계화수준이 낮수다. 잘 료해하면서 걸린것들을 풀어주우다.》

반장은 그 어떤 기대를 실은듯한 눈에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참, 내가 무엇을 료해하고 풀어주다니...!

하마트면 동무들속에 있을 때처럼 호들갑스럽게 웃어떨변하였다.

작업반포전들은 마을뒤에 높이 솟은 샛갯봉산줄기 골짜기마다의 량옆 비탈진 경사면에 있었다.

한창 수확철이라 가지마다에 노랗게 익은 배알들이 오지지 달려있었다. 물씬 향기를 풍기는 배알들을 따기가 신바람나기보다 아쉬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1년내내 그렇게 뒤두고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쉬워도 할수 없었다. 관북땅인 이고장엔 9월 중순만 되면 언제 무서리가 내릴지 모른다고 한다. 파수반로력의 전부가 수확에 달라붙었다. 그래도 로력이 딸리는 형편이었다.

나는 작업반장의 만류에도 마다하고 반원들과 함께 배를 따다. 따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했다. 배알을 쥐고 당기면 일사귀가 달린 송이채로 떨어지거나 어떤 때는 잔가지까지 부러지곤하였다.

옆에서 일하는 통통하게 생긴 금녀아주머니가 일깨워주었다.

《배알을 쥐고 올리 쳐들어야 함네. 이렇게, 이렇게...》

그가 시켜주는대로 하니 딱, 딱 소리가 나면서 정말 잘 따졌다.

처음 한나절은 신바람이 났다. 그러나 그 즐겁게만 생각되던 일이 점차 지루하고 허리까지 아파났다. 따는 일만이면 몰랐다. 길까지 운반하는 일은 몹시 힘들었다. 바꾸니나 커다란 보자기를 어깨너머로 앞가슴에 띠고 거기다 배를 따서는 마대에 담는다. 마대에 좀 풀게 차면 마대아구리를 두손으로 움켜쥐고 등에 진다. 그리고는 배나무밑으로 허리를 바싹 굽히기도 하며 미끄러지는 경사를 따라 트락또르나 자동차들이 다닐수 있는 길까지 날라야 한다. 내려갈 때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올라올 때면 빈몸인데도 숨이 턱에 닿는다.

금녀아주머니가 숨을 할딱이는 나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새애기가 언제 이런 일을 해봤겠슴메. 그래두 내려가는건 꽃입네. 이제 수확이 끝나구 그 술한 거름들을 저울릴 땐 눈앞이 노래지구 등때기에선 누린내가 남메.》

정말 그 일은 더 힘들것 같았다.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을까? 아이참, 그렇게 쉽게 된다면 여기 사람들이 이러구있을라구!



《키만 꺾두룩 했지 아무 제절도 못냄메. 해마다 자연수압수독이요 중간통로요 말만 번지르르하면서 어디 일을 처야지비.》

금녀아주머니가 분명 작업반장에 대한 불만을 토설하는것 같았다. .

무슨 방도가 있는것 같은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쉬운 방법을 묻는것이 어쩐지 부끄러워 참았다. 이제 반원들과 친숙해지면 자연히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아래쪽에서 내포래 처녀들이 까르르 웃어댔다. 배나무사이로 내려다보았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지 두세해밖에 안되었을 두 처녀가 배를 넣은 마대를 지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는 그렇게 웃고있는것이다. 나는 웃음이 아니라 어쩐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작업반장은 어데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피곳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 저녁켄에 어데선가 트랙포트를 끌고와서 쌓아놓은 배를 실려보내는 그를 볼수 있었다.

나는 하루빨리 반원들과 친숙해지기를 바랐다. 나보다 어린 처녀들에게도 어쩐지 자꾸만 미안하고 송구스런 생각까지 들면서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다. 그들도 나에게 인츰 곁을 주려고 하는것같지 않았나.

어떻게든 일을 쉽게 하게 해야 해. 이것이 나의 첫째임무야 ! ...이럴줄 알았다면 기계공학부분이라도 공부했을걸 !

며칠 일하고나니 농장원들의 말그대로 시원섭섭하게도 수확이 끝났다. 내가 오기 며칠전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었던것이다.

그다음엔 또 무슨 공정을 해야 하는지 나는 몰랐다. 《간섭》하는것 같아서 묻지도 못하였다.

수확이 끝난 다음날 아침 선전실에 나가는데 뒤에서 《매애애-》 하는 애처로운 염소울음소리가 들렸다. 출퇴근때면 늘 염소를 끌고 다니는 금녀아주머니가 어느새 따라섰다. 나는 농장원들보다 일찌기 출근하기가 멋적었다. 온지 며칠째되는 날엔가 작업반장이 좀 늦어진 반원에게 《소조원보기가 부끄럽지두 않수.》 하고 말하는걸 들었던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나오곤했다.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는가요?》

《모르지비, 농산반으루 나간다는 말이 있습네.》

《농산반엔 왜요?》

《기타부분이사 봄가을 농산반 예비뿐뜸메.》

선전실에 반원들이 모이자 아니나다를가 반장은 미간을 약간 찌프리면서 작업지시를 했다.

《오늘중으로 락파모으기를 끝내고 래일부터 뭇 땡 농산반에 나갑니다.》

그렇게 습관된듯 모두들 군말 없었다. 금녀아주머니가 나가면서 누구를 빗대고 하는 말인지 혼자 소리로 중얼댔다.

《에그- 그저 시키는대로 굵석굵석... 취취해서 남의 뒤통지나 씻어주구 !》

남아있던 작업반장이 그의 등에 도끼눈을 흘긴다. 아마 그를 두고 하는 소리인 모양이었다.

나는 작업반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과수반로력들을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

《책대루 하면 얼마나 좋겠수다. 무조건 나오라는거지요.》

불평 절반, 비난 절반 섞인투의 대답이었다.

《과수반엔 할 일이 없나요?》

《디디구 쌓였수다. 땅이 얼기전에 당장 심부시비를 해야겠는데 또 올해에두 절반두 못할것 같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별수 있수. 죽일놈이 뭐이라구 이 반장이 골탕먹을수밖에 ...》

《...》

《며칠 일해보니 어떻습데까? ...과수밭일이란 손발에 물을 덜 적신달뿐이지 뼈심이 드우다.

소조원동무, 날 좀 도와주지 않겠수?》

반장은 별스럽게 어색한 미소를 짓고 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나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작업복깃만 꼬기작거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무슨 큰힘이 있는듯이 생각하는것이 놀랍기도 하고 우습고 의문스럽기도 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구...》

나는 거의 입속말로 대답했다.

《소조원동무야 마음만 먹으면야...》

《무슨 일이게요?》

《다른게 아니구 포전들에 결정적으루 중간통로를 뿔아야 합니다.》

배를 나를 때 금녀아주머니한테서 중간통로라는 말을 들었던 생각이 났다. 분명 길을 낸다는 소린데 어데다 내며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것인가?...

반장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었다. 이곳 과수원도 위대한 수령님의 복청교시후에 조성되었다. 그땐 과수전문기술자들이 부족했다. 전망성있는 설계도 없이 줄과 간격이나 맞춰서 심다싶이 했었다. 그러다보니 나무들이 다 자란 지금에는 관리하기가 불편스럽고 힘들게 되었다. 과수나무들간들에 통로들이 없어서 큰길에서부터 거름을 날라야 하는것은 물론 수확할 때 과일운반도 내가 꺾어본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던것이다.

《왜 그런걸 아시면서 아직까지 못했나요?》

《지금 보다싶이 좀 어찌볼가 하면 로력을 내라 우다. 몇줄건너씩에서 한줄씩 뽑아 옮겨야겠는데 어디 프락포트를 주겠답니까!

소조원동무가 좀 도와주우다.》

《제가 어떻게요?》

《문제는 관리위원장만 나서면 되겠는데...》

관리위원장이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설득시켜달라는 말이였다.

왜 이런 좋은 생각을 아직까지 제기못했을까?

나는 의문스러우면서도 섣뜻 응해나섰다.

《제가 만나보겠어요.》

나는 관리위원장이바이가 꼭 들어줄것 같았다. 그는 자기 딸같은 나를 부를 때면 정말 부끄럽고도 어색하게 우리 반장처럼 꼭 《동무》라고 한다. 그럴때마다 나는 어쩐지 놀림이라도 받는것 같아서 얼굴이 달아오르곤했었다.

관리위원장은 우리 아버지처럼 몸이 좋고 마음도 너그러운것 같았다. 늦은 저녁에도 소조합숙에 자주 들러 불편한게 없는가고 묻기도 하고 이틀전엔 한창 바쁜때인데도 찰떡과 두부까지 준비해놓고 소조원들을 자기집에 청하기도 했다.

소조책임자가 굳이 만류하며 나이가 제일 어린 나 혼자만 억지로 떠밀었다. 나는 할수없이 갔으나 관리위원장이주머니까지 나한테 경어를 써서 어찌나 부끄러운지 그 하르르한 찰떡 두개를 겨우 먹고 도망치듯 달려왔었다.

지금 나는 파수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고싶지 않은 마음이어서 퇴근길로 관리위원회에 들렀다. 관리위원장은 좀 난처해하는것 같은 기색이였으나 무엇인가 한참동안 타산해보는것 같았다. 그러나 역시 나의 기대대로 선선히 대답해주었다.

《합시다. 농산반에 돌리자던 파수반로력들을 거기다 집중시키고 프락포트로도 한대 더 돌립시다.》

이튿날부터 중간통로를 뽑는 일을 벌렸다. 일은 험치 않았으나 반원들은 열성이였다. 아름차게만 보이던 그 일은 불과 한주일새에 끝나버렸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은 금녀아주머니였다. 새로 낸 통로복판에 서서 머리수건을 벗어 들고 만세까지 부르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까지 거름을 실어다주문사 절반힘이야 덜게 됩지비!》

작업반장이 나를 바라보며 히죽이 웃었다. 그 웃음은 어쩐지 좀 서글픈듯한감도 있었다.

《수고했수다. 누구누구해도 소조원동무가 제일 수고했수다.》

나는 면구스럽기 그지없었다. 마치나 내가 다 해낸듯이 말했기때문이었다.

퇴근길에 반장은 별스럽게 내곁에 자꾸만 다가섰다. 사람좋은 웃음을 띄우고 어린 소조원이 오자

마자 큰일을 했다는등, 이런거야 우에다 응당히 반영해야 한다는등 좋게 들릴수 있는 말들만 했다.

진실보다 어쩐지 과장된듯한 그의 말은 오히려 나를 몹시 부끄럽게 했다.

반장은 한참동안 그러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북청쪽에 더러 가본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한테 그렇게 경어를 쓰지 말아주십시오. 농장원처녀들을 부르듯이 <순금아> 하고 부르면 안돼요.》

《소조원을 보고 그러면 되우다?》

반장은 펄쩍 뛰었다,

나는 못내 섭섭하였다. 손님처럼, 그것도 무슨 큰 간부나 되는듯이 떠받들려 하는것 같아서였다.

《몇해전에 북청에서 조직한 시범방식상학에 가봤는데 굉장하더구만! 일은 쉽게 하면서도 수확이 안나올수 없게 됐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했게요?》

나는 부쩍 호기심이 동했다.

반장은 파수반포전쪽으로 돌아서서 손세를 써가며 설명했다.

《우리하구 비슷한 지형인데 저런 룡선꼭대기에다가 물주머니를 큼직하게 파놓고 양수기를 놓았습데다. 이쪽 아래골짜기에는 수원지를 만들구요. 양수기가 거기물을 퍼올려 주머니에 채운단말입니다. 그 물주머니로부터는 포전마다에 관을 늘였지요. 그 물로 관수도 하고 수압이 세니까 자연압으로다 소독도 쉽게 할수 있더라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자연적인 반자동이지요.》

정말 이상적일것 같았다. 나는 기뻐서 짜장 박수까지 치며 소리쳤다.

《우리도 하자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조원동무만 나서주면야...》

내가 기뻐할수록 반장은 별로 흥심없어 하는것 같기도 하고 신심까지 없어하는것 같았다.

나는 안타깝게 말했다.

《제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요?》

《뭘 별건 아니우다. 관리위원장, 그 사람만 결심하고 내밀어주게 하면...》

《왜 우리 힘으로는 안돼요?》

《글쎄 다른건 다 몰라도 그 술한 배관들을 우리같은 새비들이야...》

새우를 새비라고 하는 반장의 말은 자기나 반원들은 힘이 없다는 표현이였다.

《관리위원장은 해결할수 있는가요?》

《큰 농장 관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사 그까짓것쯤이야!》

《제기해보자요.》

《한번 더 수골 해주우다.》

나는 당장 관리위원회쪽으로 가려다가 멎어섰다.

왜 반장은 나보고만 제기하라고 할가? 혹시… 아니, 그럴수 없을거야!

어쨌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는 물었다.

《저- 반장아저씨가 제기하면 안돼요?》

나는 반장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는 허거프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미소가 어린 얼굴을 돌려버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내야 제기하나마나지요.》

《좋은 의견인데 왜 반장이 제기한다고 마다하겠나요?》

《의견이 어디 그리 나쁘게 있습니까. …여기 줍 앉읍시다.》

반장은 여전히 쓸쓸한 목소리로 말하며 길옆에 앉아 담배를 말았다. 나도 얼마간 그의 옆에 오금을 꺾고 앉았다.

《노여워마우다. 사실대로 말하면 오늘 끝낸 중간통로말이우다. 그건 내가 3년전부터 제기하다가 나중엔 메주만 먹고말았댔수다. 처음엔 알았다고 하면서 관심하는것 같더니 로력이요 프락프르요 하면서 이뵈에비 제사날 밀리듯했지요. 그래도 자꾸 제기하니까 뭐 나보고 까다롭다나요, 허참!》

나는 아연하였다. 억울하게 당한 모욕감같은것으로 하여 모닥불을 들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금시 눈물이라도 찢끔 솟아날것 같았다. 입술을 깨문 나의 손에서는 길옆에서 뜬은 풀대가 손톱여물로 찢어지고있었다.

그러니 반장은 3대혁명소조원이라는 이름을 빌리려들고 또 관리위원장은 그 이름때문에 내 의견을 들어주고…

어쩌면… 어쩌면 일꾼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다. 목이 꺾 막히며 숨쉬기가 가빠졌다.

반장이 움쭉 일어섰다. 돌변한 나의 감정을 알아챈 모양이다.

《갑시다. 이거 내가 공연히…》

나는 움쭉하지 않고 굳어진채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외롭기도 하고 처음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맥이 풀리었다.

몇발자국 걸어가던 반장이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갑시다. 없었던 이야기루다 치구…》

《이야기는 이미 있었지 않나요. 어쩌면… 어쩌면 그럴수들 있나요!》

나는 발딱 일어섰다. 분한 나머지 흑- 느껴졌다.

《가겠어요. 난… 난 가겠어요.》

어마지두 이렇게 내소고는 향방없이 달려갔다. 설음겨운 눈물이 자꾸만 솟아올랐다.

《아-아, 소조원동무!》

반장은 급한 나머지 몇발작 따라섰다. 그러다가 그자리에 굳어져버리는것 같았다.

나는 한참 달리다가 멎어섰다. 결집에 가겠다고 한 소리가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가긴 어디로 간단말인가. 소조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야말로 바로 일꾼들의 저런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아주는것이 아니겠는가! 학교에서, 소조강습에서 사상혁명이 선차며 가장 힘들다는걸 몇번이나 배웠던가!

나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해보았다.

내가 저이들을 어떻게 일깨워준단 말인가. 나이도 나이려니와 저 사람들은 나보다 수십년 오랜 기간 일해온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낼수 있겠는가!

문득 어느 한 예술영화에서 나같이 어린 소조원 처녀가 큰 화력발전소기사장을 아무리 일깨우려 해도 기사장은 도리어 귀엽고 천진스럽게만 생각하면서 도무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자 소조원이 기사장에게 하던 말이 눈물겨웁게 들려왔다.

《기사장동지, 제가 기사장동지의 딸같이 보지요?》

면바로 가슴을 찢리운 기사장은 허거프게 웃으면서도 역시 순진하게만 생각하면서 들어주지 않던 모습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저이들도 나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다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것인가?

나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과수밭쪽으로 옮겨졌다. 홀로 과수밭풍선과 골짜기들을 밟아보았다. 번연한 리치였다. 반장의 말대로 많은 배관들이 필요했었다.

나한테는 그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었다. 관리위원장아바이에게 제기하면 어떻게든 또 풀어줄지도 몰랐다. 허나 두번다시 그렇게 할수는 없었다. 문제는 자기가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반장이나 소조원이 제기하면 해결해주는 관리위원장의 관점을 바로잡아주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잡아준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막연하기만 하였다. 깊은 한숨을 쉬며 과수밭풍선을 따라내려오던 나는 밤이슬이 축축이 내린 잔디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또다시 한숨이 나갔다.

불쑥 고향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났다. 부모님들도 나를 쳐다보는듯했다. 그 눈길에는 동정이 아니라 그 어떤 조소와 쓸쓸한 질책이 가득 어려있는것 같았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보는 나의 눈앞이 불시에 콧 흐려졌다. 또다시 설음같은것이 북받쳐올랐다.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한참동안 흐느껴울었다. 그러고나니 어쩐지 마음속이 좀 풀리는듯했다.

나는 머리를 쳐들었다. 룡선과 수평을 이룬듯한 밤하늘에서 보석같은 몇몇 별이 반짝이며 무엇인가 나에게 신비스런 이야기를 속삭여주는듯도 했고 또 어찌보면 천진하다고 놀려대기도 하는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금시 떠오른 한쪽 배가 얼마간 이지러진 하현달빛에 묵화처럼 검스레 보이는 배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우리 반장의 경우부터 분석해보았다. 옳은, 분명 옳은 문제를 가지고 뗏뗏이 제기 못하다니...! 그렇지, 자기만 눈에 나고 손해를 봤다고 했다. 왜 자기라는 존재부터 생각하는가? 반장이라는 직위와 명예때문에...? 물론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그 직위나 명예를 관리위원장이나 그 누구 개별적인 사람들이 주고받고 한단말인가?!...

그렇다. 문제는 자기라는 존재의식보다 혁명이란 생각이 먼저 발동되어야 하며 그 립장에서 한 걸음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나는 더는 그 무엇도 생각해보고싶지 않았다. 벌떡 일어섰다. 천천히 마을로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자신을 두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만약 반장의 위치에 있다면...? ...아니, 그럴수 없어. 그래서서는 절대로 안돼!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량심을 걸고 굳게 맹세했다. 그러고나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소조합숙으로 꺾어드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 마주 걸어오던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내앞에 와서는 안도의 숨까지 내쉬며 오래간만에 만났던듯 무척 반가와하는 그 사람은 뜻밖에도 반장이었다.

《어델 갔댔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관리위원회랑, 소조책임자한테까지 갔댔수다. ...아깐 내가 잘못했수다.》

《난 반장아저씨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으면 해요.》

《거야 뭐 소조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반장은 머리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너무나 잘 알고있는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변연히 알면서 그렇게 하고있었다.

나는 그래서 더욱 분했다. 참고만 있을수 없었다.

《알았으면 이젠 어떻게든 반장자신이 제기해보세요. 난 반장아저씨의 진속을 알게 된이상 그런것을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반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소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는 나쁜노릇 말이에요.》

반장은 말없이 깊은 숨만 내쉬었다.

《난 생각해봤어요. 반장아저씨가 관리위원장의 위치에 있다면 아마 지금 관리위원장아바이보다 훨씬 더할것 같아요.》

《내가요?》

《그래요. 반장아저씨는 자신부터 생각하는 리기 주의자예요.》

나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고 뽕뽕해졌다. 반장은 무척 놀라는듯 한발 다가서며 반문했다.

《아니, 내가말이요?》

《그래요. 반장이라는 직책을 진 자신이 옷사람들의 눈에 날가봐 옳은것도 제기 못하지요. 그러니 반장아저씨같은 사람들이 관리위원장쯤 되면 어떻게 하겠나요.》

《뭐요?》

다시 놀란 눈길로 나를 쳐다보던 반장은 천천히 머리를 수긏하고 서있다가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았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말았다. 처음엔 연거퍼 빨다가 점차 천천히, 나중에는 매우 드물게 빨아서는 한숨처럼 내뿜군했다.

나는 아무말없이 그냥 서있었다.

반장은 그렇게 오래도록 담배 한대를 다 피우고 나서 말없이 일어서서 썩하니 가버렸다.

다음날부터 작업반에서는 본격적인 심부시비작업에 들어갔다. 나무들사이를 깊이 파고 거름을 날라다 넣는 작업이었다. 배나무가지들이 드리우고 경사진 포전들이어서 거름지게를 지고도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했다. 파수밭일은 반장의 말대로 확실히 힘들었다.

그래도 허리에 중등끈을 질끈 동인 금너아주머니는 올해엔 중간통로까지 실어다놓은 거름을 나르게 되어 《신선놀음》이라고 하였다. 반장이나 나의 피로움을 알바 없는 그의 입이 마를새없이 나를 칭찬하는가 하면 반장을 시까슬기도 했다.

《이게 다 소조원의 덕이지요.》

반장아주바이, 내 하루에 세공수는 벌겉 같은데 정량을 다시 정하지 않겠슴제?》

지계를 지고 함께 일하던 반장은 못들은척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튿날, 그 다음날도 간단한 작업지시만 했을뿐 나와 얼마간 떨어져서 수격수격 일만 하였다. 혹시 나의 눈길과 마주칠 때면 머리를 떨굴뿐이었다.

나는 그럴수록 더욱 안타까웠다.

어떻게 해서나 자연수압소독과 관수체계를 도입해야겠는데... 아직도 반장은 관리위원회에 찾아가 결심이 없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힘들어할 반원들을 생각하면 내가 당장 관리위원장을 만나보고싶었다. 그러나 또 소조원의 이름으로 제기할수는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조용히 반장을 만났다.

《반장아저씨, 관리위원장아바이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요?》

《뻔- 하겠지만 만나보겠수다.》

뜻밖에도 반장은 선선히 응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금녀아주머니가 출근하자 바람으로 큰일이 난것처럼 떠들어댔다.

《어제저녁에 있재이우. 관리위원장과 우리 반장이 대판들이루 싸웠습네. …사실 우리 반장이 땀(마음)이사 여간 곱지비.》

금녀아주머니는 늘 반장에 대하여 불평인것 같더니 그래도 그의 편역을 들었다.

나는 그일때문이였구나 하고 생각하며 반장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날따라 좀 늦어진 반장의 작업조직이 끝나자 나는 그를 만났다.

《어떻게 됐어요?》

《글쎄 뻔- 하다질 않수다. 복청에서 한건 말그대루 시범방식상학이다. 어떻게 파수발마다 다 그렇게 하겠는가, 내 손에 판이 어디 있나 하면서 코방구를 뺐수다. 그래서 내 좀 말했지요. 소조원을 걸고드는것 같아서 목덜미가 근질근질 했지만 할수 없었수다. 아마 소조원이 제기했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거라구 하면서 중간통로문제까지 들이댔지요. 석삼년전부터 내가 제기할 때엔 안밀어주다가 소조원의 한마디에 제격 받아몰지 않았는가. 이제 무슨 관점인가구 들이댔지요.》

《그러니까 뭐래요?》

《눈치야 빠른 사람이지요. 자기도 다 알았나요. 분명 반장의 추동질에 소조원이 달려왔을거라구. 이제 가서 또 소조원을 보내라나요.》

홍, 가지 마우다. …젠장,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다 합시다.》

반장은 주먹을 짹 틀어쥐었다.

그러니 모두들 아는 주정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일케운단말인가?!

나는 안타까우면서도 마음 절반은 기뻐기도 했다. 반장만이라도 이젠 제가 직접 나섰으며 옳게 비판했기때문이였다. 아무리 배짱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정당성앞에서는 가슴이 찢리지 않을수 없을것이라 생각되였다. 이렇게 반장은 관리위원장한테 첫타격을 가한 셈이였다.

나는 우리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관리위원장도 하자는 사람이니 결코 그만두자는 생각에서 거절하지는 않았을것이였다.

그렇다. 어쨌든 농장적으로 볼 때 5반까지 있는 농산반이 기본이고 그에게는 우리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배관을 구하기도 힘들수 있을것이다. 우리도 무엇인가 그의 짐을 덜어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 반장이 그 말을 먼저 꺼냈다.

《소조원동무, 내 아침에 곰곰히 생각해봤수다. 농산반 벼실격질이 팔린단말입니다. 량심에 찢렸수

다. 그래서 파수반 장정로력과 운반수단들을 동원해서 농산반을 도와줍시다.》

《반장아저씨, 고마워요. 어쨌면… 어쨌면 그런 생각까지 …!》

나는 반장의 생각이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금녀아주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 반장이사 땀이사 여간 곱지비!》

나의 생각은 또 깊어갔다. 관리위원장의 관점문제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했다. 상급에 제기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자신이 자각하고 고쳐나가야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날로 농산반지원을 조직했다. 나머지 인원들로 심부시비를 다그치면서 설참에 의논해보았다. 작업반에서 제기된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자, 배관문제를 어떻게 풀 방도가 없겠는가고.

선참 나선 사람은 금녀아주머니였다.

《내 래일 청진에 갔다오겠습네. 우리 오래비 있재이우, 공업대학실습공장이라는데서 첼판을 뽑아내는 반장을 합네.》

반장은 기뻐서 그의 손을 쳐들어주며 소리쳤다.

《이 로친이 제일이다!》

《에그- 제일이야 무슨 제일, 뭐 뉘(남)의 일이라구.》

나는 어쩐지 미타스러워 반장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쉽게 즐기요?》

《로친, 잘 알아보우다. 어떻게 체계를 밟아야 하구 또 거 뭐 우리가 도와줄게 없는가구 말이우다.》

반장은 금녀아주머니에게 이렇게 타일려주었다.

모두들 집집마다에 묻은 하수도관까지 뽑아내 오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였지만 나는 고맙기 그지없었다. 모두들 주인답게 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면서도 생각은 또다시 관리위원장한테 끌려갔다.

《관리위원장아바이, 도와주지 못해도 좋아요. 문제는 반장의 제기를 옳게 접수하고 내밀어주자는 생각만이라도 가졌으면 해요. 그런 관점과 태도가 보고싶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관리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관리위원장을 나는 자주 만나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리위원장도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 말할듯하다가도 그냥 지나치군했다.

배관때문에 청진에 갔던 금녀아주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판을 요구하는데는 많으나 생산능력이 제한되어있고 계획에도 물리지 않아 매년에도 어렵겠다고 했다. 못내 미안해하는 금녀아주머니를 진심으로 위로하였다.

《우리 힘으로 꼭 풀어보자요.》

나는 농산반과 남새반 포전들을 돌아보았다. 발판개로 리용된 철관, 세멘트관 그리고 굵직한 실로 단단하게 짠 천호스관들까지 다 돌아보고 그 생산지들을 알아보았다. 다행스럽게도 5기압까지는 문제없이 견딘다는 천호스는 군견직공장에서 짠것이라 했다.

나는 이튿날 아침, 반장에게만 이야기하고 50리가 실히 되는 읍으로 떠났다.

견직공장에도 소조가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지배인을 만나서도 내가 소조원이라는 말만은 굳이 하지 않았다. 지배인이 혹시 또 소조원이라는 이름에 너그러움을 보일것 같아서였다.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와 요구되는 량만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오목한 코날이며 쌍가풀진 눈, 어딘가 만만치 않게 보이는 40대의 녀성지배인은 처음부터 매정스럽게 잘라버렸다.

《여긴 농촌자재공급소가 아니야.》

《도와주세요. 계획에 물려서 하자면 껍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도 나는 사정해보았다.

《우린 매년도 계획작성이 끝났다.》

지배인은 더 길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직장들을 돌아보러 나셨다. 나는 얼마간 그의 뒤에 따라서서 저녁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나중엔 시끄럽다는투로 신경질까지 부렸다.

《안된다질 않니. 너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린 언제 일하겠나?》

나는 그래도 물러설수 없었다. 저녁사업총화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문밖에 오도카니 서서 기다렸다. 서산에 기우는 해를 바라보느라니 어쩐지 또다시 고향과 오בות 집생각도 나면서 서글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반장이나 금녀아주머니 그리고 반원들을 생각하니 이악이 났다. 관리위원장 생각도 나서 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쩌면 그럴수 있나요. 중간통로문제도 반장에게 말했듯이 나한테도 바빠서 못해주겠다고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거예요. 나는 소조원이랄뿐이지 관리위원장의 딸같은 어린 처녀가 아니나요. 날 희롱한건 일 없지만 소조원의 이름을 희롱한건 얼마나 옳지 못해요.》

끝없는 생각에 잠겼는데 사업총화가 끝났다. 지배인은 맨나중어야 사무실에서 나왔다. 어두워진 그때까지 기다리고있는 나의 앞을 그냥 스쳐지나갔다.

《지배인동지 !》

아속스럽던나머지 나는 목이 꺾 메여와서 더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몇발자국 내쳐 걷던 지배인의 발걸음이 떠지다가 벗어났다.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돌아서 나에게로 다가왔다.

《처년 파수반기술지도원이요?》

《아니, 그저 농장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쩐지 량심에 걸리지는 않았다.

《일군들은 뭘하고 네가 이렇게 찾아다니나?》

《저도..., 저도 농장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뭘 대신해서 일해줄게 없을가요?》

《품삿을 받자고는 안한다. 우리도 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지배인은 한참동안 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의 제기는 토론해보겠다. 그러나 우에다는 반영해야겠다. 너희 농장 일군들은 틀려먹었구나 !》

《아니,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예요, 제기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럼 그냥 가겠어요. 누가 시킨것도 아니예요. 그저... 그저 안타까우니까 무작정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우리 농장 일군들도 이제 다 잘할 거예요.》

나는 안타깝던나머지 눈물까지 솟구쳐오르는것을 참아내면서 지배인한테 막 매달리면서 사정했다. 지배인은 그러는 나를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나의 등을 정답게 쓰다듬었다.

《몇살이나? ...참 기특하구나. 그럼 네 말대로 제기하는건 그만두자. 너의 진심을 로동자들에게 호소하마. 꼭 될게다. 며칠후에 오너라.》

《아이참, 지배인어머니 고맙습니다 ! 매년가을엔 로동자들에 꼭 인사를 오겠어요.》

《일없다. 값은 받자고 안한다니까. ...그래 읍엔 아는 집이 있나?》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겠나. 우리 집으로 가자 !》

《전 일없습니다. 반장아저씨랑 기다릴거예요. 이제 곧 올라가야 합니다.》

나는 꾸벅 인사하고는 돌아섰다.

지배인은 오래도록 내쪽을 바라보는것 같았다. 그는 첫 인상과는 달리 참으로 인정 있고 속이 깊은 녀성이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나는 내쳐 걸기 시작했다. 배고픔도 무서움도 힘든줄도 모르고 걸었다. 그저 기쁘기만 하였다. 관리위원장의 일로 하여 괴롭긴 했지만 어쩐지 이제 그도 반장처럼 고치리라 믿어졌고 기뻐할 반원들을 생각하니 발걸음 앞서 마음은 날아갔다.

이밤따라 오가는 자동차도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바라고싶지도 않았다. 입에서는 저절로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오솔길 덩불에 치마폭 찢겨도  
쳐너는 춤추듯 집으로 달려네  
김매던 호미자루 집어던지고  
...

아직은 체험도 못해본 그런 세계 그리고 어쩐지  
농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  
향집으로 달리는 듯한 심정이었다. 걸음도 춤추듯이  
가볍고 환희로왔다.

50 리길이 도무지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절반  
길이나 거의 축냈을 때였다. 앞쪽에서 무슨 웨침소  
리같은것이 들려왔다. 이때에야 산골길로 홀로 걷  
고있다는 의식으로 오싹 소름이 끼쳐왔다. 더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싶지 않았다. 까딱없이 굳어져  
모든 신경들이 칼날같이 살아났다. 그 짧은사이에  
떡 가까이에서 다시 들려온 그 웨침은 나를 찾는  
소리가 아닌가!

《순-금-아-아!》

분명 나를 부르는 소리다. 석싹한 남자의 웨침  
은 어쩐지 아버지목소리 같았다.

누굴가?!

《순-금-아-!》

아, 반장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뭉클해오며 눈물이 솟아났다.

《네-에!》

목이 꺾 메여 소리가 잘 나가질 않았다.

반가왔다. 무등 반가왔다. 《소조원동무》라고  
하지 않고 《순금》이라 부르는것이 더 반가왔다.

앞쪽에서 려이어 찌릉 찌르릉 신호종을 울리며  
자전거불빛이 날아왔다. 나도 마주 달려갔다.

《순금아!》

《아저씨!》

자전거에서 내리는 반장아저씨에게 무작정 막  
매달렸다. 반장은 그러는 나를 친동생처럼 꼭 그리  
안았다가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원참, 너 정신 있냐! 무섭지도 않던?》

《아니요. 반원들이 일을 더 쉽게 하면서도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저 막 달려왔어요.》

《이 정신봐라, 너 배고프겠구나!》

반장은 자전거집들에서 무엇인가 보자기에 쓴  
걸 풀었다. 그는 나를 끌어다 길옆에 앉혔다. 들고  
온 보자기에서는 배 몇알과 당콩을 퐁퐁 박은 찹쌀  
떡 몇개가 나왔다.

《내가 관리위원회에 작업보고를 갔었는데 마침  
견직공장지배인이 전화를 걸어왔더구나. 일꾼들은  
뭘하고 어린 처녀가 뛰어다니게 하는가고 욕질이더

라. 지배인은 순금이 소조원인줄도 모르더구나,  
관리위원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나보고 물길래  
소조원이라고 했지. 그리고나서 나도 주먹으루다  
책상을 치며 말했다.

보라, 소조원은 자기가 제기하면 소조원이라는  
이름때문에 또 쉽게 대답할것 같아서 관리위원장이  
나 지배인에게도 말을 안했다. 그래 누구의 제기는  
받아주구 누구의 제기는 목살해버리구! 이게 무슨  
본생가.

나두 지난해에는 몇번 제기해보다가 오히려 내  
만 눈에 난다구 그만뒀었는데 우선 나부터 고치겠  
다. 관리위원장이나 반장자리가 뭐라구 자기 평정  
과 관계될것 같은 사람들의 말은 고분고분 듣고 순  
박한 농장원들의 말은 귀등으루다 흘려보내구...》

《아이참. 너무하지 않았나요?!》

나는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관리위원장아버이  
의 모습이 떠오르며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너무하긴. 그 사람이 오히려 제족에서 큰 소릴  
치더구나. 옳은것도 뻔대지 못하고 나쁜걸 보고도  
뺨을 못치는 반장은 무골충인가, 집이 멀어선가, 자  
주 만나지 못하는가 하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책상을 탕 치면서 왜 나보고 멍청히  
서만 있는가고 켹 소리치더구나. 순금이 저녁도  
못먹고 떠난것 같은데 뭘 좀 갖구 마중가야질 않겠  
는가구 말이다.

내 몇십년 아래웃집이다싶이 살면서 같이 일해  
봐서 잘 아는데 원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던단다.》

나는 또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반장도 관리위원장도 얼마나 인정깊고 고마운  
사람들인가!

《아저씨,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했던것 같애  
요.》

나는 어쩐지 자꾸만 가슴이 마쳐왔다.

《일없다구. 내나 그 사람이나 아픈때를 맞아보  
며 정신이 들어야 한단다.》

《그래두..., 그래두...!》

웬일인지 가슴이 자꾸만 젖어들며 뜨거운 눈물  
만 솟구쳤다.

나는 한달도 채 못된 나의 첫 사회생활이자 소  
조원생활을 돌이켜보았다. 웃음도 있었고 안타까움  
도, 눈물도 있었던 그 생활속에서 나는 어쩐지 자신  
도 모르게 자라난것 같았다. 아마 그것은 부모형제  
들처럼 친근하고 가까와진 이 좋은 사람들이라 무  
엇인가 더 크고 벅찬 일도 해낼수 있을것만 같은  
신심때문이었다.

다음엔 또 어떤 생활에 맞닥들게 되겠는지  
...?!

## 청춘과 세월

장원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청춘이라 하였던가  
한시절이 끝나면 또 다른 시절이  
소리없이 찾아오는 인생

말 못하는 사랑을 안고  
어머니앞에 부끄러움 짓던 처녀시절인가  
일감을 놓고는 밤새 잠을 못드는  
성미 불갈던 총각의 한시절인가

나는 갓 서른을 앞에 둔 젊은이  
련인과의 상봉을 약속한 날도 있었고  
친구들과 꿈을 나누며  
희망으로 달음친 보람찬 날도 있어라

아, 청춘이란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역사의 그 술한 갈피엔  
나라는 나라마다 제 나름  
젊은이들의 사연에 찬 이야기는 있더라

허나 일찌기, 조국을 잃으면  
봄은 있어도 청춘이 없음을 절감한 세대  
수령님 따라 가장 간고한 날을 헤쳐온  
혁명의 첫세대처럼 빛나는 청춘은 없으리

캄캄한 암야에 한줄기 빛을 찾아  
떠다닌 젊은이들 이 나라에 그 얼마나  
한별만 계시면 승리한 래일이 있다는  
선렬들 피로써 얻은 고귀한 진리여

그 진리 세월을 넘어 오늘도  
나와 동시대 한 청춘들의 가슴에 낮이 되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따라  
혁명의 새 역사를 곳곳이 이어가는것 아니냐 !

그러하더라, 청춘이란  
앞날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하는 법  
위대한 령수를 모시고 가는 내 조국의 앞길엔  
언제나 창창한 래일만이 펼쳐져있나니

그래서 들가득 이삭을 영글이며  
젊은이들 속삭이는 사랑은 그리도 뜨겁고  
천길막장 한끝에서 쇠돌을 깨며  
광부들 터놓는 꿈은 가슴 부푸는것이여라

아, 정녕 청춘이여!  
너는 소리없이 오고가는 세월이 아니다  
시간으론 켤수 없는 인생의 한구간  
우리 값높은 삶으로 닳을 올린 희망의 바다 !

나라의 앞날이 없혀진 이 시절에  
만일 두려움 있다면 젊음이 수치스러워  
내 비바람 세차도 아늑한 기슭은 찾지 않으리  
풍량이 사나와도 따스한 보금자리 찾지 않으리

그렇다, 그앞에 위훈의 래일이 있어야 청춘,  
조국의 래일을 안고사는 가장 빛나는 시절이  
우리 당의 해빛 밝은 이 시대에 있음을  
나는 노래하노라, 너 끝모를 청춘과 세월에 이어 ...